

ISSN 2586-6206
eISSN 2713-7155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제9집 2021.11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연구소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제9집
(2021.11)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연구소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제9집 (2021.11)

<목 차>

공수영	▪ 동아리 활동을 통한 다문화 학생들의 정체성 형성 및 꿈 찾기 사례 연구 - 진로탄탄 및 진로기초교육 프로그램 활용을 중심으로	1
권영은	▪ 사회적 가치를 위한 부산은행의 다문화가족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27
박형준	▪ 당사자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 고찰 - 재한 화교의 구술/수필 텍스트를 중심으로	49
안지현	▪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전망 - 영어 교육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75
장니나	▪ 뉴노멀시대의 내용 중심 온라인 외국어 수업 방향 탐색 - ZOOM 화상회의 기반 난민전문 및 법정 통역인 연수를 중심으로	97
황미혜	▪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에 기초한 다문화사회 상호간 역차별 정책 대응 다각화 방안 연구	121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9집 회보		147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회칙		150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155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연구윤리규정		157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논문투고규정	161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회원 명단	163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Vol. 9 (2021.11)

<Contents>

Su-Young Kong ▪ Case study of forming identity and finding dreams of multicultural students through club activities - Jinro Tantan and Career Basic Education Program use	1
Young-Eun Kwon ▪ Multi-cultural Families on the Activation of Financial Education for Social Values : A case Study of Busan Bank	27
Hyung-Jun Park ▪ A study on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multicultural research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arties concerned	49
Ji-Hyun Ahn ▪ The Prospect of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Focusing on Comparing to English Language Education	75
Ni-Na Chang ▪ A study on the direction of online foreign language classes based on Content-based Language Teaching(CBI) in the new normal era -Focusing on the training of refugee professional interpreters and legal interpreters based on Zoom video conferencing	97
Mi-Hye Hwang ▪ The research of Multicultural Society Between Reverse Discrimination and the Related Policy Measures based on Affirmative Action Policy	121

동아리 활동을 통한 다문화 학생들의 정체성 형성 및 꿈 찾기 사례연구 -진로탄탄 및 진로기초교육 프로그램 활용을 중심으로-

공수영

(김해 내동초등학교)

《목 차》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 1.2. 연구의 목적
 - 1.3. 용어의 정의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 2.2. 자료 수집방법
 - 2.3. 자료 분석방법
3. 연구결과
 - 3.1. 동아리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다문화학생들의 변화
 - 3.2. 진로탄탄 및 진로 기초교육 프로그램 효과
4. 결론 및 제언
 - 4.1. 결론
 - 4.2. 제언

<Abstract>

Kong, su-young. 2021. 10. 20. Case study of forming identity and finding dreams of multicultural students through club

activities - Jinro Tantan and Career Basic Education Program use.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9, 1-25. This study developed a dream search activity through career club activities for multicultural students attending elementary school. Elementary school career education has four major areas. This study aims to help students learn the basics of self-understanding and career exploration after understanding the actual situation of multicultural students. For this purpose, “Jinro Tantan and Career Basic Education Program” was used. Also, to help the emotional part, I read picture books at the same time. Ten people participated in the club activities from May to October. At first, I did not recognize what club activities were doing, but as I participated in the activities, I was able to express what I liked and how I felt. Also, I had time to think about what kind of job I had and what kind of job I would have when I grew up.

Although the club activity period was not long, I could see that the students' thoughts were growing in the process of finding what they liked, what they were good at little by little, and exploring their career path through experience.

In the future, multicultural students should be provided with many opportunities to explore their interests and aptitudes and develop their ability to search for job information. Through self-understanding and career exploration, it is necessary to help them design and plan their own career path. This will become a resource for the upcoming future society. **(Kimhae nae-dong elementary school)**

[Key words] Multicultural Student, Identity, Dream, Career Education

1. 서론

초등학생은 진로발달의 시기로 진로인식단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긍정적 자아이해와 자존감 회복을 바탕으로 올바른 진로의사결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학생들은 아직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나 꿈에 대하여 잘 표현하지 못한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정이 많아 체험활동이나 한국문화 경험도 적은 편이다. 교육적인 면에서도 학습격차가 발생하여 학습부진을 면치 못하며,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친구와 어울리기 때문에 교우관계도 원만하지 못하다. 이는 다문화학생들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미래사회에서도 부적응으로 인하여 사회현상에 문제를 끼칠 수 있다.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는 다문화학생들이 전체 17%(49/290)를 차지한다. 이 중에서 한국어를 모르는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다문화특별학급으로 한국어교실을 운영한다. 한국어교실은 최장 2년 동안 한글부터 시작하여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한국어를 지도한다. 그런데 연구자가 한국어를 처음 말았을 때 1년이나 한국어를 배웠는데도 학생들이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이 학생들의 특징이 엄마를 따라 본국에서 살다가 중도에 한국에 들어왔으며, 2학년에 취학을 한 학생들이다. 현재 4학년이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곳이 한국어교실 뿐이고, 집에 가면 본국의 언어를 사용한다. 나머지 학교생활은 눈치로 친구들 따라 겨우 학교생활을 하는 상황이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연구자는 안타깝기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다. 마침 2020년 겨울방학이 끝나갈 무렵인 1월 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비대면 진로교육 프로그램

램 워크숍에 참여하게 되었다. 연수자료 “진로탄탄 및 진로기초교육 프로그램 활용 자료집”을 소개받고 중도입국청소년에게 적용한 사례를 접하게 되었고, 연구자도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문화학생들에게 동아리활동으로 다가가게 되었다. “진로탄탄 및 진로기초교육 프로그램”에서 진로영역 중에서 자기이해와 진로탐색을 중심으로 꿈 찾기를 해보고자 목표를 정했다. 또한, 이들에게 정서적인 도움과 어휘력 신장을 위하여 그림책 읽기를 병행하였다. 이 연구는 다문화학생들이 긍정적 자아개념과 자아정체성 형성 및 진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1.2. 연구문제

본교 다문화학생들의 특징은 어휘력 및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여, 친구들 사귀기 언어가 같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제한된 생활을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동아리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다문화학생들의 변화는 무엇인가? 첫 번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문화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에서 나타나는 학습경험의 과정을 실제 교육 장면에서 관찰한 자료와 활동지, 사진 자료 등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제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어떻게 자아정체성과 꿈을 찾아가는지 살펴볼 것이다.

둘째, 진로탄탄 및 진로기초교육 프로그램 내용의 특징은 어떠한가? 두 번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로탄탄 및 진로기초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분석하고 동아리활동 다문화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이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 효과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다문화학생 유형

다문화학생 유형은 <표 1>과 같다(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교육부).

<표 1 다문화학생 유형>

국제 결혼 가정	국내 출생 자녀	•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성장한 경우 •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은 없으나, 학습에 필요한 문장이나 어휘를 이해하는 데 곤란을 겪는 경우 존재 • 사춘기에 진입하면서 다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에 불편함을 느끼며, 심리정서 지원 요구
	중도 입국 자녀	•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에서 데려온 경우,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결혼이민자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입국한 경우 등 • 새로운 가족과 한국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스트레스가 발생하며, 정체성 혼란이나 무기력 등을 경험하는 경우 존재 • 한국어능력이 부족하여 공교육 진입과 적응에 어려움 발생
외국인 가정	외국인 가정 자녀	•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한국계 중국인, 중아시아 고려인, 시리아 난민 등 포함) • 정주여건이 불안정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존재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문화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정체성 형성 및 꿈을 찾아 가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실천 변화를 탐색하는 데 목

적을 두었다.

2.1. 연구 대상 및 연구 절차

연구대상은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1학년부터 6학년 학생 중 다문화학생 10명 내외를 선정 기준하며,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 2 연구절차>

구분	추진계획	연구일정(2021.3~10)						
		3	4	5	6	7	9	10
계획	다문화 워크숍 참여, 관련 도서 찾아보기	○						
	주제선정, 다문화학생 실태파악	○	○					
	연구의 방향 설정 및 관련선행연구자료 수집	○	○					
	다문화 동아리활동 운영 계획 수립 및 제출		○					
실행	다문화 동아리활동 대상자 모집		○					
	동아리활동 대상자 학부모, 학생 설문조사		○					
	동아리활동 프로그램 운영		○	○	○	○	○	○
	동아리활동 중간 보고서 제출				○			
	동아리활동 교내 체험활동 실시				○		○	○
평가	동아리활동 실행 결과의 정리 및 평가		○	○	○	○	○	○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제출				○			○
	반성 및 일반화, 다음년도 계획 수립							○

2.2. 자료수집 방법

연구자는 다문화학생들의 동아리활동의 연구내용은 질적연구방법으로 실천사례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자료수집 방법>

연구 대상	시기	방법	검사도구	결과 분석
학생	2021. 4월, 10월	질적 검증	관찰, 동아리활동지, 면담, 설문지	교사 메모 기록 분석 활동지 내용 분석 사진자료, 설문지분석
학부모			설문지	설문지 분석

연구 기간은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격주로 진행하였다.

연구에 앞서 연구자는 다문화학생들에게 동아리활동을 진행하기 위하여 중도입국학생들에 대한 1박2일의 비대면 워크숍에 참여했으며, 질적 연구 방법론 수강 및 그림책 활용을 위해 연구회 활동에도 참여했다.

2.3. 자료 분석방법

다문화학생들에게 동아리활동은 다문화학생들에게 자신을 이해하고 꿈을 찾을 수 있는 활동이며 이 과정에서 나타난 자료를 중심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즉, 교사메모, 학생들 활동지 및 사진자료, 진로탄탄 프로그램과 도서활용, 설문지 등이다.

3.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진로탄탄 및 진로 기초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문화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로 알아보았다.

3.1. 동아리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다문화학생들의 변화

3.1.1. 다문화학생 실태 분석 진단

2021년 4월 동아리활동 대상자를 모집하고 설문지와 자기소개 자료를 분석할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취미, 흥미 등의 어휘를 모른다. 한부모인 가정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부모와의 대화시간도 적고 한국어실력이 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진로교육 프로그램 참여 다문화학생 실태분석 진단 >

순	학 년	이름	학생 분석 및 개별진단
1	2	아○툼	외국인가정으로 취미, 흥미, 다양한 스포츠를 좋아하나 진로(꿈)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못함.
2	2	야○	외국인가정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규칙을 잘 따르며 꼼꼼하고 성실함.
3	2	로○	외국인가정으로 활발하고 자기 표현을 할 줄 알며, 운동을 좋아함.
4	3	비○	외국인가정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양호하며, 학업성적이 양호함.
5	4	○나	외국인 가정으로 재혼가정이며, 한국어 어휘력이 부족하고, 어떤 질문을 해도 몰라요, 안해요 라고 대답함.
6	4	은○	국제결혼가정(모 베트남)이며, 한국에서 태어나 의사소통 완벽하고 수업을 하면서 직업에 대한 공부를 한 적이 있음.
7	4	○로	외국인가정으로 모(母)랑 함께 살고 있으며,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아 간단한 단어만으로 의사소통을 하며, 집 외에는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왔다갔다하는 상황이고, 말이 없는 편임.
8	4	마○아	외국인가정으로 가족이 모두 한국으로 왔지만, 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한국어로 간단한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학습에서 사용되는 어휘를 잘 모름. 러시아어로 번역하면 어느 정도 이해함.

9	4	혜○	국제결혼가정이며, 한국에서 출생함. 모(베트남)재혼으로 한국에 재입국한 중도입국학생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가족과 대화를 기피하며 방안에서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상태임. 질문을 하면 모른다고 함.
10	5	민○	국제결혼가정이며, 필리핀 출생으로, 2020년 8월에 중도입국한 학생이며, 짧은 기간이지만 한국어로 의사소통 가능하나 어휘를 부족함. 꿈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않음.
11	6	니○타	외국인가정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부족하며, 한 학년 낮은 4학년에 취학하였으며, 현재 사춘기를 겪고 있는지 외모에 관심이 많으며, 말이 없고 소극적인 태도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음. 질문을 하면 “네, 아니오”로만 대답함.
12	6	띠○	현재 모(베트남)의 재혼으로 중도입국한 학생이며, 한국에 4학년 때 입국함. 한국어로 의사소통 가능하며, 꿈은 없지만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음. 어휘력은 짧으나 질문에는 대답을 잘함.
13	6	○카	외국인가정으로 아직 진로를 정하진 못했지만 진로탐색을 통해 다양한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과 후 활동 경험이 많음. 질문을 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으나 목표가 없고 의지가 약함.
14	6	○서	국제결혼가정으로, 내성적이고 친구 관계에 어려움이 있음. 스스로 하기보다는 모의 도움으로 방과 후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기 이해와 관련된 진로탐색 기회가 필요함.

3.1.2. 다문화학생, 학부모 설문지 분석

다문화학생, 학부모에 대한 사전 설문지를 보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한국어로 질문한 답변의 해석은 비슷하다. 학부형의 경우 사전 동아리 설문지에서 동아리활동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연장선인 것으로 알고 있는 듯하다. 예를 들어 “동아리 활동에서 어떤 것을 기대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공부를 더 잘한다”거나 “한국어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 외에는 무응답이다. 학부모들 대부분이 타문화의 나라에서 생활하여 의사소통이 미흡하고 한국어를 이해하는 정도가 미약하다. 사후 설문지에서는 중도입국 학생 학부모 한

분만 답변을 하였는데, 학생이 동아리활동을 매주 기다리며 좋아한다고 설명해 주면서 계속 이런 활동을 해 주면 좋겠다는 내용을 기록하였다. 학생의 경우 동아리 활동에 계속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사후 설문지를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5 학생 사후 설문조사>

날 짜	2021년 10월 27일
설문 분석 내용	• 설문지 작성 배부한 것 회수 분석 • 설문을 나누어주어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연구자가 읽어주고 작성하도록 하였다. • 모르는 단어는 질문하도록 하였다.
수업자 성찰과 반성	• 설문 내용은 4문항인데 학생들에게 배부하면서 “진로”가 무엇인지 “동아리” 무엇인지 질문을 하니 모른다고 한다. • 설문을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작성해 오라고 했는데 제대로 이해해서 작성해 올 것인지 걱정이 된다. • 내년에도 동아리활동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하여 8명이 응답하였다(1명 졸업, 1명 거부).

3.1.3. 다문화학생의 활동기간 평가

다문화학생들의 활동기간의 평가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석현황을 보면 6학년보다 2학년, 4학년, 5학년의 참석이 현저히 높다. 고학년보다 저학년의 참석률이 매우 높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의사소통이 되고, 학교적응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다. 6학년은 면담 결과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춘기로 접어드는 시기이며, 내성적인 경향이 강하고, 연령차가 있어서 활동을 꺼려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6 동아리 활동 기간 학생별 평가>

학생 분석 및 개별 진단 (⊙-매우 잘함, ○-잘함, △-노력 요함) ¹⁾							
순	학 년	이름	동아리활동 참여율 (⊙,○,△)	활동지 작성 (⊙,○,△)	태도 및 성실성 (⊙,○,△)	한국 어 학습 기간	국적
			학생 분석 내용				
1	2	아○툼	⊙	△	○	1년 8개월	러 시 아
			동아리활동에 결석을 한 적이 없으며, 성실히 참여하고 말하기, 듣기는 잘하나 활동지를 제출하지 않음.				
2	2	야○	⊙	⊙	⊙	1년 8개월	카자 흐스 탄
			동아리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 야무지며, 활동지 작성에서 모르는 단어는 질문을 하며 꼼꼼하게 작성함.				
3	2	로○	⊙	○	⊙	1년 8개월	러시 아
			동아리활동에 결석을 하지 않고 성실히 참여하며 할 달하나, 활동지를 꼼꼼하게 작성하지 않음.				
4	3	비○	⊙	○	○	2년	우즈 베키 스탄
			한국어를 이해하는 실력이 학년에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뛰어나며, 동아리활동에 잘 따라왔으나, 2학기에 다른 활동을 한다고 오지 않음.				
5	4	○나	○	△	○	2년	러 시 아
			한국어를 사용하는 언어가 정해져 있으며, 일상생활 언어는 대충 알아듣기는 하나, 어휘력이 부족하여 활동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음. 2학기에 결석이 잦음.				
6	4	은○	⊙	⊙	⊙	없음	한국
			한국에서 태어나 동아리활동에서는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 활동지 작성에 어려움이 없음.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흐르는 느낌으로 말을 하여 잘 들어야 함. 성실하게 활동함.				

7	4	○로	○	△	△	2년 6개월	우즈 베키 스탄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엄마와 살고 있어서 한국어 실력이 늘지 않음. 일상생활에서 단어 몇 개로 대화를 하며, 대체로 옆 친구가 도와주어야 할 수 있음. 동아리 활동 시간 모르는 단어를 찾도록 태블릿을 제공하면, 어느 순간 게임을 하고 있음. 친구는 마○아 뿐이라 어쩔 수 없이 오는 것으로 보임.				
8	4	마○아	○	○	○	2년 6개월	러시 아
			한국어로 일상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이며, 간단한 문장을 쓸 수 있음. 책 속의 낱말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짐.				
9	4	혜○	○	○	○	2년 6개월	한국 /베 트남
			한국에서 태어나 베트남에서 살다가 중도입국한 학생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책 속의 단어를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동아리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함.				
10	5	민○	○	○	○	1년	한국 /핀 리핀
			작년 8월에 중도입국한 학생으로 일상생활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단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태블릿으로 번역하여 활동지를 해결함.				
11	6	니○타	△	△	△	2년	러 시 아
			말이 없고, 한국어 사용 기회가 없어서인지 질문을 하면 “네, 아니오”로 대화하며, 동아리활동 시간에는 듣고 활동지를 대충 메꾸는 정도임, 3번 출석함.				

1)	학생 분석 및 개별 진단 기준		평가
	▪ 동아리활동 참여율(출석부 분석-9회이상, 5~8회, 4회이하로 구분)		상-⊙,
	▪ 활동지 작성(활동내용 및 소감을 3가지 이상, 1~2가지, 작성하지 않음)		중-○,
	▪ 태도 및 성실성(출석률, 활동지 작성, 파일 정리, 교사관찰)		하-△

12	6	띠○	△	△	△	2년	베트남/한국
			중도입국학생이나 가정학습에서 한국어로 대화를 해서인지 의사소통 양호함. 학습적인 단어의 이해는 어려워하며, 모르는 것은 설명하면 “알아요”라고 하는데 확실하게 이해하지는 못함. 4번 출석함.				
13	6	○카	○	○	○	2년	우즈베키스탄
			한국어로 말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며 동아리활동 단어 이해도 뛰어남. 목소리가 저음이며 목소리가 작고, 탈진한 사람처럼 무기력해 보임.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독려하니 2학기에 다시 나옴. 7번 출석함.				
14	6	○서	△	△	△	없음	한국
			의사소통이나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 뛰어나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고, 동아리활동에 오면 핸드폰 게임을 주로 함. 4번 출석함.				

3.2. 진로탐탄 및 진로 기초교육 프로그램 효과

3.2.1. 진로탐탄 및 진로 기초교육 활용 프로그램

다문화학생들의 꿈 찾기 동아리 활동을 위하여 실행한 진로탐탄 및 진로 기초교육 프로그램은 연구자의 진행방식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것은 자기이해와 진로탐색영역이다. 본교 다문화학생들은 아직 자아정체성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학교적응에서 학습적인 부분에서 격차를 보이기에 1학기에는 자기이해 영역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부터 알아보았다. 2학기에는 직업탐색으로 직업의 종류부터 자신이 미래에 가지고 싶은 꿈을 정하는 과정까지 진행하였다.

<표 7 진로탄탄²⁾ 프로그램을 활용한 활동 내용>

월	기간	활동 내용(1학기)
3	2021.3. -4.30	• 방과 후 동아리 활동 모집 및 동아리 구성 • 결과: 참가 신청자 14명
4	2021.4.26 -4.31	• 동아리 안내(밴드) • 동아리 사전설문지 배부 및 회수
5	2021.5.12	• 프로그램 ‘진로탄탄 및 진로기초교육 프로그램’ 적용 - 자기소개(자아탐색), - 종이비행기 접어 날리기
	2021.5.26	• 프로그램 ‘진로탄탄 및 진로기초교육 프로그램’ 적용 - 친밀감 놀이 및 자기가 좋아하는 것 찾기(과일)
6	2021.6.9	• 프로그램 ‘진로탄탄 및 진로기초교육 프로그램’ 적용 - 친밀감 놀이 및 자기가 좋아하는 것 찾기(음식, 물건)
	2021.6.23	• 프로그램 ‘진로탄탄 및 진로기초교육 프로그램’ 적용 - “치킨 마스크” 그림책을 읽고 되고 싶은 마스크 찾아보기 - 나의 감정에 대하여 찾아보기(감정카드)
	2021.6.30	• 중간보고서 제출
7	2021.7.7	• 프로그램 ‘진로탄탄 및 진로기초교육 프로그램’ 적용 - 나는 내가 좋아 그림책 읽고 되고 싶은 마스크 찾아보기 - 나의 감정에 대하여 찾아보기
	2021.7.21	• 프로그램 ‘진로탄탄 및 진로기초교육 프로그램’ 적용 - 돼지책 그림책 읽고 되고 싶은 마스크 찾아보기 - 나의 감정에 대하여 찾아보기
	2021.7.28	• 프로그램 ‘진로탄탄 및 진로기초교육 프로그램’ 적용 - 진로체험 활동, 콩나물 키우기
9	2021.9.15	• 농업경영체와 함께하는 편백나무 방향제 만들기 - 작품 만들기 - 소감 나누기
	2021.9.29	• 프로그램 ‘진로탄탄 및 진로기초교육 프로그램’ 적용 - 행복한 청소부(자아탐색, 진로탐색) - 소감 나누기

2) 표에는 진로탄탄 및 진로기초 프로그램을 줄여서 진로탄탄으로 사용함.

10	2021.10.13	• 마을교사와 함께하는 캘리그래피 배우기 - 작품 만들기(진로탐색) - 소감 나누기
	2021.10.27	• 마을교사와 함께하는 자연화장품 만들기 - 작품 만들기(진로탐색) - 소감 나누기 • 참여 학생 만족도 조사 실시
	2021.10.30	•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 예산 내역서 제출 • 참여 학생 만족도 집계 제출

3.2.2. 도서 선정 자료 및 활동 내용

연구자는 1년 동안 다문화학생들에게 한국어를 지도한 경험이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국어 이해정도가 낮아 어휘력도 부족하고 한국문화나 학교적응에 미숙하다. 그래서 정서적인 감정표현과 안정감을 주고, 진로교육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그림책을 선정하였다.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처음에는 자신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을 쑥스러워하였다. 첫 번째 도서로 공감 능력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하여 “틀려도 괜찮아”를 선정했다. 책을 읽는데 모두 더듬거리며 읽는데 어휘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연구자가 그림책 내용을 차근차근 읽으면서 설명하고 질문을 하면서 진행하였다. “틀려도 괜찮아”를 이해시키고 틀리면 반복해서 연습하면 된다고 알려주었다. 도서는 항상 연구자가 읽으면서 내용을 알려주고 질문하는 방식으로 1학기에는 자아탐색, 2학기에는 직업탐색으로 주제를 잡았다. 또한, 발표력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상하는 방식으로 스티커를 활용하여 정적강화를 시도하였다. 스티커 활용은 동아리활동을 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였다.

<표 8 진로탄탄 프로그램에서 선정한 그림책과 선정 이유>

순	진로영역	도서명	도서 선정이유
1	자기이해	틀려도 괜찮아	자기효능감, 자존감 키우기
2		나는 내가 좋아	자기이해, 긍정적인 생각
3		돼지책	가족, 배려,
4		치킨마스크	자기이해, 긍정적인 사고, 자존감, 교우관계
5		나를 안아 줘	자기이해, 자존감, 긍정적인 생각
6	자기이해, 진로탐색	행복한 청소년	자기이해, 긍정적인 생각, 사랑, 직업탐색
7	자기이해, 진로탐색	나무를 심은 사람	자기이해, 헌신, 공동체, 사랑,

<표 9 진로탄탄 프로그램에서 그림책 활동 내용>

날 짜	6월 23일
학생 활동지 기록내용	• 프로그램 ‘진로탄탄 및 진로기초교육 프로그램’ 적용 - “치킨 마스크” 그림책을 읽고 되고 싶은 마스크 찾아보기 - 나의 감정에 대하여 찾아보기(감정카드) • 오늘 알게 된 것이나 배운 것: 화나요, 짜증나요 • 오늘 동아리 느낌이나 생각: 모름, 없음
수업자의 성찰과 반성	• 그림책 “치킨 마스크”를 각자 먼저 읽어보라고 했다. 책장만 넘기고 있다. 지명을 해서 읽혔다.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 • 연구자가 읽어주면서 설명을 했다. 다행히 글밥이 많지 않아 시간 안에 마칠 수 있었다. 그러나 치킨 마스크의 감정변화를 찾는 것은 무리였다. • 감정카드를 가지고 감정에 대한 공부를 하였다. 감정단어를 알려주고 설명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다. • 6학년이 없어서인지 아이들의 얼굴들이 편안해 보인다. 교실 인원도 적정하고 발표도 몇 명은 한다. • 활동지에 간단하게 기록하라고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간단한 소감을 적는데도 “없어요”, “몰라요”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이거 꼭 해야 해요?” • 스티커판에 10개가 나온 학생이 있어 선물로 간식이나 학용품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간식을 선택하였다. • 발표를 할 때마다 잘한다고 지지하고 스티커를 주었다. 열심히 하는 친구는 2명 정도이다.
날 짜	9월 29일
학생 활동지 기록내용	• 프로그램 ‘진로탄탄 및 진로기초교육 프로그램’ 적용 - “행복한 청소부” 그림책 읽고 내용 파악하기 - 청소부는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 나누기 • 글밥이 많아 질문하고 내용 설명하면서 진행하여 활동지 작성을 못함. • 오늘 동아리 느낌이나 생각 발표: 청소부가 대단하다. 활동지 못해요. 힘들어요 등.
수업자의 성찰과 반성	• 그림책 행복한 청소부의 글밥이 많아서 책 내용 파악하며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활동지 작성을 하지 못했다. • 표지 이야기부터 나누고, 연구자가 읽어주면서 내용파악을 하였다. • 청소부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 나누기를 하였다. • 학생들의 이미지에는 청소하는 사람 정도로 기억하지만,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은 이해한 듯하다. • 책 내용을 이해시키기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해야 힘들어도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3.2.3. 재구성한 진로탄탄 프로그램 활동 내용 및 분석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 꿈 찾기 활동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성장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동아리활동 모집 시 설문지에서부터 5월 12일 첫 수업장면의 상황을 보면 연구자가 말하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아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했다. 그림책 읽기는 연구자가 읽어주고 설명을 하면서 진행하였다. 교육이라는 것이 금방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활동지를 통하여 그 변화를 느낄 수는 없지만, 행동이나 태도로 변화를 알 수

있다. 5월 12일 “꿈이 뭐예요” 로 시작한 수업이 2학기 직업의 종류를 공부하고 10월 설문조사에서 “군인, 경찰, 의사, 스튜어디스, 디자이너, 화가” 등 자신의 꿈을 당당하게 말하였다.

<표 10 재구성 진로탄탄 프로그램 활동 내용으로 분석>

날 짜	2021.3. - 4.30
활동 내용 및 분석 내용	• 방과 후 동아리 활동 모집 및 동아리 구성 • 동아리 안내(밴드) • 동아리 사전설문지 배부 및 회수 • 한국어교실에 14명이 참가신청서를 제출함. • 프로그램 교재 분석
수업자 성찰과 반성	• 다문화학생 동아리 활동에 대하여 전교생에게 알릴 수 있도록 담임교사에게 협조를 구하였다. • 예비인원 10명보다 많이 신청하여 기대가 되었다. • 설문 문항(8)을 만들어 학생 학부모에게 배부하여 회수하였는데, 동아리 활동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였고, 어떤 변화를 기대하느냐는 문항에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말한다. 더 똑똑하다, 등의 답변이 있었다. • 부모님의 기대가 한국어를 잘하도록 해 달라는 기대가 큰 것으로 보아, 학교생활을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날 짜	5월 12일
학생 활동지 기록내용	• 프로그램 ‘진로탄탄 및 진로기초교육 프로그램’ 적용 - 자기 소개(자아탐색) - 종이비행기 접어 날리기(친밀감 형성) • 오늘 알게 된 것이나 배운 것: 없음 • 오늘 동아리 느낌이나 생각: 모름
수업자 성찰과 반성	• “자기 소개하기” 활동지를 주고 틀에 맞게 칸을 메운 후 소개하기를 하였다. 2명만 발표한다. • “여러분은 꿈이 뭐예요?”라고 질문하니 “꿈이 뭐예요?”가 뭐냐고 되묻는다. 꿈에 대한 설명을 하고 미래에 가고 싶은 직업에 대하여 생각해 본 사람이 있느냐고 하니 아무도 없다.

	• 종이비행기를 만들어 버리고 싶은 것을 적고 날리기를 하였다. 버리고 싶은 것의 의미를 모른다. 목소리를 높여 설명을 했지만 뜬구름 잡는 소리인가 보다. 눈만 멀뚱멀뚱한다. • 활동 후 소감을 적는데 “없어요”와 “몰라요”이다. 머리가 하얗게 되는 느낌이다.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아리활동을 하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해야겠다. • 내적동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 외적동기로 보상을 제공하기로 하고 스티커판을 준비하기로 했다. • 스티커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주어진 과제를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외적보상 장치이다.(자율성, 소속, 인정의 욕구, 관계 형성을 고려함.) • 지금까지 “생각”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말해 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점점 어휘를 설명하는 시간이 많아진다. • 의사소통을 위해서 태블릿pc를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 다음 시간 수업에서 가장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날 짜	10월 13일
학생 활동지 기록내용	• 프로그램 ‘진로탄탄 및 진로기초교육 프로그램’ 적용 - 직업카드로 놀이하기 - 내가 되고 싶은 직업을 커리어넷에서 찾아보기 • 직업 카드로 내가 선택한 직업 정리하기 • 태블릿PC로 커리어넷 검색하여 주니어 직업사전에서 자신이 찾은 직업 자세하게 찾아보기
수업자 성찰과 반성	• 직업카드와 태블릿PC를 나누어 주었다. • 직업카드에서 자신이 관심 가지고 있는 직업을 선택하여 활동지에 적었다. • 태블릿으로 커리어넷에서 자신이 찾은 직업을 검색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찾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 다문화학생들이라 로그인을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직업사전에서 직업만 검색하여 활동지에 기록하도록 함(월급, 진학 등)

	• 직업을 찾아서 읽는데도 의미를 몰라 질문을 하여 대답을 해 주어도 잘 못 알아듣고 하여 시간이 걸리고 모르는 내용이 많아, 직업의 종류를 한 두 가지 적는 것에서 마무리를 하였다. • 커리어넷에 다음 기회에 다시 방문하여 미래의 직업과 동영상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	--

3.2.4. 체험활동 프로그램 활동 내용 및 분석

다문화학생들의 자아탐색과 진로탐색으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함께 진행하였다. 체험활동은 학생들에게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만족도도 높았다.

<표 11 진로탄탄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내용 분석>

날 짜	7월 29일
학생 활동지 기록내용	• 농업경영체와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 실시 - 콩나물 시루 꾸미기 및 키우기 - 소감 발표하기 • 콩나물이 잘 자라도록 싶은 말 (기도문)을 써 주세요: 사랑해, 건강하게 자라라. 예쁘게 자라라, 행복하게 잘 자라! 아프지 말고 자라라. 나랑 함께 살자. • 오늘 동아리 느낌이나 생각: 재미있음. 즐거움.
수업자 성찰과 반성	• 밥을 먹을 때 반찬으로 먹는 콩나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 콩나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 물을 줄 때마다 사랑하는 말을 해 주도록 바라는 글을 만들어 시루에 표현하도록 꾸미기를 했다. • 콩을 불러서 시루에 넣어주고 매일 5번씩 물을 주면서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하고, 콩나물이 자라면 사진을 톡으로 보내 달라고 함. • 생각보다 성공률이 낮음. 처음에는 싹이 트는 과정까지는 보았으나 수확한 경우는 없었다. • 활동을 좋아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스티커판에 10개가 나온 학생이 있어 선물로 모두에게

	컵라면을 제공했다.
날 짜	10월 20일
학생 활동지 기록내용	• 마을교사와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 실시 - 캘리그래피 배우기 - 소감 발표하기 • 마을 교사 소개 후 직업의 종류와 연결하여 이야기 나눔 • 소감 나누기: 좋아요. 재미있어요. 등
수업자 성찰과 반성	• 코로나19로 학교 밖 체험활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예산을 마을교사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 학생들이 본인의 것을 만들어서 그런지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이 대견하다고 느꼈다. • 강사님의 말씀이 생각보다 학생들이 순하고 잘 따라온다고 하였으며, 동아리활동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정착된 느낌이 들었다. • 남은 예산으로 다른 체험활동을 한다고 하니 여기저기서 “좋아요”, “재미있어요”라고 하며 좋아한다.

3.2.5. 활동지를 통한 프로그램 분석

<표 12 진로탐탄 활동지를 통한 프로그램 분석>

날짜	5월 12일	6월 9일	7월 21일
활동명	나 소개하기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감정 찾기
사진			
활 동 상 황	1학기 수업은 주제를 자아탐색으로 정했다. 5월 12일 자기 소개하기 활동지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꿈이 뭐예요?, 담임이 뭐예요? 등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사용하는 어휘 뿐만 아니라 담임선생님 이름을 모름. 6월 9일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이다. 활동방법을 소개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친구에게 받아서 붙이기 놀이다. 실제 접하는 그림들이 많아서 활기찬 수업이 됨.		

	7월 21일 감정카드를 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알아보기로 함. 즐겁다, 화나다. 행복하다. 신나다 등의 몇 가지 단어들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서툴고 어려워함. 2학기부터는 직업탐색에 대하여 알아봄. 9월 8일 직업의 종류에 대하여 직업카드를 활용하였지만,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함. 10월 20일, 27일은 체험활동으로 캘리그라피 배우기와 화장품 만들기를 함. 학생들의 흥미와 만족감이 높았음. “선생님, 이런 거 좋아요”, “다음에는 뭐해요” 등으로 다음 시간 배울 것에 대하여 호기심과 궁금함으로 표현함.
분 석	활동지에 기록하는 자체를 힘들어한다. 어휘력이 부족하여 말하는 것이 힘든데, 글로 표현하라고 하니 더 힘들어해서 처음에는 문항을 활동 내용 및 소감으로 구분하였다가 전체적으로 한 칸만 만들어 적고 싶은 것을 적도록 함. 점점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지만 어휘력을 익히고 기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접하는 단어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한 번의 시간으로 듣고 말하는 것을 익히는 것은 무리였음. 2학기 직업탐색으로 대부분 체험활동을 진행함. 강사모집과 예산사용 등의 절차를 거침. 학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음.

4. 결론 및 제언

4.1. 결론

본 연구는 진로탄탄 및 진로 기초교육 프로그램과 그림책을 활용하여 다문화 학생들에게 꿈 찾기 동아리 활동을 사례분석으로 하였다. 본 프로그램 활동으로 다문화 학생들의 정서적, 인지적, 생태체계적 관계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직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동화책 읽기를 접목할 때에는 이해의 정도가 비슷하거나 학년군별로 구성하는 것과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하는 방법적인 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다문화 학생들에게 꿈 찾기를 위한 동아리 활동을 실시

한 결과 수업자의 성찰이나 학생들의 활동지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왜 동아리 활동을 하는가? 등에 대한 질문에 “몰라요”라는 대답만 하던 학생들이 직업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면 “의사, 선생님, 경찰관, 소방관, 청소부”의 대답을 할 줄 안다는 것이다.

둘째, 동아리활동이 뭐예요? 라는 질문에 “그게 뭐예요?”라고 대답 대신 질문을 하였는데, “만들거나 그리기 하는거요”라고 말을 한다. 그림책이나 활동지를 통하여 기억하는 것보다 실제 만들고 꾸미기 활동에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셋째, 미래 어른이 되면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한 사람 말해 볼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되면”이 무엇인지를 물어 문장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는데, 활동이 끝날 무렵에는 의사, 경찰관, 군인, 스튜어디스 등을 말한다. 아직도 꿈을 정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지만, 꿈을 찾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내년에 동아리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10명 중에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참여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은 한 명은 졸업을 해서이고, 한 명은 무기력하게 앉아 있거나 게임을 하는 등 소극적인 행동을 보인 학생이다.

다섯째, “진로탄탄 및 기초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진로역량을 함양하는데 선택적으로 쉽게 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자아탐색 부분에서는 해보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 등을 찾는 자료가 풍부하였고, 진로탐색 부분에서는 직업의 종류나 자료를 찾는 것 등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았다.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다문화학생들에게 진로탄탄 프로그램과 그림책 활용 동아리활동은 다문화학생들에게 느리지만 천천히 자아정체성 및 꿈을 찾아가는 과정이 나타났기에 성과가 있었다. 또한, 초등학교 다문화학생들의 진로인식단계에서는 놀이교육이나 진로체험 등의 활동이 접목되어야 효과가 배가 됨을 알 수 있었다.

4.2. 제언

다문화교육이 어느 정도 정착하고 있지만, 아직도 다문화학생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이 서툰고 학습적인 부분에서도 학습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어가 서툰 학생들에게는 의사소통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학교적응 뿐만 아니라 학습적인 부분에서도 부적응을 면치 못한다. 부모의 경제활동으로 일찍 직장을 가서, 학교에 늦게 등교하는 학생, 문장을 이해하지 못해서 수업시간 의미 없이 시간만 보내는 학생들이 각 반에 몇 명씩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방편으로 학교에서의 방과 후 활동을 추천한다. 다문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다면, 자신의 정체성과 꿈을 찾아 나아가는 진로교육에 도움을 준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본 동아리 활동은 특정 지역의 활동이므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2021). 2021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 교육부(2015). 2015 학교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및 해설서.
- 그림책 사랑교사모임(2019). 그림책 학급 운영, 출판사;교육과 실천 출판사.
- 김희수(2020). 드림스타! 언택트 진로콘서트-드림메이커 STARBOOKS 프로젝트로 나만의 꿈 캐릭터 찾기-
- 박경숙 외(2019). 수업, 슬로리딩과 함께, 학교도서관 저널

이태숙(2019). 하루 한 권, 그림책 공감 수업, 학교 도서관 저널.
커리어넷(<http://www.caree.go.k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0). 진로탄탄 및 진로기초교육 프로그램
활용 자료 워크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0). 중도입국청소년(초등) 진로기초교육
프로그램 워크북(교사용, 학생용).

필자 소개

성 명 : 공수영

소 속 : 김해 내동초등학교

주 소 : 김해시 평전로 151번길, 내동 [우편번호]50892

전화번호 : 055-332-5602

전자우편 : kong200078@hanmail.net

투고일: 2021. 10. 20 / 심사일: 2021. 11. 19 / 심사완료일: 2021. 11. 26

사회적 가치를 위한 부산은행의 다문화가족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권영은
(동아대학교)

《목 차》

1. 서론
2. 사회적 가치를 위한 다문화가족 금융교육의 이해
 - 2.1. 사회적 가치 개념
 - 2.2. 다문화가족의 금융교육 이해
3. 부산은행의 사회적 가치를 위한 다문화가족 금융교육
 - 3.1. 다문화가족을 위한 금융교육
4. 결론

<Abstract>

Kwon, young-eun, 2021. 10. 20. Multi-cultural Families on the Activation of Financial Education for Social Values : A case Study of Busan Bank.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9, 27-48. This study is focused on financial education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n society, multi-cultural families are increasing by gradation. But they might be locked in the socially disadvantaged class with alow standard of living due to the shortage of financial knowledge and social maladjustment caused by the rapid change of the financial

*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국제학과 글로벌다문화전공 박사과정

market. For economic stability of individuals, social welfare and well-being of the country, it is urgently required to implement financial education for enhancing financial literacy of the weak and the vulnerable.

This study analyzed program management, educational contents by examining financial education programs for the multi-cultural families financial education programs of developed countries for the immigrants, which governments, banks and local community organizations run. Currently, Korean government is providing financial education for the multi-cultural families, so compare Korean financial education with financial education of advanced countries for the immigrant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the orientation of financial education, which Korea must activate, was suggested. (Donga University)

[Key words] Financial education for multi-cultural families, Social value, BNK Busan Bank

1. 서론

글로벌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한국은 다양한 외국인이 각각의 유형으로 장기거주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 거주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또한 기존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등 보편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면의 교육이 요구된다. 이는 정치적, 경제적 측면 등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며, 장기 거주화에 따른 경제적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국민됨을 전제로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¹⁾의 소비 행동 및 실태 조사에서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다문화가족은 한국에서 소비와 관련한 생활 방면에

서 힘들었던 점에 대하여 교육을 받고 싶어 하였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관련 교육을 통해 소비생활의 문제에 대한 예방과 해결 방안, 즉 적합한 소비의 가치 및 문화 습득 방법들이 소비와 관련된 행동으로 연계된다는 점이다(박혜영 외, 2014).

한국에도 사회적 가치가 우선시되는 경제활동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인식이 부족하다. 다문화가정 중의 상당수의 결혼이주여성들은 극빈가정이며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결혼이민자의 수가 상당수에 해당한다(조현상, 2016).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다문화인구는 약 200만 명에 달하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전에 비해 감소한 추세이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추세에 따른 변화에 맞춰 금융산업의 변화가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여건을 구조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자칫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고 자녀교육을 포기한다거나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가난이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며, 다문화가족을 위한 금융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기반으로 부산은행의 금융교육 특성과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을 위한 금융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사회적 인식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산은행이 금융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의 가능성이 높으며, 아울러 부산은행의 사회적 가치가 효과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 1)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에게 ‘결혼이민자’ 법무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정부 부처에 따라 용어를 상이하게 사용하고 있다. 법무부(결혼이민자), 교육부(다문화가정), 행정안전부(외국인주민),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로 혼재되어 사용하고 있다(한건수, 2006; 곽서정, 2019).

2. 사회적 가치를 위한 다문화가족 금융교육의 이해

2.1. 사회적 가치 개념

사회적 가치의 의미는 사회적(Social)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선호도를 어떤 대상에 부여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가치(Value)가 결합된 개념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는 개인적인 편리함과 이익에 대한 관심 및 요구를 넘어서 다른 사람과 공동체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거나 방향성을 두는 것이다. 이는 전체 사회구성원의 지향 가치 또는 공동체 지향 가치라고 접근할 수 있다.

사회적 가치는 개인적 가치를 넘어서 타인과 공동체를 지향하는 단체의 참여 활동으로 개인보다 대중관계에 근거한다(Winter, 1997: 김준기, 2006)는 상호성이 발휘되어 사회구성원은 개인보다는 상호성과 연대성을 발휘시켜, 사회적 가치를 공유 및 확산하는데 기여한다(김미원·김정옥, 2010). 가치에 대한 논의로 정성모(2015)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디자인융합과 예술 프로그램의 중요하거나 목적을 갖는 이라는 뜻으로 정의하였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연구는 그 개념을 대체적으로 다시 정의하지 않고 경제학에 가까운 적용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한 사회 내에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하나의 가치관으로 대부분 사용한다. 경제학 용어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 연구는 효용 혹은 사용가치 및 비사용가치라는 용어를 가져와서 사회적 가치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다. Schmader, S. W.(1997)는 효용(utility)의 개념은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가치를 개인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상호간의 작용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사회적 측정 가치라고 강조하였다.

Schwartz(1997)는 사회적 가치를 가치와 동의어로 정의하였으며, 가치가 가지는 중요한 것은 공동체이며, 그래서 공동체 의존적

인 성격을 지니므로 가치를 사회적 가치라고 주장하였다. 사회자본과 단체참여의 사회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가치가 개인적인 편익이나 성취적인 욕구를 넘어서는 사회구성원 및 공동체의 편익이 귀속되며, 협조적 상호간 관계를 지향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가치관이라고 강조하였다(이미숙·최외출, 2011).

강순화(2015)는 사회적 가치는 어떤 지역 내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신념체계로 개인적인 편익에 관한 관심 및 요구를 넘어서 다른 사람과 공동체의 중요한 생각에 관심을 두거나 이러한 것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표 1 사회적 가치에 관한 개념>

연구자	개념
Walzer (1983)	가치는 어떤 공동체가 중점으로 생각하는 것을 가리키며, 이에 따라 가치는 사회적 가치로써 유사어로 사용해도 된다고 주장
김진현 (2000)	도시의 역사적 문화공원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것을 사회적 가치로 설정
Lynch et al.(2008)	지역사회 내의 가치의 창출이 사회적 가치라고 언급
이미숙·최외출 (2011)	사적인 편익이 성취 욕구를 넘어서 사회구성원들과 공동체 편익의 귀속으로 상호 협력적 관계를 지향에 목적을 두는 가치관

강순화(2015)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 재정리

사회적이라는 용어는 어떤 사회에 관계되고 있는 것과 어떤 사회성을 함유하고 있는 것들의 총칭이다. 가치의 의미는 어떠한 것을 귀중하게 생각하여 그것을 얻기 위한 노력의 대상을 말한다. 가치는 어떤 사물이나 어떤 행위의 바람직한 특성이며, 이러한 특성을 지닌 구체적 사물 및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가치에는 본래적 가치, 도구적 가치, 정신적인 가치, 물질적 가치를 들 수 있다.

본래적 가치라는 것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목적으로 추구되는 가치이며, 도구적 가치는 어떤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사용되는 가치이다. 물질적 가치는 자동차, 주택, 음식, 현금 등 삶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어떤 물질에 대한 유용 가치로 경제적 가치에 속한다. 정신적인 가치는 지적 가치, 도덕적 가치, 미적 가치, 종교적 가치이다.

가치는 상호 교차하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그러한 유형은 가치 기준의 규정에 따라 양립적인 유형으로 비교적 차이를 통해 더욱 자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가치 실행의 행동 규범과 관련된 평가에 의한 구분은 윤리적 가치로 구분된다. 추구하는 평가의 관점에 따라 미적 가치 및 종교적 가치로 구분된다. 추구 및 가치를 두는 대상으로 부유함, 미적임, 지식, 쾌락에 따라 구별되기도 한다. 전통적인 가치 구분하는 유형으로는 그 자체가 목적으로 주된 내재적의 가치와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써 외재적 가치로 구분된다.

사회적 가치는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어떤 사회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대상인 도구적 가치가 된다. 좋아하는 것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물질적 가치가 되며, 옳은 행동의 기준이 되는 본래적 가치가 된다. 뜻이 있고 활력있는 삶의 기준이면서 문제 상황에서 판단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정신적인 가치가 된다.

이와 같이 자명하고 이중적인 유형의 구분을 부정한다거나 연속 및 상관성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가치 구분 유형이 존재한다. 그리고 윤리적 측면 및 도덕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효용과 양적 가치의 계측 및 계량에 의한 비교 주장 유형이 있다. 또한 특정 기준과 척도에 의한 가치의 양적 비교를 부정하여 질적 차이만을 인정하는 가치의 유형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표 2 사회적 가치에 관한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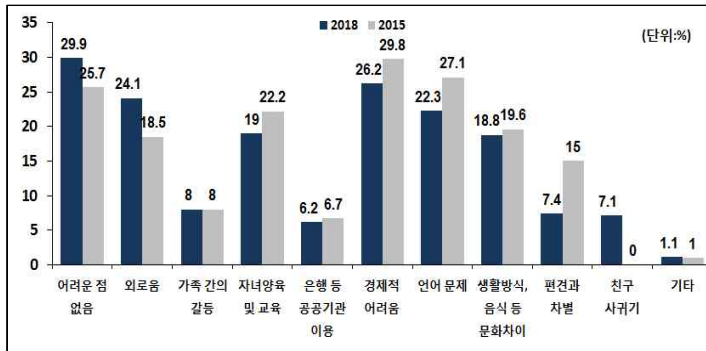
가치기준		내용	디자인 유형
사회적 가치	사회 중시	사회구성원의 편의와 사회발전에 공헌	보이스피싱 금융교육, 서비스 금융교육, 적정 금융교육
	인간 중시	소외되었으나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이들을 위함	유니버설 금융교육, 인클루시브 금융교육, BOP(Bottom of Pyramid)를 위한 금융교육

2.2. 다문화가족의 금융교육 이해

다문화가족의 신용카드 유무에 대한 실태와 관련한 조사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다문화가족 56.1%가 카드가 없다고 답하였으며,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신용카드 자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녹색소비자연대, 2010). 다문화가족은 개인의 고향과 문화 및 제도 등으로 야기되는 현금 사용, 다른 나라의 화폐 단위에 대한 무지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도 존재한다. 또한 한국의 은행업무와 관련된 일을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개인이 목적에 적합한 은행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려움, 목적에 알맞은 은행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저축, 송금 등 은행 상품을 어떻게 잘 선택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에 관한 정보 등을 예를 들 수 있다.

아래의 <그림 1>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 조사결과로 한국에서 생활할 때 어려운 부분이 은행,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이용에 대한 어려움이 6.2%를 차지하였다(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출처: 여성가족부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그림 1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한국생활 어려움>

다문화가족의 매월 평균 임금이 약 200~30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20.0%, 300만 원 이상은 비교적 낮은 수치로 8.9%, 그리고 임금 100만 원 이하는 15.8%, 임금과 보수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6.6%를 차지하였다. 2018년 조사결과를 2015년 조사결과에서 비교하면 150만원 미만 소득층은 감소하였으며, 150만 원 이상 소득층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350만 원 이상 소득층의 증가폭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였다(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18). 이에 따른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나타나듯이 다문화가족의 경제 수준은 비교적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2020)의 조사에서 청소년과 일반인 대상 경제교육 프로그램과 내용은 대부분 오프라인 프로그램에 해당되며, 온라인 학습 또한 어린이 및 청소년, 일반인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다문화가족을 위한 특성화된 금융교육은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미운영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금융교육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3. 부산은행의 사회적 가치를 위한 다문화가족 금융교육

3.1. 다문화가족을 위한 금융교육

최근 전 세계는 새로운 현상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신조어도 발생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COVID-19 팬데믹 상황 하에서 비대면 관련 다양한 신조어들이 탄생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언택트이며, ‘Un’과 ‘Contact’의 합성어로 초기 COVID-19 팬데믹 상황 하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이는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육, 금융 등에서 붐을 이루기 시작하였다. 최윤정 외(2020)는 이러한 현상을 넥스트 노멀 시대가 가져올 패러다임의 변화가 올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변화에 대비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임현(2020)은 디지털로의 전환 불가피하며, 이는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과거에는 찾아 볼 수 없는 새로운 영역까지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사회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많은 지원 프로그램²⁾이 운

2)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기존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농촌, 도서 등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한국어 및 한국사회를 신속하게 적응시키고자 조금씩 온라인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영향으로 가속화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이민자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신속히 익힘과 동시에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지역사회에 잘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두 번째, 재한외국인 대상 각종 지원정책을 KIIP로 표준화하며, 이를 모두 이수한 이민자에게는 국적취득 필기시험을 면제 등 인센티브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적극적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세 번째, 이민자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적합한 지원정책 개발 및 세부지원 항목을 발굴하여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응지수를 측정, 이민자 지원정책 등에 반영한다(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영되고 있다.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지원 프로그램들이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개편하는 데에 있어서 가속화를 앞당겼다. 특히 금융서비스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금융서비스는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측면에서 실태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실태조사로는 3년마다 조사되고 있는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수준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는 금융교육은 미비하며, 그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교육은 한국의 청소년 및 일반인 교육에 치우치고 있다(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18).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역적인 측면에서 부산지역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금융교육에 대한 기존의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비대면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접근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다문화가족의 금융 생활과 금융교육 실태를 보면 소득이 적고 빈곤율이 높아 경제적으로 낮은 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일부 금융기관에서 금융교육이 시행되기는 하나 대부분 일회성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천편일률적인 교육내용을 가진 단기 행사에 머무르고 있다(한국은행 경제연구원, 2020). 현재 한국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이 한정적이며, 금융감독원 등에서 개설되고 있는 인터넷 강좌 금융교육은 일반 내국인 성인강좌에 포함되어 있다. 다문화가족은 인터넷 사용이 한국어 구사 부족 등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접하기 힘든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교육에 대한 비대면 강좌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금융 중심지로 지정된 부산광역시는 2009년부터 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회원사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국제금융박람회를 공동주관 하는 등 국내 및 국제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금융투자 특강을 세부방안으로 실시하고 있다. BNK 부산은행은 부산뿐만 아니라 경남과 울산지역의 금융박

물관으로서는 최초로 금융박물관을 건립하였다. 아울러 청소년을 중심으로 금융과 경제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금융역사관을 건립하였다. 금융역사관은 역사관, 홍보관, 금융·경제 체험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산은행의 과거 모습을 볼 수 있는 물품을 전시하고 첨단매체의 활용으로 과거와 현대를 모두 관람할 수 있도록 연출하였다. 금융역사관에서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요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BNK 금융그룹).

<표 3 부산은행 행복한 금융교육>

분류	내용
방문 교육	교육을 받는 대상자의 올바른 직업관 정립과 경제에 대한 금융상식 함양을 목적으로 교육현장으로 찾아가는 금융교육임
	대상은 초·중·고등학생, 사회초년생, 취약계층 등
초청 교육	금융역사관, 기장연수원으로 초청하여 역사관 관람과 진로체험 금융교육임
	대상 : 초/중/고등학생, 일반인 등
경제금융 캠프	금융에 대한 소외계층, 다문화가족, 지역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체험형 금융교육임
	대상 : 초, 중학생
금융역사관 전시관람	영상 및 패널, 모형 등 다양한 매체로 금융교육 실시
	대상은 초·중·고등학생, 일반인 등

출처: 부산은행 홈페이지

부산은행 금융역사관은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문화공간 및 교육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다(행복한 BNK). 그러나 위의 <표 3>은 BNK 부산은행 행복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은 체험형 및 단기성에 주로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금융교육의 특성에 있어서 체험형 및 단기성으로 운영된다고 해서 금융교육이 미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단기 프로그램이든 장기 프로그램이든 금융교육 대

상자들 따라 금융목표에 적절한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다문화가족과의 관련성은 다문화가정이 경제금융 캠프 내용에서 제시되고 있지만 초등학생과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다.

반면 부산은행은 이와 같은 금융교육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의 특성에 적합한 다문화가족을 위한 금융교육은 프로그램은 여전히 부족하다. 예를 들면 2016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부산은행의 금융교육 포토 갤러리에서 금융교육 사진목록 119개 중 취약계층으로는 장애인 금융교육이 7건에 해당되었다. 즉 다문화가족 금융교육 사진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부산지역도 다문화가족 자녀의 공교육 진입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국가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은 두 가지 정체성, 즉 이중언어구사 정체성, 두 문화 이상 경험 정체성으로 통번역, 다문화강사 등 전문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의 증가는 다문화가족이 금융교육 대상자이면서 한편으로는 금융교육을 다른 대상자에게 직접 할 수 있는 인적자원으로서 성장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산지역 다문화가족의 출신국가, 연령 등 및 부산지역 금융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대면 및 비대면 금융교육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 4차 산업혁명이 낳고 COVID-19로 촉발된 비대면 현상은 다양한 산업분야에 빠르게 확산 되고 있는데 금융, 교육, 문화 및 사무 등 거의 모든 일상 영역에서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임현, 2020). 교육 부분에서는 원격교육과 특수교육이 활용분야이며,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zSpace를 들 수 있다.³⁾ 금융 영역 비대면 서비스 활용은 주로 인터넷 बैं킹, 모바일 बैं킹, 핀테크⁴⁾에서 활용

3) zSpace는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본사를 둔 기술 회사로 가상 현실과 증강 현실의 요소를 컴퓨터에 결합한다. zSpace를 사용하면 사람들이 가상 환경에서 실제처럼 시뮬레이션 된 개체와 상호 작용할 수 있다.

4)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이다.

되고 있으며, 대표적 사례로는 카카오뱅크를 들 수 있다(배영임 외,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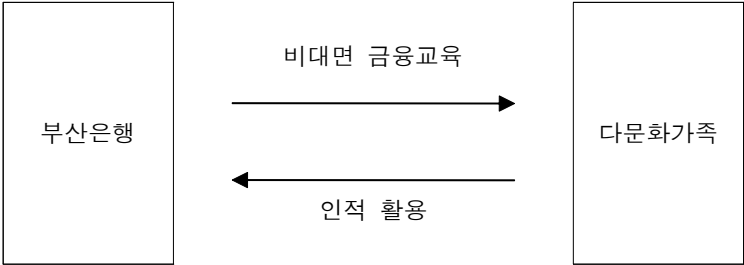
한국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은 주로 각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회성으로 이루어지거나 금융기관 또는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BNK 부산은행의 금융교육은 금융박물관 건립이 지방 최초로써 방문 금융교육 및 체험 금융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가치를 위한 다문화가족형 눈높이 금융교육은 여전히 미흡하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 위드코로나 현재까지 비대면 금융교육은 이와 같이 미진하다. 사회적 가치 실현에서 소수자이면서 취약계층이 많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표준 매뉴얼의 개발이 필요하다.

2014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로는 다른 구성원보다 다문화가족이 금융이해력에서는 낮게 나타난다고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2015년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금융교육이 논의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2018년 전국민금융이해력조사). 다문화가족이 금융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의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금융교육의 필요성은 다문화가족의 특징을 중점으로 금융포용 측면의 접근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지역 금융권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금융교육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가 요구된다. 금융교육 비대면 서비스를 수많은 연결된 스마트 기기들을 통해 어떠한 시간, 장소, 대상과도 연결되고, 또한 어떠한 경로 또는 네트워크 및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것을 말한다. 나아가 만물인터넷(Theinternet of everything)이라는 용어도 최근 사람, 프로세스, 데이터, 사물, 기술 등을 연결하는 접근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의 인지 기술에

핀테크는 기존의 디지털 기술 혁신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획기적인 효율화 및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출시를 의미한다.

의한 비인간 행위자 역시 시공간 및 지식 제약을 극복함으로써 행위자들의 프랙티스에 대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Mele et al. 2018). 비대면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새로운 스마트기술, 즉 인지 기술은 시스템 전체의 가치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고 서비스 시스템의 사회적 배열과 제도적 구조의 진화를 촉진한다. 비대면 서비스에서 사람-기계 또는 기계-기계 상호작용(man to machine or machine to machine interaction)에 의해 가능한 연결의 고도화는 새로운 기회를 창조할 수 있다(조호현, 2020). 이는 화합(assemlage)로서의 비대면 서비스로 연계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은행의 비대면 서비스를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화합(assemlage)으로 새롭게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미시적-기술 결정론적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림 2 부산은행과 다문화가족의 관계망>

다문화가족의 금융생활 및 금융교육 실태에서 살펴본 바, 소득이 비교적 적고 빈곤율이 다소 높아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 부산지역에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금융교육 프로그램은 부족하였다.

다문화 금융교육에서 미국은 1990년대부터 금융교육을 시작했다. 미국은 금융 소외계층 문제가 대두되자 오바마 정부 시기 2010

년에 금융이해력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Financial Literacy)를 출범시켰다.⁵⁾ 2003년 법률에 의해 미국은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금융교육을 추진하기 전에 민간부문에서 금융교육을 추진해왔다. 1990년대부터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금융교육 민간부문 참여에서부터 성인에 대한 금융교육까지 지역 대학의 평생교육원을 통해 제공되었다.⁶⁾

<표 4 미국의 금융교육 성공요소>

내용	- 교육대상의 언어, 문화, 연령, 경험 등을 고려한 맞춤 교육
사회적 가치 효과	-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교육생의 태도, 지식, 행동 등에 미치는 교육의 효과를 입증

출처: 방혜영(2010)의 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자 재구성

금융교육은 주로 소비자의 재무관리에 대한 역량을 정의한 김정현(2013)의 연구와 특정 교육 집단과 특정 금융 활동을 목표로 설계 제공되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주장하였다(Kozup and Hogarth, 2008; (Hathaway and Khatiwada, 2008). Bernanke(2011)는 자신의 금융 필요성과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잘 활용하여 금융 목적을 충족하는 금융교육을 강조하였다.

지식기반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제

5) 2013년 명칭을 금융역량자문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미국은 금융교육 확대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6) 청소년금융교육법(Youth Financial Education Act) 2001년 제정, 경제교육법(Excellence in Economic Education) 2004년에 제정하였다. 공교육을 중심으로 경제와 금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국제학업성취도평가프로그램(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에 대한 금융이해력의 평가를 2012년부터 18개국(13개 OECD 회원국과 5개의 비회원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3년 시기로 실시되고 있다.

도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하며, 평생학습체제를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주자문 외, 2014). 또한 경제교육을 경제학적 소양교육, 개인 금융교육, 기업가교육, 창업교육으로 분류하였다(손정식 외, 2009; 오영수, 2010; 최영준, 2012; 손정국 외, 2014). 일반인에 대한 금융교육뿐만 아니라 김혜미(2020)의 연구에서는 잠재적 금융소비자인 청소년을 위한 금융교육 과정을 위해 미국, 영국, 호주의 학교 금융교육의 비교 분석하여 대한민국 학교 금융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문화가족의 금융교육은 거주 기간 및 개인적 수준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취약계층의 금융지원관련은 일시적인 지원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사실상 어려우며, 취약계층에 대한 동정적인 자금지원도 오히려 이들의 자립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정원오 외, 2013). 또한 상환능력이 전혀 없는 취약계층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것은 시혜가 아닌 약탈이라고 규정하였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제윤경, 2014). 신인석·남재현(2012)도 취약계층에게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자금이 지원될 경우 채무부담만 가중되어 오히려 자활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특성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잘 살펴야 할 것이며, 효율적이고 적절한 지원은 높은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효율성의 맥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금융시스템의 구축을 건전하게 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경제교육과 소비의 필요성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다문화가족은 71.9%에 달하였다. 이 조사 결과는 다문화가족이 금융 관련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이 경제교육과 소비 중 우선적으로 받고 싶은 교육은 절약에 대한 방법, 재테크, 금전 관리, 금융 관련 교육, 한국어교육의 순으로 조사되었다(박혜영 외, 2014). 볼다드바타 미치디마(2020)는 취약계층의 금융교육 문제점에 대한 방안의 하나로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의 접근성 강화 및 금융상품의 이해도 제고를 강조하였다. 취약계층을 노인, 다

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을 구분하는 금융교육 프로그램과 비교적 측면에서 외국의 취약계층 대상 사례로 정부, 은행, 지역사회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박경희, 2015).

한진수(2018)의 연구에서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주민의 금융이해력 수준은 일반 성인 평균보다 낮았는데, 특히 금융지식 영역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통해서 탈북민이 가장 낮게 나타나 탈북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재봉(2016)의 연구에서 다문화가족의 금융수요 및 마이크로 금융을 통한 금융포용에 관한 연구를 다루었다.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이 금융수요 계층에 해당됨을 확인하고 어떤 교육적 접근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융난민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구성원이다. 만약 다문화가족이 금융에 대한 무지로 인해 가난을 대물림하게 되는 상황을 간과한다면 향후 사회적 비용의 부담이 될 수 있다.

금융교육 인적자원 부족에 대한 연구는 주요 지자체에서 통역사들이 근무하며 다문화가족·외국인들의 일상생활 등에 통역도움을 주고 있으나, 금융거래 시 통역사들의 금융지식이 부족하여 적절한 통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인통역사에 대한 금융교육을 정례화하고 보다 경제지식이 풍부한 전문통역사를 양성 및 활용하여 다문화가족·외국인들에게 올바른 금융지식을 전파하도록 하면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하였다(볼다드바타 미치디마, 2020).

박경희(2015)는 다문화가족 10명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강의 평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로 문제점이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해 부족이 10명 중 4명이나 응답하였으며, 이는 한국어든 모국어이든 언어소통이 요구된다는 것을 반증한다. OECD(2005)는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금융교육을 접하고 나면 저축 수준의 향상, 주택구입 및

자산 구축으로 연계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금융교육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으로 사회적 가치를 위한 다문화가족 금융교육 개발 활성화의 중요성에 의의를 둔다.

4. 결론

앞에서 주지하였듯이 사회적 가치를 위한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대상 다문화 금융교육 이해강사 양성과정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양성과정은 향후 일자리 창출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부산의 글로벌 도시 브랜딩 강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법무부 외국인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의 한국사회이해의 시간을 기존의 기본(영주권) 및 심화(국적취득) 70시간에서 시간을 더 추가해서 금융교육 관련 내용이 들어가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금융교육 관련 내용 시간이 추가된다면 한국사회이해 과정을 강의할 수 있는 조건인 법무부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 교과과정에도 금융교육 관련 교과목도 추가되어야 한다. 2021년 현재 법무부 다문화사회전문가 전공교과과정은 이민정책 및 법제, 국제이주, 사회통합과 관련된 내용으로 대부분이며, 금융과 같은 경제적 측면의 교과과정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의 금융교육에 대한 니즈(Neds)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은행이 금융교육의 플랫폼 역할을 한다면 부산지역의 관련 기관과의 금융교육 협업을 통한 AII-IN-ONE 시스템도 가능하게 될 수 있다. 한국은 일부 업무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시적이며, 단편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다문화가족을 위한 금융교육은 관련 기관

에서 일회성으로 진행되거나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이 운영되다보니 사회적 가치 실현은 전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산은행의 지방에서는 최초로 금융박물관 건립 및 찾아가는 금융교육, 체험 금융교육 등 사회적 가치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게다가 COVID-19 팬데믹 상황 하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은 더욱 미흡할 수밖에 없다. 향후 다문화가족을 위한 대면 금융교육뿐만 아니라 비대면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을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표준 매뉴얼이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개발되는 것에 기대를 둔다.

참고문헌

- 강순화(2015). 메가이벤트 개최지의 사회자본과사회적 가치, 공동체의식 및 협력의사 간의 영향관계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2017). 지역경제교육센터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김미리·김시월(2011). 대학생 소비자의 금융이해력 측정 결과 및 금융소비자교육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4-2호, 1-28쪽.
- 김민정(2020), 다문화가족 대상 금융소비자교육,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98-116쪽.
- 김혜미(2020). 잠재적 금융소비자인 청소년을 위한 금융교육과정에 관한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류창수(2019). 신촌 박스퀘어의 사회적 가치와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58호,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63-275쪽
- 박경희 (2015).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혜영·김시월 (2014). 다문화가정 여성결혼이민자의 금융경제 관련 소비자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ing Review> 7-2호.
- 방혜영 (2010). 금융교육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기구 및 미·영의 금융교육전략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볼드바타 미치디마 (2020). 취약계층 금융교육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국립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영임 외(2020). 코로나 19 언택트 사회를 가속화하다,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 손정국·성희활 (2014). 교육에서 자문으로'의 사전적 금융소비자 보호방식의 패러다임 변화 모색. <증권법연구> 15-1호. 357-400쪽.
- 손정식 외 (2009). 국내외 경제교육 현황 및 시사점. <기획재정부 연구용역보고서> . 한국경제교육학회.
- 이미숙·최외출(2011). 단체참여와 사회자본이 사회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대한지방자치학회> 13-2호, 25-46쪽.
- 이재봉(2016). 다문화가정의 금융수요와 Micro Finance를 통한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현(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유망기술, KISTEP 온라인포럼.
- 정성모(2015).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예술과 디자인융합 프로그램의 시사점 연구, <디자인지식저널> 34호, 한국디자인지식학회, 75-84쪽.

- 조호현(2020). 서비스 생태시스템 관점에서의 비대면서비스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항공경영학회지 19-1호.
- 최영준(2012). 베이비부머를 위한 경제교육 방향 탐색, <경제교육 연구> 19-1호. 123-145쪽.
- 최윤정 외(2020). 넥스트 노멀(Next Normal) 시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다: 유망기술사업기획 10선, KISTI 기술사업화 분석 리포트, 1-416쪽.
- 한진수(2018), 2015 개정 금융교육 교육과정의 분석과 개선안 모색, <금융감독 연구> 5-1호, 금융감독원, 39-66쪽.
- Bernanke, B. S. (2011). Statement of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at a hearing conducted by the Subcommittee on Oversight of Government Management, *the Federal Workforce,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of the 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
- Hathaway, I. and S. Khatiwada (2008). Do Financial Education Programs Work?, *Federal Reserve Bank of Cleveland Working Paper* 08-20.
- Mele, C., Nenonen, S. Pels, J. Stobacka, K., Nariswari, A., and Kaartemo., V.(2018). “Shaping Service Ecosystems: Exploring the Dark Side of Agency, *Journal of Service Management*, 29-4.
- Kozup, J. and J. M. Hogarth (2008). Financial Literacy, Public Policy, and Consumer’s Self-Protection More Questions, Fewer Answers, *Journal of Consumer Affairs*, 42(2), 127-136.
- OECD(2005a), Improving Financial Literacy: Analysis of Issues and Policies. *Paris: OECD Publishing*.
- Schmader, S. W.(1997). Introduction, Managing Volunteers, Ed.

Schmader, S. W., etal. Port Angeles, *Washington: International Festivals and Events Association*

<기타>

금융감독원(2018), 2018년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사회통합프로그램 https://www.socinet.go.kr/soci/main/main.jsp?MENU_TYPE=S_TOP_SY

BNK금융그룹 행복한 BNK [http:// www. happybnk. co. kr /User](http://www.happybnk.co.kr/User)

한국은행 경제연구원(2020.01.07.)검색 <https://www.bok.or.kr/portal/submain/submain/fnncSystem.do?viewType=SUBMAIN&menuNo=200001>.

필자 소개

성 명 : 권영은

소 속 : 동아대학교

주 소 : 부산광역시 진구 새싹로 경동타워오피스텔 603

전화번호 : 01094269168

전자우편 : dkxpsp43@naver.com

투고일: 2021. 10. 20 / 심사일: 2021. 11. 19 / 심사완료일: 2021. 11. 26

당사자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 고찰* **

-재한 화교의 구술/수필 텍스트를 중심으로-

박형준

(부산외국어대학교)

《목 차》

1. 문제 제기: 다문화 연구의 임계와 새로운 시차
2. 재현의 윤리와 ‘당사자’ 라는 프리즘: 당사자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의 필요성
3. 당사자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의 방향: 재한 화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 3.1. 두 가지 연구 방법과 사례
 - 3.2. 손덕준 구술 텍스트의 경우: 당사자의 대상화 비판과 자기 대표성
 - 3.3. 우매령 수필 텍스트의 경우: 당사자 권리언어의 회복과 자기 결정권
4. 결론을 대신하여: 당사자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의 의의와 과제

* 이 논문은 2021학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이 논문은 2020년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1차 전국학술대회에서 「당사자주의와 문화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구두 발표한 내용을 전면 수정·보완한 글이다.

<Abstract>

Park, hyung-jun. 2021. 10. 20. **A study on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multicultural research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arties concerned.**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09, 49-73. Efforts to understand the problems faced by multicultural parties have been carried out in various ways. However, the lives of multicultural parties have always been objects of sympathy or favor. Based on this recognition of the problem, this paper examines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implementation of the 'The point of view of the parties', which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in multicultural studies. The study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necessity and core values of multicultural research based on the perspectives of the parties involved. First, multicultural research based on the perspective of the parties is a paradigm of 'participation' and 'solidarity' to faithfully reflect the position and rights of minorities. Second, the core of the parties' perspective is self-representation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which can provide a new direction for multicultural discourse and policies centered on intellectuals, activists, and bureaucrats. Third, multicultural research based on the perspectives of the parties does not exclude researchers, activists, and policy makers, but rather seeks solidarity and exchange. Next, the direction and cases of multicultural research based on the perspectives of the parties could be found in qualitative research and literature research. First, when using the existing field research method in multicultural party research, care must be taken not to target the subject. Second, as seen in the life and history of overseas Chinese in Korea, Korean society is a situation and environment in which it is difficult for multicultural parties to voice their voices. Third, minorities living in Korean society are deprived of self-representation and decision-making rights. Fourth, there are voices of resistance to

restore the minority's self-representation and decision-making power.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 words] The point of view of the parties, Multicultural Studies, Chinese Diaspora, Self-representation, Self-determination

1. 문제 제기: 다문화 연구의 임계와 새로운 시차

한국은 1990년대 이후 가파르게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 기술과 교통의 발달로 지역, 인종, 언어, 정치, 경제, 문화의 차이를 넘어선 교류와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시민과 정책입안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국제이주와 다문화주의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였다(권오경, 2010: 43).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도 다채롭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박윤경·박선운, 2021: 53~54), 그 성격과 학문 영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국가적인 다문화 현상의 원인, 과정, 배경, 변천 양상, 인식, 태도 등을 규명하기 위한 이론적 연구이다. 주로 철학, 사회학, 역사학, 고고학 분야에서 이러한 내용을 고찰해 왔다(데이비트 바트럼 외, 2017: 4~7). 둘째, 한국의 다문화 현상을 분석하고 보다 수평적인 소통 방법과 사회 통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 연구이다. 대체로 법학, 행정학, 교육학, 상담심리학, 사회복지학 등의 분야에서 수행되어 왔다(최기탁, 2016: 665; 류지현·김현주, 2021). 이러한 연구 성과는 단순히 학술적 결과의 집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건강한 국가 공동체 구성과 지속을 위한 이론/실천적 과제라는 것을 방증한다.

다문화 분야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강진구·

이기성, 2018), 훌륭한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학계와 현장에서 소수적인 목소리를 재현하고 지원하기 위해 충실하게 노력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부분 역시 없지 않다. 다문화 연구와 정책 개발 과정에서 ‘다문화 당사자’¹⁾의 삶과 경험이 여전히 주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화교,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중도입국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등의 삶은 언제나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되어왔다(이용재, 2019: 21). 자기 삶의 주체가 아니라, 항상 지식인이나 예술가, 혹은 활동가에 의해 ‘재현되어야만 하는 객체’로 타자화되고 대상화되어 온 것이다. 관련 연구 통계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다문화 ‘당사자의 관점’²⁾은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사자주의 혹은 당사자 연구는 주로 법학, 장애학, 사회복지학 등의 분야에서 논의되어 왔다. 일부 영역에서 다문화를 주제로 한 당사자 연구가 시도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이선혜·김은재, 2012: 321; 김은재·최현미, 2016), 이러한 시각에 기초한 논의는 아직 본격화되지 못했다.³⁾ 다문화 현상을 기록하고 재현하는 연구

-
- 1) 다문화 환경에 놓인 당사자는 지역, 인종, 민족, 세대, 젠더 등에 따라 폭넓게 정의할 수 있다. 다만, 이 논고에서는 국제이주의 경험이나 재생산 역사가 존재하는 ‘다문화 당사자’로 그 범위를 제한하기로 한다.
 - 2) 무카이야치 노리아키(2016: 130)에 따르면, 당사자의 시각에 입각한 사회문화 연구는 ‘당사자주의’, ‘당사자 연구’, ‘자조(모임) 연구’ 등의 용어로 명명되어 왔다. 여기서는 특정한 이념과 방법에 국한된 논의를 피하기 위해 ‘당사자의 관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아직 다문화 분야에서 당사자 연구는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3) 법령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위탁 운영하는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자조 모임’을 문화사업의 하나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조 모임의 취지는 “단순히 여가를 위한 모임이 아닌 구성원 간의 문제해결”을 지향하고 있으나, 이 역시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적응”과 “조기 정착 지원”에 머물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 28).

가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과는 상반되는 일이다. 이제, 한국 사회도 다문화 담론과 정책 공간에서 당사자의 입장과 요구가 정당하게 발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 당사자의 권리언어를 직조하는 새로운 시차(視差)와 접근 방식이 요청된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지금까지 다문화 이론과 교육 현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당사자 관점’의 핵심 가치와 연구 필요성을 고찰하고, 다문화 당사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주체적으로 발화하고 기록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방향과 가능성을 재한 화교의 구술/수필 텍스트 분석을 통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⁴⁾

2. 재현의 윤리와 ‘당사자’라는 프리즘: 당사자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의 필요성

전 지구적인 팬데믹으로 인해 국제이주의 흐름이 다소 완만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 내 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⁵⁾ 사회적 변화에 부합하는 문화 다양성 가치와 정책을 만들기 위한 연구와 실천이 학계, 정부, 유관기관, 시민 커뮤니티 등에

4) 이 논고에서 ‘재한 화교’를 분석 사례로 삼은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화교는 1884년 개항 이후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 거주한 다문화 당사자이며, 둘째, 한국전쟁을 거치며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겪어 왔으며, 셋째, 현재에도 구화교와 신화교의 복잡한 삶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다문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은정태 외 3인, 2007: 4).

5) 2021년 교육 기본통계 조사를 참조하면, 팬데믹 이후에도 다문화 가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다문화 배경 학생 수는 160,056명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와 연합뉴스 기사(「다문화 인구 109만명 시대… 최대 규모 실태 조사」, 2021.8.21)를 참조할 것.

서 이뤄지고 있고, 다문화주의에 대한 패러다임 역시 동화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세계시민주의, 상호문화주의 등으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소수 문화와 다수 문화의 차이를 표백하지 않고, 상호 존중과 수용에 이르고자 하는 ‘상호문화주의’ 혹은 ‘상호문화이해’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견인하는 이념과 방법을 제공해주기도 했다(김영순 외, 2014: 40~41). 그러나 한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당사자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며 상호문화 이해에 도달하고자 하는 시도는 계층적, 정책적 차원에서 두 가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첫째, 한국 사회에 정착한 다문화 당사자를 대부분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기층구조에 위치시킨다는 점이다. 다문화 당사자에 대한 배려와 정책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정부 주도적 담론 생산과 정책 고안 방식이 다문화 당사자의 존재와 목소리를 언제나 사회적 커뮤니티의 바깥에 배치한다는 사실이다(이용재, 2019: 21~24).⁶⁾ 둘째, 다문화 당사자를 사회적 갈등 해결과 이해관계 조정 국면에서 언제나 수동적, 보조적, 부분적인 존재로 격하시킨다는 점이다. 연구자, 활동가, 정책입안자의 선의와 무관하게, 당사자는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계층적 구별짓기를 통해 타자화된다.

이것이 당사자의 관점을 고려한 다문화 연구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연구자와 활동가의 사적 도덕률과 가치 중립적 태도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다문화 당사자의 삶과 문화를 연구자(혹은 활동가)의 입장에서 충실하게 재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 즉 매우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에 가 닿는다. 사회과학 분

6) 이용재(2019: 21)는 다문화 당사자를 “사회기층에 위치” 시키고, 또 “시혜적 정책”의 대상으로 구성하는 것은 결국 다문화 당사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정부 주도”적 다문화 담론과 정책의 효과라고 보았다.

야에서 소수자를 계층적으로 주변화하고 수동적 대상으로 종속화하는 지배담론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재현의 윤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창작자나 비평가의 예술적 재현만이 아니라, 지식인의 학술(조사, 보고, 논문)적 재현 역시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탈식민주의 문화 이론가 사이드와 스피박은 이러한 관점에 주목한 바 있다.

전자는 『오리엔탈리즘』에서 “지식에 의해 대상화되는 것은 본래 조사에 약하다”(에드워드 사이드, 박홍규 옮김, 2004: 70)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식인과 연구자에 의해 대상화되는 피조사자는 권력의 위계구조 상 종속적 위치에 놓이게 되며, 그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발화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⁷⁾ 후자의 경우, ‘서발턴’⁸⁾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면서 소수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서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재현의 윤리에 관한 스피박의 논고는 지식인이 “투명”하게 연구 대상을 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사유하게 한다(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태혜숙 옮김, 2013: 74). 이는 다문화 연구에도 큰 시사점을 주는데, 그 이유는 서발턴 개념이 정체성 정치, 토착주의, 막무가내 다문화주의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⁹⁾

7) 주지하다시피, 에드워드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에서 서양을 ‘우월/합리/정상’으로, 동양을 ‘열등/비합리/비정상’로 (재)구성하는 지식과 권력의 역학 관계를 추적하고 있다. 이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상징조작의 과정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한다.

8) 하위주체로 번역되곤 하는 서발턴(subaltern)은 “기존의 정치적 지배 단어들 대신, 영향력 있는 정치 담론들로 미리 정의되지 않은 종속적 처지들을 아우르는” 용어이다. 피식민지 여성, 노동자 등이 겪는 이중의 억압과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재현하기 어려운 곤경을 표현하는 용어로 잘 알려져 있다(스티븐 모튼, 이윤경 옮김, 2005: 91).

9) 스피박은 ‘주체 재현(representation)’의 문제에 천착해 왔다.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는 1983년에 일리노이 대학의 어배너-섐페인 캠퍼스에서 「권력과 욕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후 여러 차례 수정을

지식인 혹은 연구자에 의해 자기의 삶이 설계되고 서술될 수밖에 없는 다문화 당사자에 대한 재현 문제는 결국 다문화 현장 연구에서도 중핵 의제가 된다. 그러나 개개인이 처해 있는 문화적 갈등 상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더 나아가 다문화 당사자를 문제 해결의 주체로 정초하기 위한 시도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 다문화 연구에서 ‘당사자의 관점’이라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이유이다.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을 기록하고 재현하는 연구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당사자의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는 출발 단계에 머물러 있다.

당사자의 관점에 입각한 사회문화 연구는 당사자주의, 당사자 연구, 자조 연구 등으로 명명되고 있으며, 통상 법률적 용어(當事者主義, consumerism)로 사용되어 왔다. 인문학, 사회학, 문화학 영역에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 장애학 분야에서 인권 운동의 실천적 이념이자 현장 이해의 새로운 방법으로 채택되었다. 법학 분야를 제외하고 나면, 기존의 당사자주의 혹은 당사자 연구는 대체로 사회복지, 장애, 특수교육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

그러므로 당사자의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흐름과 특징을 먼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유동철에 따르면(2003: 277~278),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역사적 뿌리는 미국의 자립생활 운동과 장애의 사회적 모델에 기초해 있다. 한국의 장애인 당사자주의는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는데, “장애인의 자기 결정(self-determination)을 핵심적인 것으로

거쳐 완성되었다(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태혜숙 옮김, 2013: 151).

- 10) 당사자주의는 법학, 국제사법, 형사법과 정책, 행정학 분야에서 주로 연구가 이루어져 오다가, 최근 사회복지, 장애학, 혹은 특수교육 분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수는 아니지만 교육학,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도 유사한 내용과 방법을 적용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간주하는 이념”이 특징이다. 김도현(2016: 149)은 장애인 당사자주의가 국제장애인연맹(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즉 DPI의 출범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1981년 제1회 싱가포르 세계대회에서 그 주창이 정식화되었다고 보았다. DPI는 “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 스스로 대변해야 한다는 자기 대표성(self-representation)의 원칙”을 가장 강조한다.

유의할 점은, 장애인 당사자주의는 때로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당사자와 비당사자의 규정과 구분이 쉽지 않고, 종종 정치적 목적에 의해 당사자주의와 집단이기주의가 착종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당사자주의는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고 관철하기 위한 자조적 커뮤니티와 선험적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김대성은 “당사자주의의 목적은 참여에 있다”(2003: 180)고 강조하면서, 중요한 것은 당사자나 당사자가 아니냐가 아니라, 사회적 공론장에서 배제된 소수자의 입장과 참여를 충분히 반영하고 연대하면서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옹호하는 것이 당사자주의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기존의 당사자주의 연구를 참조하여, 다문화 연구에 필요한 ‘당사자 관점’의 성격과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사자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는 소수자의 입장과 권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참여’와 ‘저항’의 패러다임이다. 물론, 당사자주의의 취지와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와 행위가 당사자 분파주의로 고착화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당사자의 갈등 해결 과정을 집단이기주의로 환원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김도현, 2019: 283). 둘째,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원리와 목표인 ‘자기 대표성’과 ‘자기 결정권’은 당사자의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에서도 핵심이 된다.¹¹⁾ 주류 사회의 혐오와 배제에 의

11) 김대성은 ‘자기 대표성’과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고 있다(2003: 179~180). 먼저, “자기 대표성은 말 그대로 장애인이 스스로 대표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 대표성은 자신(당사자)의 이해와 요

해 참여와 결정의 기회/권리를 박탈당한 다문화 당사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표현(self-representation)하고, 각자에게 부여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참여/결정(self-determination) 과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지식인, 활동가, 관료 중심의 다문화 담론과 정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셋째, 당사자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는 연구자, 활동가, 정책입안자의 배제가 아니라, 상호간의 연대와 교류를 지향한다. ‘자기 대표성’이라는 당사자주의의 원리가 부모, 교사, 활동가, 사례관리자, 연구자 등을 배척하기 위한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 김도현(2012: 180~181)의 정확한 지적처럼, ‘자기 결정권’은 당사자주의의 목표가 되어야 하며, 다문화 당사자가 처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교류와 연대의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 혹은 문화 다양성 연구에서도 ‘당사자의 관점’이 도입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당사자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다음 장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3. 당사자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의 방향: 제한 화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3.1. 두 가지 연구 방법과 사례

구가 몇몇 학자와 행정전문가, 노동전문가, 의료전문가, 사회복지전문가 등과 같은 전문가 집단에 의해 대리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당사자가 그 문제에 관한 한 대표성”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자기 결정권은 장애인의 이해와 요구에 관한 한 그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 시기, 그 결과에 따른 책임까지 그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만이 가장 올바르며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기존의 당사자주의 연구에서 제시한 핵심 가치와 시사점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다문화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설계하는 토대로 삼을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입장에 주목한 다문화 연구는 ‘당사자주의’라는 이념적(ism) 용어가 아니라 당사자의 ‘관점’을 강조하는 실천적 연구를 지향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는 다문화 당사자들이 직면하는 삶의 문제를 주체적 참여와 협력적 연대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입장과 태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 근거한 다문화 연구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다문화 현장의 실태와 문제를 진단하기 위한 대표적인 조사 방법으로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문헌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양적/질적 연구 방법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양분되는 현장(실행) 연구 방법이다(성태제, 2002: 35~36). 최근의 다문화 연구 동향 분석에 따르면(김재훈·김민선, 2021: 13),¹²⁾ 기술통계와 회귀분석 등에 입각한 양적 연구가 인터뷰와 사례 조사에 근거한 질적 연구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문화 현상과 실태를 계량적 자료(quantitative datas)에 근거하여 수치화하고 유형화하는 조사, 실험 연구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이러한 양적 접근 방식은 다문화 연구의 대상이 되는 피조사자의 일상 경험과 가치관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양적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문화 현장에서도 현지 조사(field work)를 기반으로 하는 질적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몇 가지 어려움이 존재한다. 첫째, 대부분의 질적 연구가 참여자와

12) 다문화가정 자녀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결과를 보면, 대상 논문 중에서 23.4%가 질적 연구, 75.3%가 양적 연구, 1.2%가 문헌 연구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박윤경·박선운, 2021: 12~14).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결합하여 수행하는 삼각기법(triangulation)도 있으나, 다문화 연구에서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의 면담과 경험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박윤경·박선운, 2021: 53~54). 다문화 당사자의 인식과 행동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피조사자의 생활을 긴 시간 관찰하고 몰입해서 기술하는 참여 관찰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시간, 공간, 비용의 제약으로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째, 질적 연구를 설계하고 진행하는 연구자의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 질적 연구에 참여하는 다문화 당사자의 동의 여부, 인권 보호, 라포 형성, 권력 관계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조대훈, 2014: 38), 연구의 목적과 기간, 연구자의 문화 다양성 패러다임, 의미화 작업 등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적 연구이든, 질적 연구이든, 당사자의 입장이 결여된 다문화 연구는, 두 가지의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할 수밖에 없다. 첫째, 다문화 당사자는 자기 대표성과 자기 결정권이 박탈된 ‘무능력한 하위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사자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스스로 대표하고 자기 삶의 결정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 둘째, 문화 다양성 주체의 삶을 언제나 연구자, 활동가, 작가, 예술가, 비평가 등이 대신하여 재현하는 것은, 당사자의 삶을 왜곡하고 비트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¹³⁾ 물론 이는 연구자와 활동가의 개입과 역할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다문화 연구가 ‘당사자의 입장’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로, 장애학 분야의 당사자 연구 사례를 참조해 보면, “동료지원 활동가”와 “연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⁴⁾

13) 본론 2장에서 언급한 ‘재현의 윤리’란 이러한 한계를 성찰하고 반성하게 하는 철학적 의제이다.

14) 장애학, 사회복지학 분야의 당사자 연구에서 ‘동료지원 활동가’의 역할은 무척 중요하다. 『정신질환 당사자의 회복 지원을 위한 동료지원가 양성 학습매뉴얼』의 책임 저자인 케런 테일러는 영국 정신건강 당사자와 그 가족의 회복(Recovery)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 온 동료지원 활동가이자 전문가이다. 그녀는 당사자의 “보호”가 아니라 “옹

당사자 연구, 혹은 자조(스스로를 돕는)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생활, 동료들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 경험 속에서 생각하고 느낀 것을 표현하고 기록하는 과정이다.¹⁵⁾ 기존의 다문화 연구에서도 당사자의 생각과 경험을 기록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바로, 질적 연구와 문헌 연구이다(김은재·최현미, 2016: 146). 두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다문화 당사자의 목소리를 현장감 있게 기록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으로 ‘구술 인터뷰’와 ‘당사자 수기’를 제시할 수 있다. 구술 인터뷰는 다문화 당사자의 생각과 경험을 미시 생활사의 측면에서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질적 텍스트가 된다. 다음으로, 당사자 수기(手記)는 자기 자신의 체험을 진솔한 언어로 표현한 문헌 텍스트이다. 이는 조사자의 연구 목적에 의해 당사자의 발언 의도가 왜곡되거나 과잉 해석될 여지가 적다.¹⁶⁾

호”를 중요한 건강 회복의 키워드로 제시하면서, “의사결정능력 장애인 사회통합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중심이 되거나 당사자 중심주의 입장에서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며, 나아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협력을 통해 비로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케런 테일러 외, 제철웅 옮김, 2018: i~iii).

- 15) 장애인 당사자 연구의 실천적 모델로 널리 알려진 곳은 일본 홋카이도 우리카와에 있는 ‘베텔의 집’이다. 한국에서도 베텔의 집의 실천적 사례를 참고하여 당사자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성과가 『베텔의 집 랫츠! 당사자 연구』(2016), 『새로운 사회복지실천 당사자 연구』(2021) 등의 성과로 보고되고 있다. 이들 연구 사례를 보면, 당사자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언어(“말”)의 회복과 복원이다(무카이야치 이쿠요시, 2016: pp.122~127; 유쾌한 고생연구소, 2021: 19).
- 16) 전자와 관련한 연구로 김중규(2007), 「화교의 생활사와 정체성의 변화 과정-군산 여씨가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0-2호, 역사문화학회, 111~150쪽 등이 있으며, 후자와 관련된 연구로 이성림·차희정(2013), 「한국 내 결혼이주 여성의 다문화 체험과 정체성 구성 -결혼이주 여성 수기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38호, 한중인문학회, 163~186쪽; 박선옥(2011), 「여성결혼이민자 수기(手記)에 나타난 문화 변용 양상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11호, 문화콘텐츠기술연구

이 논고는 시론적인 성격의 글인 만큼 세부적인 연구 설계 매뉴얼이 아니라, 재한 화교를 중심으로 당사자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의 사례와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대상 텍스트는 재한 화교(華僑)의 구술 인터뷰 『인주골 중국동네 사람들』(손덕준 구술, 송승석 채록)과 수필 『아버지와 탕후루』(우매령)이다.¹⁷⁾ 두 텍스트는 재한 화교의 삶과 어려움을 당사자의 언어로 재현하고 있다.

3.2. 손덕준 구술 텍스트의 경우: 당사자의 대상화 비판과 자기 대표성

재한 화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 방법과 자료 중에서, 먼저 구술 텍스트를 살펴보자. 당사자 관점에 근거한 문화 연구는 아니지만, 이미 질적 연구의 한 방법으로 재한 화교의 생활과 정체성을 구술/기록하는 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비록 많은 자료가 축적된 것은 아니지만, 화교 당사자의 목소리를 채록하고 기록한 연구 성과가 보고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 인천, 군산 지역 등에 거주하는 13명의 화교를 인터뷰한 『한국 화교의 생활과 정체성』(국사편찬위원회, 2007)과 부산 지역 화교 1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기록한 『내 안의 타자(他者), 부산 차이니스 디아스포라』(2009, 부산발전연구원) 등을 들 수 있다.

구술사 자료는 연구자에게 다문화 현장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하는 간접적 텍스트가 되며, 다문화 당사자에게는 자기 삶을

원, 107~139쪽 등이 있다.

- 17) 두 텍스트를 선정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손덕준의 구술 인터뷰와 우매령의 수필은 인천과 수원, 각기 다른 생활 공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으며, 둘째, 동일한 화교 디아스포라 텍스트임에도 손덕준의 인터뷰는 질적 연구 자료로, 우매령의 수필은 문헌 연구 자료로 비교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표현하고 기록하는 ‘자기 반영적 산물’이 된다. 당사자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의 한 방안으로 인터뷰를 비롯한 질적 연구 방법이 활용될 수 있는 이유이다. 물론 인터뷰, 면담, 관찰만이 아니라, 다음 절에서 다룰 수기 역시 당사자의 관점에 의해 말해지거나 다시 쓰여진 ‘당사자 텍스트’가 된다.

여기에서 분석 사례로 제시한 『인주골 중국동네 사람들』은 인천 대학교 HK중국관행연구사업단 송승석 연구교수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재한 화교 손덕준과 그의 가족이 면담에 참여했다. 화교 2세 손덕준은 1956년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태어나 성장했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 본인과 가족이 겪은 생활의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에서 오랜 기간 소수자로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손덕준과 그 가족의 구술 자료를 통해 당사자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의 사례와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① 화교라는 대상은 과거이기도 하지만 엄연히 현재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무작정 인천부터 시작해 전국의 화교 거주지를 찾아다녔다. 특히, 일주일에 거의 반을 인천 차이나타운을 기웃거리는 것으로 소일했다. 그때마다 화교 본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필요에 따라 찾아와서 그 필요성이 충족되면 발길을 끊는 많은 화교연구자들의 일회성 방문에 대한 불만이었다. 또 그들에게 자주 듣는 말은, “그래 가지고는 화교를 몰라”라는 따가운 충고였다.¹⁸⁾

② ○ 그럼, 동향회관은 전쟁 때 폭탄 맞고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 지금도 거기에 흔적이 조금 남아 있어. 거기에 우리도 집 짓고 살았어. 그 절 뒤쪽에 큰 산 있어. 영국산(英國山)이라고. 나중에 올림포스호텔 지으면서 집값도 받지 못하고 우리 쫓겨났어. / ○ 보상도 못 받고? 한 푼도 못 받았어. 돈을 안 줬어. 아버지도 어디에서 돈을 받는 건지도 몰랐고(46). (…중략…) ○ 왜 한국에 오셨대요? / 공산당, 공산당 있잖아(55).

18) 손덕준 구술, 송승석 채록(2012), 『인주골 중국동네 사람들: 인천화교 손덕준의 가족이야기』, 한국학술정보, 9~10쪽. 3.2절에서 이 책을 인용할 때는 괄호 안에 쪽수만 표기하도록 한다.

첫째, 다문화 당사자의 역사, 생활,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 구술사(질적 연구)를 활용할 수 있으나, 연구자의 “필요”와 “일회”적 목적에 의해 피조사자를 대상화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인용문 ①에서 확인할 수 있듯, 화교 당사자에 대한 연구 대상화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피조사자를 연구 대상으로만 삼는 행위는 다문화 당사자의 ‘자기 대표성’을 박탈하고 객체화한다는 측면에서 문제적이다. 손덕준의 구술 작업을 진행한 송승석 교수는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이라는 잣대로 구술 자료를 함부로 보정하지 않고 ‘기록’ 자체의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인터뷰어는 인터뷰이의 “주관적” 기억이 “개입”된 부분까지도 그대로 가족사의 한 장면으로 레코딩하고 있으며, 또 인위적인 첨삭을 가하지 않고 있다.

둘째, 화교 당사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발화할 수 없는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점이다. 인용한 ②에서 확인할 수 있듯, 손덕준의 할아버지, 아버지와 같은 화교 1세대는 “공산당”을 피해 한국으로 왔다. 하지만 그의 가족은 오히려 이념적 적대자이자 이방인으로 부당한 처우를 당해 왔다.¹⁹⁾ 재한 화교 역시 분단과 전쟁이라는 아픈 역사의 당사자이자 공동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²⁰⁾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제도로 인해 심적·물적 피해를 받아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요구할 수 없었다. 화교들이 자녀 교육을 통해 이러한

19) 이 점은 우매령의 수필에서도 확인이 된다. “당시 중국이라 하면 공산주의가 제일 먼저 떠오르고, 공산당이라 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나쁘고 사악하며, 우리 선조들은 그런 공산당을 피해 한국에 정착한 것이라 배우며 성장하고 있었다(우매령, 2016: 192).”

20)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외할아버지는 6·25 이전에는 상당히 연세도 있고 잘나갔죠. (...중략...) 근데 6·25 지나고나서부터 고생 시작이지, 뭐. 이게 사실 전쟁 때문에 집안이 다 으스스해진 거죠(25-26).”

차별을 극복하고자 하거나, 화교 커뮤니티의 필요성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까닭은 그 때문이다.²¹⁾

손덕준에 대한 인터뷰 역시 학술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조사자는 인터뷰와 자료 생성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자의 성찰적 자세를 충실하게 유지하고 있다. 그 근거는 연구자가 당사자의 언어를 자의적으로 편집하지 않고 “영웅담과 뉘두리” 까지도 세심하게 기록하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진실”의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데 있다. 연구자는 제한 화교에 대한 인터뷰와 자료 정리를 통해 다문화 당사자에 관한 “연구 시야”를 “확충”하고, “역사서술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당사자의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의 방향 중 하나가 된다.

3.3. 우매령 수필 텍스트의 경우: 당사자 권리언어의 회복과 자기 결정권

구술사에 바탕을 둔 질적 연구는 다문화 당사자의 역사와 경험을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기회, 즉 ‘자기 대표성’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력적 행위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기 반영적 글쓰기에 기반한 문헌 텍스트 역시 당사자의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의 사례가 된다.²²⁾ 다양한 글쓰기 장르가 활용될 수 있지만, 자기

21) 손덕준은 인천 차이나타운연합회 초대회장, 인천 화교협회 부회장, 인천 중구청 중국투자유치자문위원회 자문대사 등으로 활동했다.

22) 문헌 연구의 토대가 되는 다문화 당사자의 기록 혹은 글쓰기 사례를 『인종간 입양의 사회학: 이식된 삶에 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책은 국제 입양 당사자 25명이 쓴 글을 묶은 책이다. “당사자들로서 자신의 삶에 얹힌 이야기”를 통해 “기준”의 입양 “담론을 비판하고 재해석”함으로써 “입양 권력의 해체”를 도모하고 있다. 당사자 텍스트의 저항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토비아스 휘비네트 외, 뿌리의 집 옮김, 2012: 9~10).

대표성과 자기 결정권이 당사자의 언어를 통해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갈래는 ‘수기’이다. 여기서는 수원 출신의 화교 2세 우매령 작가가 쓴 수필 『아버지와 탕후루』를 문헌 연구 텍스트로 삼도록 한다.²³⁾

수기 중에서도, 수필은 사적인 기록이다. 실제로 우매령의 글은 유년 시절, 성장 배경, 학창 시절과 직장 생활, 혼종적 정체성과 그에 따른 차별과 편견, 그리고 가족과의 추억까지 폭넓은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작가 개인의 추억과 낭만적인 소회가 담겨 있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화교 디아스포라의 집단적 기억이 (무)의식적으로 반영되어 있다.²⁴⁾ 수필이 문학이라는 예술 장르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문화 당사자의 삶과 목소리를 재현하는 연구 텍스트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수기의 장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의 ‘내부 이방인(outsider within)’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묘사하고 새로운 공동체의 가치를 사유하는 문학·문화 콘텐츠는 유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생산되고 있으며, 또 의미 있는 사회 담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이주 및 다문화주의와 관련한 논의는 학술 영역에 그치지 않고, 문학, 영화, 연극, 웹툰, 드라마 등을 비롯한 ‘문화적 재현 영역’에서도 약진하고 있다(배상준, 2015: 83~82).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다문화 이론과 현장, 그리고 재현 연구에서 연구자, 활동가, 예술가, 비평가들이 충실하게 소수적인 목소리를 기록하고 묘사하고 있으며 이미 상당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강진구·이기성, 2018).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다문화 당사자의 입장과 권리를 옹호하는 언어(권리언어)를 고안하

23) 우매령(2016), 『아버지와 탕후루』, 범우. 3.3절에서 이 책을 인용할 때는 괄호 안에 쪽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24) 우매령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글쓰기와 연결시켜 사유해 왔으며, 그러한 고민과 경험은 고스란히 수필에 반영되어 있다. 다문화 당사자의 자기 반영적 글쓰기 사례라 할 수 있다.

는 일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다문화 당사자의 수필 텍스트 역시 충분히 의미 있는 ‘자기 반영적 글쓰기’의 산물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우매령의 『아버지와 탕후루』는 이러한 문제 인식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③ 학창 시절,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면 언제나 나에겐 똑같은 질문이 돌아왔다. 왜 한국 국적으로 바꾸지 않았느냐는 것과, 왜 하필 중화민국 국적으로 되어 있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늘상 그에 상응하는 똑같은 답을 준비해 놓았다. 대한민국에는 이민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원적은 중국 본토일지라도 이데올로기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냉전체제 하의 한국 정부에선 6·25사변 이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중국인들에게 ‘중화민국’ 국적을 부여해 주었다는 것이다 (116).

④ 6월의 어느 날, 서울 주재 대만대표부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재한 화교 500여 명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 들었다. (…중략…) 그들은 “대만 내 국민과 동등한 여권제도를 적용해 달라!”며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중략…) 원적은 중국 본토이지만 국적은 중화민국 대만성이고 삶의 터전은 한국이라, 그들의 인생만큼이나 복잡한 제도에 묶여 살아온 셈이다. 이 또한 대만 내 국민과의 엄연한 차별이며, 재한 화교들의 여권은 그 어느 곳에도 쓸모가 없는 속이 텅텅 빈 ‘깡통’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32).

첫째, 화교 2세 우매령의 수필 텍스트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당사자의 자기 대표성과 자기 결정권이 박탈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의 인용 자료에서 보듯, 한중수교 이전부터 한국에서 살아온 구화교는 대만, 중국, 한국이라는 세 가지 정체성이 혼종되어 있다. 원적은 중국 본토이지만, 국적은 중화민국 대만성이고, 또 살아가는 곳은 한국이다. 그러므로 재한 화교의 삶과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역사와 국제정치적 맥락이 요구된다. 화교의 국적 문제는 이러한 조건과 상황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구성원의 인식과 제도는 그러한 정체성과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²⁵⁾

둘째, 우매령의 수필 텍스트는 다문화 당사자의 박탈된 자기 대표성과 결정권을 회복하고 복원하기 위한 저항적 목소리가 잘 드러난다. ④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한국 구화교의 국적은 대부분 대만이다. 그러나 이들은 대만 내 국민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채 이중적 차별을 당했다. 500여 명의 화교 당사자는 거리 “시위”를 통해 이에 항의하였고, 우매령의 수필은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한중수교 이전부터 한국에서 살아온 화교 디아스포라의 저항은 집단적 이기주의와는 구분된다. 왜냐하면 다문화 당사자 스스로 한국 사회 내의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인식과 제도를 비판하고, 이러한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권리언어를 발화한 사례이기 때문이다.²⁶⁾

당사자 관점에 대한 ‘이해 결여’는 자연스럽게 이방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로 이어진다.²⁷⁾ 혐오는 단순한 정서 표현이 아니다. 혐오는 개개인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회적 커뮤니티에서 배제하고 추방하는 집단적 폭력이자 정치/언어적 무기이다. 당사자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는 이러한 혐오의 언어에 저항하고 보다 건강한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25) 3.2절의 손덕준 구술 자료에서도 자기 결정권이 박탈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26) 신용철은 우매령의 수필집 서평에서, 이 글의 의미는 “화교 사회에 대한 호소”이자 “시대와 역사를 알리는 공헌”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다문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에게 배달의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한국의 민족적 의식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한다” (220)고 적고 있다.

27) 재한 화교 사이에서는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혼혈화교에게 ‘까오리짱즈’라 하며 없이 여기는 풍조가 만연” (198)해 있었고, “거꾸로 본인의 자식이 화교 출신 어머니에게서 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한국인들에게 왕따를 당할까 하는 노파심” (199)이 들었다고 한다.

4. 결론을 대신하여: 당사자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의 의의와 과제

코로나19(covid-19)로 촉발된 팬데믹 사태는 국경을 타고 넘으며 전파되고 있다. 이 엄청난 재앙은 인류의 삶이 민족국가의 경계로 구획되거나 단절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 지구적인 감염병으로 국경 통제와 방역 기준이 강화되어 여행, 유학, 결혼, 노동 등을 비롯한 국제이주가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국제이주의 양상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 구성원의 통합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문화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다문화 당사자의 삶은 언제나 동정이나 시혜의 대상이 되어 왔다. 자기 삶의 주체가 아니라, 항상 지식인이나 활동가, 혹은 예술가에 의해 ‘재현되어야만 하는 객체’로 대상화되어 온 것이다. 이 논고는 이러한 문제 인식에 바탕하여, 그동안 국제이주와 다문화(교육) 연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당사자 관점’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재한 화교의 인터뷰와 수기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먼저, 당사자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의 필요성과 핵심 가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사자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는 소수자의 입장과 권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참여’와 ‘저항’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이다. 둘째, 당사자 관점의 핵심 가치는 ‘자기 대표성’과 ‘자기 결정권’이며, 이는 지식인, 활동가, 관료 중심의 다문화 담론과 정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당사자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는 연구자, 활동가, 정책입안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대’하고 ‘교류’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당사자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의 방향을 질적 연구와 문헌 연구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재한 화교 손

덕준의 구술 인터뷰와 우매령의 수필을 구체적 사례로 삼았는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현장 연구 방법을 다문화 당사자 연구에 활용할 때는 피조사자를 대상화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 사회는 다문화 당사자의 목소리가 발화되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셋째, 화교 당사자의 자기 대표성과 결정권이 박탈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넷째, 다문화 당사자의 박탈된 자기 대표성과 결정권을 회복하고 복원하기 위한 저항적인 목소리가 존재하고, 또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문화 사회가 심화될수록 당사자의 자기 대표성과 결정권을 반영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것은 다문화 현장의 사례 관리, 교육과 지원, 그리고 연구를 통해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이다. 당사자의 관점에 입각한 연구가 다문화 당사자들의 생활, 경제, 문화, 교육, 정치 등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연구가 다문화 당사자의 권리언어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작은 발걸음이 되길 바랄 뿐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손덕준 구술, 송승석 채록(2012). 인주골 중국동네 사람들, 한국학술정보.

우매령(2016). 아버지와 탕후루, 범우.

2. 논저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2013). 태혜숙 옮김,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그린비.

강진구 외(2020).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다문화 연구 동향 분석,

- <다문화콘텐츠연구> 35-1호,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45~69쪽.
- 장진구 · 이기성(2018). 한국문학의 다문화담론에 대한 메타분석, <우리문학연구> 59호, 우리문학회, 7~28쪽.
- 권오경(2010). 다문화 사회 통합을 위한 민요의 역할과 방향, <한국민요학> 30호, 한국민요학회, 41~73쪽.
- 김대성(2003). 장애인 당사자주의 운동의 참여와 연대정신, <진보평론> 18호, 진보평론, 170~187쪽.
- 김도현(2012).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비판적 이해를 위하여, 진보평론 52호, <진보평론>, 172~190쪽.
- 김도현(2016).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메이데이.
- 김도현(2019). 장애학의 도전, 오월의봄.
- 김영순 외(2014). 다문화교육연구의 경향과 쟁점, 한국학술정보.
- 김은재 · 최현미(2016). 이주민 당사자들이 인식한 선주민들의 다문화 수용성과 인식 경험, <한국 사회복지행정학> 18-4호, 한국 사회복지행정학회, 143~167쪽.
- 김재훈 · 김민선(2021). 다문화 가정 자녀 관련 연구 동향과 향후 과제, <현대사회와 다문화> 11-1호,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1~24쪽.
- 데이비드 바트럼 외, 이명민 · 이현옥 외 옮김(2017). 개념으로 읽는 국제이주와 다문화 사회, 푸른길.
- 류지현 · 김현주(2021). 한국의 다문화연구 경향 고찰, <인문과학연구> 42호,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9~54쪽.
- 무카이야치 노리아키, 이진의 옮김(2016). 베텔의 집 렛츠! 당사자 연구, EM커뮤니티.
- 박윤경 · 박선운(2021). 다문화교육 질적 연구의 동향과 과제, <교육인류학연구> 24-1호, 한국교육인류학회, 39~63쪽.
- 배상준(2015). 한국의 다문화 영화-장르적 접근, <인문콘텐츠> 36호, 인문콘텐츠학회, 75~108쪽.

- 성태제(2002). 교육연구방법의 이해, 학지사.
- 스티븐 모튼, 이윤경 옮김(2005). 스피박 넘기, 앨피.
- 에드워드 사이드, 박홍규 옮김(2004),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 여성가족부(2013). 2013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 왕문영 외 구술, 은정태 외 면담·편집(2007), 한국 화교의 생활과 정체성, 국사편찬위원회.
- 유동철(2003). 장애운동의 깃발: 당사자주의인가, 인권론인가, <시민과 세계> 4호,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73~293쪽.
- 유쾌한 고생연구소(2021). 새로운 사회복지실천 당사자 연구, 신정.
- 이선혜·김은재(2012). 다문화 정신건강 프로그램 참여경험 분석-결혼이주여성 당사자 관점에서,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0-4호,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319~348쪽.
- 이용재(2019). 다문화연구의 현황과 과제-정부주도 다문화 담론의 한계와 극복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74호, (사)한국민족연구원, 4~29쪽.
- 조대훈(2014). 다문화교육 연구자의 연구윤리-질적연구의 윤리적 딜레마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53-2호, 한국 사회과교육연구학회, 35~50쪽.
- 최기탁(2016). 다문화 사회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인문사회21> 14호, (사)아시아문화학술원, 651~672쪽.
- 케런 테일러 외, 제철웅 외 옮김(2018). 정신질환 당사자의 회복 지원을 위한 동료지원가 양성 학습매뉴얼, 율곡출판사.
- 토비아스 휘비네트 외, 뿌리의 집 옮김(2012). 인종간 입양의 사회학: 이식된 삶에 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 뿌리의 집.

필자 소개

성명 : 박형준

소속 :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주소 : 46234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485길 65

전화번호 : 010-2004-4426

전자우편 : corea@bufs.ac.kr

투고일: 2021. 10. 20 / 심사일: 2021. 11. 19 / 심사완료일: 2021. 11. 26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전망

-영어교육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안지현
(부산외국어대학교)

《목 차》

1. 서론
2. 데이터와 언어
 - 2.1. 코퍼스 언어학과 기계번역
 - 2.2. 데이터 기반 접근
3. 기계번역과 외국어교육
 - 3.1. 영어교육
 - 3.2. 한국어교육
4.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교육적 활용
 - 4.1. 외적 조건
 - 4.2. 내적 조건
5. 결론

<Abstract>

Ahn, ji-hyun. 2021. 10. 20. **The Prospect of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Focusing on Comparing to English Language Education.**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09, 75-9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Big data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AI and big data have been considered an important medium in foreign language translation for many years. There is a lack of empirical research done on AI and data utilizat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This study explores the machine translators based on AI and big data, such as Google Translate and Naver Papago utilized in the language education contexts; then examines the external and internal strategic factors that are applied to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This paper suggests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for Korean, as a foreign and second language.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 words] Artificial Intelligence, Corpus, Data-based approach, Machine Translator, Korean language education, English language education

1. 서론

2020년 3월 이후 코로나(COVID-19) 상황의 지속적인 악화로 인해 대면 수업이 가능한 일부 소규모 강의를 제외하고 현재(2021년 11월)까지 대학에서는 비대면 수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이러한 사회적 위기와 함께 갑작스럽게 실시된 온라인 수업은 교육 방식이 크게 바뀌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미 경제,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TV나 스마트 폰, 컴퓨터에 탑재된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었지만, 교육 분야 또한 온라인 수업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의 발전과 활용으로 데이터는 중요한 개념이며, 교수-학습을 위한 자료로서도 중요시되고 있다. 데이터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으로 활용이 실현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나타난다(Clark, 2004). 데이터의 유형 또한 ICT의 발전으로 일반적인 텍스트와는 다르게 다양한 파일 형식으로 문서를 기록하고 여러 영역(정치, 경제, 스포츠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빅데이터의 종류와 크기는 무한

대로 확장되면서 교육 분야에서도 중요한 개념이 되었다.

여기에 더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의 발전은 우리의 삶과 교육의 관점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2016년 후반기부터 구글(Google)이나 네이버(Naver)등에서 AI 기술을 적용한 기계번역기(Machine Translator, 이하 MT) 서비스를 하기 시작하였다(이운재, 이동주, 2020). 2016년까지만 해도 MT는 자연언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이하 NLP)¹⁾영역에서 오랜 연구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단순한 어휘대응의 수준으로만 인식되어왔다(임형재, 2018).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서 코로나 상황에까지 이르면서 온라인 수업을 통해 외국어 공부를 함에 있어서 MT의 사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는 것은 부정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즉, MT의 정확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사용자가 급증하고, 외국어 학습자들이 더 이상 ‘사전’ 이 아닌 MT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이운재, 이동주, 2020; Chon & Shin, 2020).

AI 시대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일부 MT에 관한 인식 및 태도 관련 연구들(이정화, 2019; 임희주, 2017)만 있을 뿐, 실제 MT를 외국어교육에 적용하는 데 대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이운재, 이동주, 2020). 이에 본 연구는 코퍼스²⁾와 기계번역(Machine Translation)³⁾, 데이터 기반 접근(data-based approach)과 코퍼스 기반 중심 접근(corpus-driven approach)의 개념 및 특징을 살펴본 후, 영어교육과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계번역의 비교를 통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한국어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 1) 자연언어(natural language)란 인간 고유의 언어로 특정 집단/국가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특정 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인공언어(artificial language)와 대응되는 개념이다.
 - 2) 코퍼스(corpus)는 언어 연구를 위해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서면, 음성, 사진, 비디오 등)의 데이터 집합으로 일부 연구에서 코퍼스를 ‘말뭉치’ 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코퍼스’ 라고 부르기로 한다.
 - 3) 본고에서는 기계번역(Machine Translation)과 기계번역기(Machine Translator)를 구분하여, 기계번역기를 ‘MT’ 로 부른다.

2. 데이터와 언어

2.1. 코퍼스 언어학과 기계번역

코퍼스 언어학은 언어학과 컴퓨터 과학을 결합한 분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연구하는 것이다(Sampson & McCarthy, 2004). 과거의 코퍼스 연구와는 달리, 현재의 코퍼스는 ICT의 발전으로 서면이나 음성 데이터 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비디오 등의 이미지 등도 포함한다(Rayson, 2003). Chomsky등과 같은 일부 언어학자들은 자연언어 코퍼스(natural language corpus)는 데이터의 왜곡으로 인해 언어연구에 있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즉, 인위적인 언어 데이터를 강조하며, 일상생활에서 수집한 자연적인 데이터는 명확하지 않은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언어 데이터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Chomsky, 1962).

Chomsky는 언어능력을 설명하는 측면에서 데이터를 바라보았지만, 코퍼스 언어학은 언어능력이 아닌 다른 종류의 능력을 설명한다. 다시 말해, 언어연구에 대한 ‘실험(experimentation)’이 아니라 ‘관찰(observation)’이며, 데이터의 관찰을 통해서 언어현상에 대한 결론과 능력을 확장시키는 것이다(Desagulier, 2017). 즉, 자연언어 데이터는 언어의 본성에 대한 지식의 원천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McEnery & Hardie, 2011). Teubert 외 다수 언어학자들도 실생활에서 수집한 자연언어 데이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코퍼스 언어학자들의 언어 데이터는 이론적 관점이 아닌 실제 활용되는 방법론적 입장에서 언어현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Kendall, 2013). 실제 나타나는 언어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자연언어 코퍼스는 필요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변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언어학자들은 언어가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설명하는 ‘서술적 언어학’과 언어의 ‘다양성’을 강조한다(Clark, 2007).

기계번역(Machine Translation)영역 또한 ICT의 발전 및 빅데이터와 새로운 알고리즘 개발과 활용으로 실제 언어의 활용과 다양성 측면을 강조하며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다. 요즘의 기계번역은 기존의 단순한 어휘 변

환을 넘어 음성인식(Speech To Text), 자동번역(Text To Text), 음성합성(Text To Speech) 시스템과 결합하여 자동통역(Speech To Speech)의 통합을 이루고 있으며, 이것은 언어분석뿐만 아니라 통번역 서비스와 외국어교육의 분야로 발전하고 있고, 이를 “넓은 의미에서의 기계번역 영역”이라고 말한다(임형재, 2018: 71).

기계번역 시스템의 발전 단계는 <표 1>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3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이윤재, 2020). 1980년대까지는 언어학자를 중심으로 개발한 규칙기반 기계번역 시스템(Rule-Based Machine Translation, RBMT)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복잡한 문법을 입력하는데 있어서 시간과 비용 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언어학자의 배경 지식과 능력에 따라 번역의 질(quality)이 달라지는 단점이 있었다. 이후 1990년대부터는 인터넷과 컴퓨터의 발전으로 대규모 코퍼스를 활용할 수 있는 통계기반 기계번역 시스템(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SMT)이 개발되어 확률과 빈도수를 기반으로 어휘나 구문 등을 제시하였으나, 문장의 길이와 어순 등의 변수로 인하여 정확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현재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망 기반 기계번역 시스템(Neural Network Machine Translation, NMT)으로 문맥을 고려한 고품질의 번역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이윤재, 2020; 장애리, 2017).

<표 1 기계번역 기술의 발달 단계>4)

단계	연도	기계번역 기술	특징
1	1980년 대	규칙기반 (Rule-Based Machine Translation, RBMT)	언어학자 중심 개발 문법 규칙화
2	1990년 대	통계기반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SMT)	대용량 코퍼스 구축 구문단위 분석, 확률과 빈도수 기반 번역 모델 학습
3	~현재	인공신경망기반 (Neural Network Machine Translation, NMT)	대용량 코퍼스와 빅데이터 문장전체 분석, 문맥 고려

(이윤재, 2020의 내용 요약)

2.2. 데이터 기반 접근(Data-based approach)

비즈니스 회의, 신문, 전화 혹은 집에서의 대화 등 모든 언어 현상에서 데이터는 나타난다. 각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 서면 코퍼스, 구어 코퍼스, 학술 에세이 코퍼스, 비즈니스 코퍼스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언어 데이터를 근거로 한 분석은 모(국)어 화자로서 교사 및 학습자의 직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연언어 텍스트 데이터에서 언어사용의 실제 패턴”을 살펴보는 것(Bennett, 2010: 7)이고, 이를 데이터 기반 접근(data-based approach)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접근을 활용해서 언어의 패턴을 학습자 스스로 발견하는 학습을 데이터 기반 중심 학습(data-driven learning)이라고 하며, 실제 영어교육 현장에서는 데이터 기반 중

4) <표 1>은 이윤재(2020)의 ‘기계번역 기술의 발달 단계’를 요약,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심 학습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안지현, 2021). 이는 과거 1990년대 교사나 연구자 중심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접근과는 확연히 다르며, 학습내용을 오프라인 환경에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학습자 중심으로 스스로 관찰하고 발견하는 것이다.

데이터 기반 접근(data-based approach)은 코퍼스 기반 중심 접근(corpus-driven approach)과 유사하지만 데이터의 크기와 목표 언어의 활용, 교사 역할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표 2 참고). 코퍼스 기반 중심 접근은 데이터 안에서 “실제 언어”의 패턴을 찾는 것으로 데이터의 크기는 대규모로 연구자가 정한 범주에 맞게 조정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Tognini-Bonelli, 2001: 74). 즉, 대규모 데이터 안에서 패턴을 추출, 분석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에 반해, 데이터 기반 접근은 교수-학습 측면에 있어서 “학습자 수준”의 언어로 구성된 데이터를 조직자인 교사가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Leech & Candlin, 1986). 이러한 데이터의 크기는 수업 주제와 시간, 학습자의 수준 등을 고려해서 교사에 의해 선택되어야 한다. 즉,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을 통해 기존 언어 관련 이론을 설명하거나 이론 등에서 발견되지 않은 예시들을 찾을 수 있다(Tognini-Bonelli, 2001). 즉, 조직자인 교사는 연구자인 학습자를 위해 기존 언어 연구의 결과 또는 언어 사용과 관련된 특정 문제에 대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2 데이터 기반 접근과 코퍼스 기반 중심 접근의 비교>5)

특징	데이터 기반 접근	코퍼스 기반 중심 접근
데이터	소규모, 학습자 수준 언어	대규모, 실제 언어
목표 언어	구체적 관찰 -> 발견	구체적 관찰 -> 일반화
분석 과정	상향식, 귀납적	상향식, 귀납적
교사 역할	조직자	연구자
학습자 역할	연구자	연구자

(안지현, 2021의 표 수정 및 추가)

데이터의 분석 방식에 있어서 데이터 기반 접근과 코퍼스 기반 중심 접근의 방식은 유사하다. 구체적 관찰을 통해 발견, 혹은 일반화하는 것으로 ‘상향식(bottom-up)’의 ‘귀납적(inductive)’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Moavia, 2014). 하지만 목표언어 데이터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기반 접근은 교사를 학습자에게 적절한 데이터를 선택, 구성하는 조직자로 보고 학습자를 능동적인 연구자로 보지만, 코퍼스 기반 중심 접근은 교사와 학습자를 동등한 연구자로 본다고 할 수 있다.

3. 기계번역과 외국어교육

3.1. 영어교육

영어교육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제2 언어 습득 연구는 학습자들이 실제 사용한 구어 혹은 문어를 수집한 학습자 코퍼스(learner corpus)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커리큘럼이나 교수-학

5) <표 2>는 안지현(2021)의 표에 정리된 “코퍼스 기반 중심 접근”을 데이터 기반 접근(data-based approach)과 비교, 정리 하였다.

습 자료를 만들거나, 수업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성일호, 2007). 이는 교사 측면에서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으로 학습자 수준에 맞는 데이터를 선택하거나 학습자들의 말하기, 쓰기 자료를 실제 코퍼스로 구축하여, 이를 교육 자료로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자 코퍼스와 함께 대표적인 참조 코퍼스로 활용되는 것은 COCA(Contemporary of Corpus of American English)⁶⁾와 BNC(British National Corpus)이다. 이는 각각 미국식 영어와 영국식 영어를 대표하고 다양한 장르의 언어 데이터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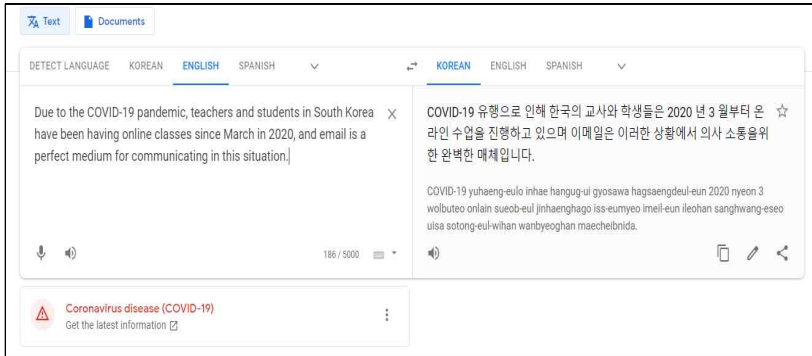
이 중 BNC는 1억 단어로 구성된 텍스트 코퍼스로서 20세기 후반의 영국식 영어를 포함하고, 구어 및 문어의 대표적인 샘플이 되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했다. ‘BNC 프로젝트’에는 옥스퍼드 출판사(Oxford University Press)와 공동 작업자인 Longman과 Chambers와 더불어 옥스퍼드 대학교 및 랭커스터 대학교, 영국 도서관이 협력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1991년에 시작되어 1994년에 완료되었고, 1994년 이후에는 새로운 샘플이 추가되지 않았지만 2001년에 약간의 수정을 걸쳐 제 2판 ‘BNC World’, 2007년에 제 3판 ‘BNC XML Edition’이 공개되었다. BNC가 기존 코퍼스와 차별화되는 점들 중 하나는 학술 연구뿐만 아니라 상업 및 교육 용도로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영어교육의 코퍼스 연구 분야에서는 BNC를 대표적인 참조 코퍼스로 사용하면서 이러한 참조 코퍼스와 함께 교사들이 독립적으로 구축한 연구 코퍼스를 통해 교사 및 학습자 측면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다.

기계번역에 있어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구글 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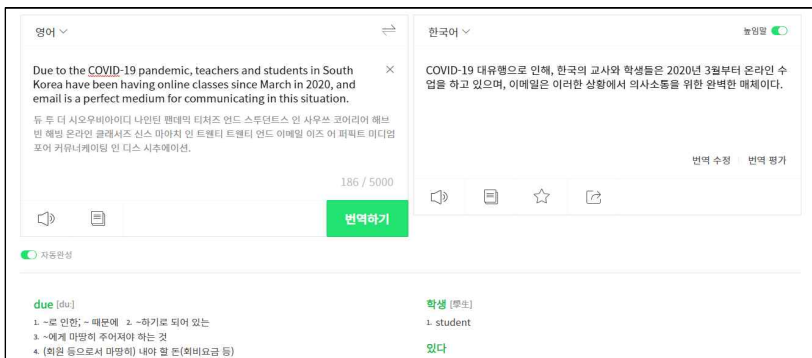
6) COCA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미국식 영어 코퍼스 중 하나이다. 이 코퍼스에는 음성을 비롯하여 TV, 영화, 블로그, 웹 페이지 등의 10억 단어 이상의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코퍼스 기반 프로그램인 콘코던서(concordancer)를 제공함으로써 교사와 학습자가 단어의 의미와 단어 간의 관계, 문장에서의 쓰임 등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역기(Google Translate)이나 네이버 파파고(Papago)는 학습자의 측면에서 교사가 제시한 코퍼스에서 모르는 어휘나 표현이 나올 경우, 이들 번역기를 통해 그 의미를 파악한다. 이 두 가지 MT는 활용된 코퍼스와 분석 알고리즘이 서로 다른 관계로 번역 결과에서 조금씩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 영-한의 경우 네이버 파파고가 구글 번역기보다 좀 더 나은 번역 결과를 보이는 반면 한-영의 경우에는 텍스트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이성화, 김세현, 2018). 이성화와 김세현(2018)의 연구에서 문장 구조 분석은 네이버 파파고가 강하고, 전문적이고 난이도 있는 어휘 번역은 구글 번역이 강점이 있음을 보여준다는 결과가 있다. <그림 1>과 <그림 2>는 동일한 영어 문장을 각 각 네이버 파파고와 구글 번역으로 제시한 것인데 앞서 언급한 연구 결과와 같이 영-한의 경우 네이버 파파고에서 띄어쓰기, 쉼표 등을 포함해서 좀 더 정확한 문장 번역을 보여준다.

이처럼 영-한 또는 한-영 온라인 사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배우는 한국인 학습자들이 영어작문이나 어휘공부를 할 때 이 둘의 MT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하며, 음성기능도 제공하기 때문에 듣기 및 발음 연습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구글 번역의 경우, 사진을 찍어 자료를 업로드하면 바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카메라를 텍스트에 비추기만 해도 화면에서 자동으로 번역된 단어들로 바뀌는 기능도 더해 학습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더욱 끌기도 한다.



<그림 1 네이버 파파고 기계번역(영-한)예시>



<그림 2 구글 기계번역(영-한)예시>

영어교육에서 이와 같은 데이터를 활용한 학습을 위한 교수법은 ‘제시-연습-산출(Presentation-Practice-Production, 이하 PPP)’의 전통적인 PPP 모형에서 ‘예시-소통-귀납(Illustration-Interaction-Induction, 이하 III)’의 III 모형을 더욱 적합한 방법으로 제시하였다(Carter and McCarthy, 1995: 155). ‘예시(Illustration)’는 언어학습에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실제 언어 데이터를 예로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소통(Interaction)’은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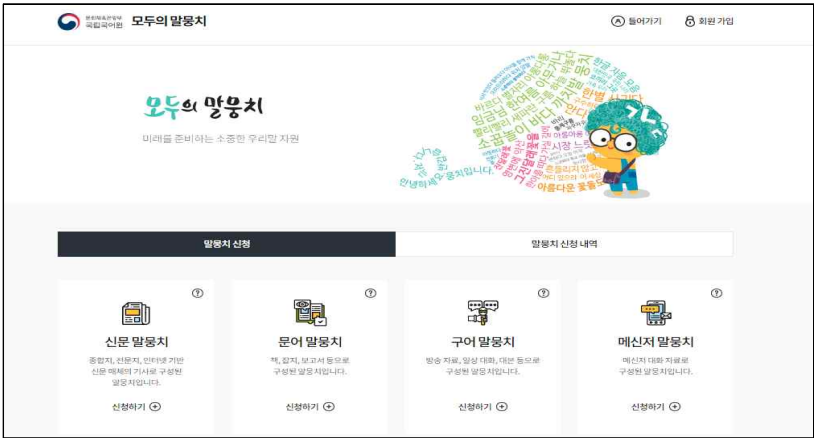
한 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무엇을 발견했는지 학습자 간 혹은 교사와 의견을 나누는 것이며, ‘귀납(Induction)’은 언어의 특징에 대해 학습자들 스스로 목표언어의 규칙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인공지능 및 데이터 자료와 연결시켜보면 ‘예시(Illustration)’는 학습에 있어서 실제 데이터의 내용을 예시로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소통(Interaction)’은 관찰을 통해 학습자 간 혹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것이며, ‘귀납(Induction)’은 목표 언어의 특징에 대해 비모(국)어 화자 학습자들이 발견한 내용을 토대로 규칙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3.2.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과 관련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외국어교육의 사례와 연구를 점검하고(이찬규, 2018), 기계번역을 활용한 언어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2017년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임형재, 2018).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한국어 관련 인공지능의 발전을 위해 총 154억 7천만 어절의 코퍼스를 구축하는 국어 정보화사업 프로젝트를 2018~2022년 동안 추진할 수 있도록 2018년 1억 5천 70만원의 1차 예산을 편성하였다(이찬규, 2018).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시기·매체·장르별로 한국어 코퍼스 152억 7천만 어절과 BNC나 COCA등과 같이 보편적 준거가 될 수 있는 참조 코퍼스인 표준 코퍼스에 1억 3천 70만 어절을 구축·보급할 예정이다. 이러한 한국어 코퍼스가 구축되면 이를 토대로 인공지능 및 기계번역, 코퍼스 기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국어 학습 및 연구가 매우 효과적이고 편리해 질 수 있다. 현재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비인터넷 기반 한국어 통번역기 등이 이미 등장하고 있어 향후 20년 후에는 6급 정도의 한국어 통번역은 대부분 통번역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인공지능이 외국어 통번역을 대체할 시기를 향후 20년으로 본다면 한국어교육 및 한국어통번역은 다 인

공지능과 기계번역이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찬규, 2018).

데이터 측면에서 볼 때, 영어 코퍼스와 마찬가지로 국립국어원에서 <그림 3>과 같이 ‘모두의 말뭉치’⁷⁾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데이터 자료를 온라인 국립국어원 언어정보 나눔터에 ‘말뭉치’ 페이지에서 제공하며, 가공형태에 따라 원시 말뭉치, 형태분석 말뭉치, 형태 의미 분석 말뭉치, 목적에 따라 문어와 구어 말뭉치, 구문분석 말뭉치로 분류되어 있다.



〈그림 3 국립국어원 한국어 코퍼스 ‘모두의 말뭉치’〉

2020년 8월 25일 국립국어원이 공개한 한국어 코퍼스는 ‘21세기 세종계획’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어원이 1998-2007년 추진, 약 2억 어절 분량)의 대규모 코퍼스에 일상대화, 메신저 등의 구어 코퍼스를 추가한 것이다. 신문기사나, 대본, 블로그 등의 다양한 장르가 공개되어 있지만 사용 신청을 한 후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에 더해 영어의 언어 연구에 있어서 대표적인 참조 코퍼스로 활용되는 영어 코퍼스와 달리 온라인 국립국어원에 있는 한국어 코퍼스는 문

7) <https://corpus.korean.go.kr/>

어와 구어에 있어서 그 비율이 균형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안지현, 2021). 국립국어원의 원시 코퍼스에 있어서 문어의 비중이 크게 치우쳐 있고, 비모(국)어 화자의 코퍼스 구성에 있어서 6급 이상의 고급 학습자 코퍼스의 크기 또한 현저히 작다.

한국어교육에서도 인공지능 산업과 관련 연구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목적의 코퍼스를 대규모 구축함에 따라 앞으로 이러한 데이터와 기계번역을 활용한 한국어교육의 전망을 <표 3>에서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2021년 현재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가 한국어교육에 있어서 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2023년에는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학습자의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하는 데에 적극 참여하게 될 것이다. 2028년에는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인간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인공지능과 인간의 교수 학습 영역이 점점 구분되어 2038년 이후 소수의 사람들만이 전문적 수준의 한국어 학습을 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점차적으로 데이터 기반 접근의 교수-학습 방법은 중요시되고 이러한 데이터의 가치와 활용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표 3 인공지능과 기계번역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전망>

	인공지능 통번역 수준	한국어교육 교수 주체	참고 사항
제1기	입문 수준	한국어 학습 보조	
제2기 (2018년)	1급 수준	인간+인공지능(보조적)	인공지능 통번역 서비스, 인공지능스피커 등장
제3기 (2023년 경)	2-3급 수준	인간+인공지능(참여적)	학습자의 오류 수정, 적극 참여
제4기 (2028년 경)	4-5급 수준	인공지능(주도적) +인간(보조적)	
제5기 (2033년 경)	6급 수준	인공지능과 인간의 교수학습 영역 구분	인간은 미묘한 언어적 차이만 담당, 문화 교육 등을 주로 담당
제6기 (2038년 이후)	전문가 수준	소수의 인간만이 전문적 수준의 한국어 학습을 할 것으로 예상	

(이찬규, 2018: 163)

4.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교육적 활용

4.1. 외적 조건

오디오나 영상 시스템과 언어교육이 만나게 되면서 1950년대 제 2 언어 및 외국어교육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당시에는 시청각 자료들 도입의 찬반과 장단점을 통한 교육적 효과성 등에서 많은 논의를 거쳤을 것이며, 이후 시청각 교육이 언어교육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매체로서 활용되어 왔다는 점을 생각해 본

다면 기계번역과 음성인식 등의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활용은 앞으로의 교육 환경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에 따라 인공 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한 한국어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외적 및 내적 조건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외적인 측면에서 첫째, 국가차원의 표준화된 균형 있는 코퍼스의 구축과 데이터의 공개이다. 이미 많은 영어권 국가에서 대표적인 참조 코퍼스로 활용되는 공개 데이터인 BNC와 COCA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재 연구 및 교수 학습방법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시대에 한국어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어와 구어가 균형 있게 수집된 참조 코퍼스의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현재 국립국어원의 말뭉치는 문어의 비중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서 실제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더해 다양한 장르의 ‘모두의 말뭉치’의 경우는 별도의 승인 과정이 있어야 파일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어서 영어 코퍼스와는 달리 교사 및 학습자가 사용하기에 용이하지 못하다. 즉, 한국어에 특화된 분석 및 학습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은 영어교육에서 활용 중인 프로그램들과 대비해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한국어 분석에 적합한 데이터 기반 프로그램 개발이다. 영어 코퍼스의 경우 BNC와 COCA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기반 웹 프로그램들⁸⁾이 있다. 이를 통해 교사 및 학습자는 교육 자료 및 학습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스스로 탐색할 수 있다. 한국어 코퍼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국립국어원의 경우 ‘용례 찾기’ 페이지⁹⁾를 제공하고 있지만 분석적인 측면에서 BNC나 COCA가 제공하는 정보(품사, 장르, 콘코던스 등)만큼 상세하지 못하다. 한국어의 경우, 영어와는 달리 띄어쓰기로 어휘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어의

8) BNC 기반 프로그램: <https://www.english-corpora.org/bnc/>, COCA 기반 프로그램: <https://www.english-corpora.org/coca/>

9) <https://ithub.korean.go.kr/user/corpus/corpusSearchManager.do>

특성에 맞는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 및 한국어 번역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일부 한국어 번역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구글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국어는 데이터의 전처리가 필요한 언어인 만큼 분석에 적합한 교사 및 학습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즉, 한국어의 단어를 구분하는 형태적으로도 영어와는 특징이 다른 만큼, 한국어만의 특징을 나타내고 구분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프로그램들의 연구가 필요하다.

4.2. 내적 조건

데이터와 기계번역을 통한 한국어교육은 궁극적으로 데이터 기반 접근 교수-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데이터를 통한 외국어 학습은 특히 중급 수준 이상의 언어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Johns, 1991). 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귀납적인 추론 단계를 통해 어휘나 패턴을 ‘관찰(observation)’ 하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언어적 특징들을 스스로 발견하여 ‘분류(classification)’ 하며, 스스로 발견하여 가정한 언어적 의미와 규칙들을 ‘일반화(generalization)’ 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스스로 언어 획득을 한다는 것이다(Johns, 1991).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를 활용한 한국어교육관련 내적 측면에서 필요한 조건은 첫째, 교사 및 학습자들의 언어학습에 대한 인식이다. 데이터 및 기계번역을 활용한 외국어 교수-학습 방법은 ‘제시-연습-산출(Presentation-Practice-Production)’의 전통적인 모형에서 ‘예시-소통-귀납(Illustration-Interaction-Induction)’의 모형이 더욱 효과적이다(Carter and McCarthy, 1995: 155). 이를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한 기계번역과 연결시켜보면 ‘예시(Illustration)’는 한국어 교수-학습에 있어서 실제 데이터의 내용을 예시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고, ‘소통(Interaction)’은 스

스로 관찰을 통해 학습자 간 혹은 인공지능의 활용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며, ‘귀납(Induction)’은 목표언어인 한국어의 특징에 대해 비모(국)어 화자 학습자들이 패턴이나 규칙을 발견하여 일반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교사 및 학습자들은 외국어학습은 결과 지향적인 접근이 아닌 과정 지향적 접근임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 접근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이다.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하는 데이터 기반 중심 학습(data-driven learning)은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것이 기본 요소이므로, 교사 및 학습자들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연습과 훈련이 요구된다. 이상적인 활용은 한국어 코퍼스의 특징을 이해하고 각 학습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교사가 선택하거나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기계 번역과 데이터 기반 프로그램들의 기능과 추출된 결과들의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어휘(키워드, 관용어 등) 학습이 가능하고, 장르(genre)와 문장의 구조나 언어 관계 등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중급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교사는 이러한 학습자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데이터 기반 접근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학습 활동의 개발이 필요하고, 앞으로 더욱 섬세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기계번역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교수법이 필요하겠다. 다시 말해 학습자의 주도적인 한국어 학습을 위해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5. 결론

지금까지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대표적인 활용으로서 데이터와 기계번역을 통한 언어교육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어교육에서 인공지

능과 데이터의 활용의 중요성과 한국어교육의 발전 전망을 제시해 보았다. ICT의 발전과 빅데이터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더욱 온라인 교수-학습과 자기 주도 학습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언어적 특징을 발견하고 이를 추론하여 결론을 만들어가는 방식을 통해 목표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접근은 기계번역과 외국어교육에서 중요하다고 하겠다.

제2 언어 혹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 있어서도 데이터의 규모와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비모(국)어 화자들을 위한 교육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계번역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구축된,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발 중인 한국어 코퍼스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연구가 필요하며, 한국어 교사는 교수-학습을 위한 데이터로서 학습자 수준별 데이터를 선택 혹은 구축하면서 관련 프로그램의 교육과 훈련, 교수-학습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학습자 또한 언어 학습에 있어서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적 접근에 대한 인식이 요구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계번역을 한국어교육의 이론과 방법론에 적극 활용하면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 코퍼스 및 기계번역을 활용한 구체적인 교수 방법론도 추후 연구들을 통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교사 및 학습자의 특성 맞는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과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기계번역과 함께 교실 안에서 활용됨으로써 한국어교육 분야가 ICT의 발전과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권혁승(2008). 코퍼스 언어학의 실제 및 응용, <응용언어학> 24권 3호, 응

- 용언어학회, 1쪽~30쪽.
- 성일호(2007). 코퍼스 기반 어휘 교육 수업안 개발, <현대영미어문학> 25권 4호, 현대영미어문학회, 175쪽~196쪽.
- 안지현(2021).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코퍼스 기반 프로그램의 활용과 의의,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7호,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75쪽~98쪽.
- 오선영(2004). 코퍼스와 영어교육, <외국어교육연구> 7호, 서울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1쪽~38쪽.
- 이문복(2009). 온라인 코퍼스 활용을 통한 영어교사의 영어 쓰기 효과 연구, <영어교육연구> 14권 2호, 영어교육연구학회, 187쪽~208쪽.
- 이성화, 김세현(2018). 영-한 및 한-영 기계번역 품질향상을 위한 프리에디팅 기법 제안, <번역학연구> 19권 5호, 번역학연구학회, 121쪽~154쪽.
- 이운재(2020). 영어자동번역기 활용이 고등학생 영어 글쓰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운재, 이동주(2020). 영어자동번역기 화용이 고등학생 영어 글쓰기에 미치는 영향, <영어교과교육> 19권 2호, 영어교과교육학회, 159쪽~180쪽.
- 이정화(2019). 한국대학생들의 기계번역기 활용 영작문 양상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찬규(2018). 인공지능 시대, 한국어 교육의 방향과 전망,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자료집, 159쪽~164쪽.
- 임형재(2018). 외국인 한국어교육에서 기계번역(AI-MT)의 활용 방안 연구,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8년 추계(제27차) 전국학술대회, 71쪽~80쪽.
- 임희주(2017). 교양영어 수업에서 영어자동번역기 사용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및 태도연구, <교양교육연구> 11권 6호, 교양교육연구학회, 727쪽~751쪽.
- 장애리(2017). 국내 기계 통번역의 발전 현황 분석, <번역학연구> 18권 2

호, 번역학연구학회, 171쪽~206쪽.

- Bennett, G. R.(2010). *Using corpora in the language learning classroom: Corpus linguistics for teachers*.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Chomsky, N.(1962). *A Transformational Approach to Syntax*. Paper presented at Third Texas Conference on Problems of Linguistic Analysis in English, The University of Texas, Austin, 124-169.
- Chon, Y. V., & Shin, D.(2020). Direct writing, translated writing, and machine-translated writing: A text level analysis with Coh-Metrix. *English Teaching*, 75(1), 25-48.
- Clark, D.(2004). <http://www.nwlink.com/~donclark/performance/understanding.html> accessed December 2020.
- Clark, L.(2007). Cognitive sociolinguistics: A viable approach to variation in linguistic theory. *LACUS Forum*, 33, 105-118.
- Desagulier, G.(2017). *Corpus Linguistics and Statistics with R. Introduction to Quantitative Methods in Linguistics*. New York: Springer.
- Johns, T.(1991). From Printout to Handout: grammar and Vocabulary Teaching in the context of Data-driven Learning. *ELR Journal*. 4, 27-37.
- Kendall, T.(2013). Data in the Study of Variation and Change. In J. K. Chambers and N. Schilling (Eds.), *The Handbook of Language Variation and Change*, 2nd edition, (pp. 38-56). Malden, MA/Oxford: Wiley-Blackwell.
- Leech, G., & Candlin, C. N.(1986). *Computers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and research*. London: Longman.
- McEnery, T., & Hardie, A.(2011). *Corpus linguistics: Method, T*

- heory and Prac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avia, H.(2014). Use of corpus to investigate and develop lexical knowledge [PowerPoint slides]. Retrieved from <http://www.slideshare.net/HassanAmmar/hassan-presentation-of-corpus>.
- Rayson, P.(2003). *Matrix: A statistical method and software tool for linguistic analysis through corpus comparison*. Doctoral dissertation, Lancaster University, Lancaster.
- Sampson, G., & McCarthy, D.(2004). *Corpus linguistics: Reading s in a widening discipline*. A&C Black.
- Teubert, W.(2004). Language and corpus linguistics. *Lexicology and corpus linguistics*, 73-112.
- Tognini-Bonelli, E.(2001). *Corpus Linguistics at Work*. Amsterdam: John Benjamins.

필자 소개

성 명 : 안지현

소 속 :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우편번호] 46234

전화번호 : 051-509-5067

전자우편 : ahnji Hyun@bufs.ac.kr

투고일: 2021. 10. 20 / 심사일: 2021. 11. 19 / 심사완료일: 2021. 11. 26

뉴노멀시대의 내용 중심 온라인 외국어 수업 방향 탐색

-Zoom 화상회의 기반 난민전문 및
법정 통역인 연수를 중심으로*-

장니나

(부산외국어대학교)

《목 차》

1. 서론
2. 연구의 배경
 - 2.1. 온라인 수업의 방향
 - 2.2. 내용 중심 교수법(CBI)
 - 2.3. 다문화 사회와 난민
3. 연구 방법
 - 3.1. 연구 자료: 난민전문통역인과 법정통역인
 - 3.2. 분석 방법: 연수 프로그램
4. 연구 결과 및 논의
5. 결론

<Abstract>

Chang, ni-na. 2021. 10. 20. A study on the direction of online foreign language classes based on Content-based Language Teaching(CBI) in the new normal era -Focusing on the training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6084267).

of refugee professional interpreters and legal interpreters based on Zoom video conferencing.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9, 97-119.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online training program for refugee professional interpreters and legal interpreters, and to find out ways to enhance the method of remote collaboration that can be applied to online foreign language classes by accumulating research data that can be used in multicultural education. As a research background with the development of Edu-Tech where technology and education are combined and the online classroom environment due to COVID-19 becomes a new normal, a new approach to foreign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is required. In addition, recently, the Ministry of Justice prepared some amendments to the Refugee Act to deal with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efugee system, which are abuses for extension of stay and the prolongation of judicial procedures leading to refugee recognition review, objection,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due to the rapid increase in refugee applications.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by examining the case of the CBI approach in a way that interpreting classes are conducted while acquiring the contents necessary for a job, the direction that can be applied to the subject-centered classes for foreigners, such as interpreters who are learners who are proficient in the target language, was confirmed. Second, considering that the role of this study is to strengthen knowledge about refugee-related laws, policies, and judicial procedures as well as existing foreign residents in the training program for multicultural social integration experts, and to motivate student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to become interpreters.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 words] Content-based Language Teaching(CBI), Online class, Zoom video conferencing, Refugee professional interpreters, Legal interpreters, Multicultural Social Integration, Refugee law

1. 서론

기술과 교육이 접목된 에듀테크(Edu-Tech)의 발전과 COVID-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환경이 뉴노멀이 되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외국어 학습과 교수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요구되고 있다. 예컨대 다중 언어 교육과 디지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언어와 내용을 총체적으로 습득하는 언어 사용자와 교수자 간의 원격 협업이 온라인 외국어 수업에서 필요한 교육 방법으로 전망되고 있다(Garbarino, S. & Olivier, Ch, 2020:24).

이러한 내용 중심 외국어 수업은 해당 외국어에 능통한 통역 수업에서 자주 활용되는 방법이며 특히 새로운 온라인 외국어 수업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향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거주 외국인 및 난민¹⁾의 언어를 통역하는 전문통역인²⁾을 대상으로 한 2020년에 각각 실시된 법무부와 법원의 다문화 사회통합 온라인 통역 연수 프로그램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 자료를 축적하고 온라인 외국어 수업 환경에 도입될 수 있는 원격 협업의 방법을 내용 중심 접근법(Content-Based Instruction, CBI)에서 전망해보는 것을 세부 목표로 두고 있다.

CBI는 관련 교과목에 중심을 둔 교수요목에 따라 언어와 내용을 분리하지 않고 동시에 가르치는 총체적인 교수법으로서 1990년대

1) 난민은 『난민법』 제2조에 따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2) 난민심사에 활용되는 통역인은 언어 수준에 따라 준난민통역인, 난민통역인, 난민전문통역인으로 구분되며 본 논문에서는 법무부에서 선발된 난민전문통역인과 거주 외국인 및 난민심사 이후의 사법절차에 지원되는 법정 통역인(법원 선발)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후 학습자 중심 교수법의 틀 속에서 과제 중심 교수법과 함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본 교수법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전제조건이 학습자가 지닌 언어 능력이므로 국내의 일반적인 외국어 교육에서는 크게 확산이 되지 못했다. 그렇지만 언어를 도구로 하는 이상적인 외국어 교수 방법이므로 외국인 학생 전용 교과목에 도입한다면 효율적인 수업 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역인을 학습자로 한 다문화 사회 통합 교과목 수업을 연구 방법으로 삼아 CBI의 효과성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통역 수업에서 다문화 사회통합 교과목을 필수로 수강하는 이유는 국내의 난민법 이해와 거주 외국인의 사법절차 공정성과 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인식 때문이다. 최근 법무부는 현 난민제도의 문제점인 체류 연장을 위해 남용하는 사례와 난민 신청의 급증으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³⁾와 이의신청⁴⁾, 행정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사법절차의 장기화에 대해 『난민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⁵⁾ 예컨대,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제5조에 따르면, “난민 신청 단계부터 통·번역 지원 등 난민 신청자가 난민 신청 사유와 박해 상황을 충분히 주장하고 [중략]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본 개정안은 난민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난민의 언어를 통역하는 통역인과 거주 외국인의 범죄를 포함한 난민심사 이후에 발생하는 사법절차 통역을 수행하는 법정 통역인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관련 연수를 의무화하게 한 것이다.⁶⁾

3) 난민인정절차는 난민신청자가 한국에 있는 외국인이거나 외국인이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난민인정심사는 난민이 선택한 언어로 심사를 받을 수 있음.

4) 난민임을 인정하는 결정이 내려지면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받고 난민 불인정을 받은 경우는 난민불인정 결정통지서를 받는데 필요하다면 해당 사유와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5) 법무부 보도자료, 난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https://www.moj.go.kr/>, 총 25쪽.

6) 각 연수는 난민전문통역인과 법원 통역인으로 위촉되기 위한 의무사항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학습자 중심의 특수 목적 외국어 수업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 중심 교수법의 사례를 통해 앞으로 확대될 온라인 수업의 방향에 대한 탐색 및 논의를 열고자 한다. 둘째, 새로운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에 대한 인식을 고려하며 난민과 거주 외국인 관련 정책에 따른 동향을 공유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배경

본 연구의 가설은 우선, 비대면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원격 수업, 연수, 줌 화상회의를 통한 온라인 수업 방법이 외국인 학습자 대상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중심교수법으로 모색하여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다. 이로써 제 2언어 교육, 외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다문화 교육에서 관련 법제를 근거로 한 사회적 동향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및 난민 신청자의 증가 추세에 따른 조치와 향후 다문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권의 계획에 대한 인식 확장에 있다.

2.1. 온라인 수업의 방향

에듀테크의 교수/학습 환경은 COVID-19로 인한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비대면 원격교육과 학습⁷⁾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

에 포함됨.

- 7) 원격교육과 학습에 대한 개념은 블렌디드 러닝, 상호작용, 모바일 학습, 분산학습, 이러닝, 가상학교, 공개교육 등과 혼용해서 사용되는 측면이 있음. 예컨대, 본 연구에서는 “학습 집단이 분리되고 학습자, 자원, 교사를 연결하기 위하여 상호작용적인 전자통신 시스템이 사용되는 기관 기반의 형식교육”의 정의를 제안함. Simonson, Smaldino, Albright, Zvacek(2012), p.34 재인용. Rita C, Richey, 이현우, 임규연, 정재삼, 허희옥 공역 (2020), 교육공학 용어해설, 학지사. p.147.

른 현장 교육은 체계적인 이론과 효율적인 실무에 대한 경험이 필요해지고 있다. 예컨대 외국어 교육에서는 구성주의 접근을 포함한 온라인 교육 설계를 위한 이론적 모델과 실제적 학습이 운용되고 있고 줌(Zoom)을 포함한 온라인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구축되며 테크놀로지를 통합한 지식 전달이 수업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비대면 교육 방법은 대면이 확대되는 사회로 전환이 되더라도 온/오프라인을 절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를 포함하여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그 영향력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온라인 교육과 학습의 시도는 다각도에서 실험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수업 내용에 대한 교수법의 적용이 이루어지고 외국어를 도구로 특수하고 개별적인 교과 내용의 경험 사례를 분석하여 학습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는 이론적인 프레임워크가 절실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어 교수법에서 학습자가 전문적인 내용 영역을 학습함과 동시에 언어를 부수적으로 학습하는 온라인 기반 내용 중심 교수법의 적용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2.2. 내용 중심 교수법(CBI)

본 교수법은 Krashen의 이해 가능한 입력 이론⁸⁾과 Swain의 이해 가능한 출력⁹⁾ 그리고 Cummins의 개인 의사소통 기술을 바탕으로 인지적 학문을 위한 언어 능력 층위 학습 이론¹⁰⁾에서 출발하였

8) 제2언어 학습은 어휘 암기와 문법 학습[형태]이 아니라 이해 가능한 입력[의미]을 받아들일 때 이루어진다는 주장임.

9) 의사소통 능력 학습을 위해서는 언어 산출 즉, 제2언어를 학습자가 직접 사용해볼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10) 통상적으로 1-2년간의 외국어 학습 기간에는 일상생활 대화와 맥락 의존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학습할 수 있는 반면, 외국어 학습이 5-7년 정도 소요되면 맥락 의존도가 낮은 상황에서도 학습자는 분석적인 사고와 가설 설정을 할 수 있고 학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고 보는 주장임.

다. 이후 CBI 초기형태는 1970년대 언어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습할 내용을 통해 언어를 습득하는 원리를 강조하는 방법으로 몰입교육, 이민자 교육, 특수 목적의 언어 교육 등에 활용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적용을 엄밀한 의미의 내용 중심 교수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이론적 정립과 적용은 1980년대 의사소통 접근법의 등장 이후이며, 1990년대에 과제 중심 접근법과 함께 본격적으로 교수 모형이 수업에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달 과정에 따라 오늘날의 CBI는 내용과 언어와의 통합의 정도에 따른 여러 양상의 모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예컨대, 내용 중심에 초점을 맞춘 내용 보호 교수 모형과 언어 중심에 초점을 맞춘 주제 중심 교수 모형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는 병존 언어 교수 모형이 있다.

병존 언어 교수 모형은 언어 과정과 내용 과정을 동시에 학습하는 것으로 본 연구자가 경험한 세 번의 통역인 연수 수업사례와 일치한다. 연수의 구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하여 언어 과정은 통역대학원 교수가 담당하고, 다문화 사회 통합 과정은 법무부 직원의 강의로 진행되어 팀티칭 형식을 갖추었다. 또한 법원이 주관한 법정 통역인 연수에서는 통역대학원 교수와 변호사가 담당하는 과목인 사법절차 등의 내용이 언어와 연계한 수업으로 설계되었다.

2.3. 다문화 사회와 난민

한국은 미래의 다문화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존의 거주 외국인 이외에도 난민을 포함하여 국내 인식과 국제적 정책 차원의 논의를 다각도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다문화 사회전문가 및 관련 통역인 양성 프로그램의 방향성에도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2.3.1. 국제적 연대의 난민법

최근 법무부의 보도자료¹¹⁾에 의하면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1994년부터 난민업무를 시작하였으며 2001년이 되어서야 최초의 난민을 인정하면서 실질적인 난민협약 가입국이 되었다. 이후 2006년에 NGO 단체인 난민 정책 개선 모임의 주도하에 난민법 제정에 대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2009년에는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2013년에는 독립된 난민법이 제정되고 2016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로써 한국은 ‘아시아 최초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난민법 실천에 관한 평가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난민법은 국내 로컬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사안으로 인식되고 국제적인 동향에 따라 2020년 12월에 난민법의 일부 개정안을 제안한 것이다.

현재 유럽연합의 난민 정책은 각국의 독자적인 난민법과 더불어 회원국 간의 공통적인 연대와 대처에 기반한 더블린 조약¹²⁾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 주요 골자는 난민이 첫발을 디딘 나라에서 난민 신청을 해야 하고 해당 국가가 난민 인정심사를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컨대, 프랑스는 18세기에 인권 관련법¹³⁾을 통해 이민자와 난민을 이주민의 틀 속에서 다루고 있으며 현행 이주민법은

11) 『난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위한 보도자료.

12) 1997년에 발효된 이 조약은 이후 개정을 거쳐 EU 28개 회원국과 비유럽연합 4개국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이 전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음.

13) 1793년 6월 24일 제1공화국 헌법을 선포한 프랑스는 시민과 인권을 향유하는 것이 근본임을 주장하며 제1조에서 “사회의 목적은 공동의 행복에 있다. 정부는 자연적이고 불가침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되어야 한다”. 제3조에서는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로 기술되어 있음. 특히 <프랑스 공화국과 외국과의 관계>를 규정한 제118조에서 제121조 중 제120조에서는 “자유를 위해 추방당한 외국인에게 피난처를 제공한다”가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난민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최초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음.

2015년과 2018년 9월 10일에 다시 일부 개정하여 ‘이민, 효율적인 난민, 성공적인 통합’을 목표로 한 법을 시행 중이다.¹⁴⁾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과 연대에서 한국은 난민법을 부분 개정하면서 미래 다문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난민을 포함한 구성원을 확대하고 나아가 국내 거주 외국인 및 난민의 언어와 사법 분야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증가하는 난민 신청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과정과 난민인정 이후의 체류, 취업, 처우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난민 언어를 구사하는 전문통역인의 보수 교육에서 변화되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¹⁵⁾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의 범죄 및 난민심사 이후의 추가적인 사법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에서 선발하는 법정 통역인의 직무와 역할에서도 다문화 사회의 현황과 통계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2.3.2. 한국의 현황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다문화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주요 구성원인 난민에 대한 국내 인식은 인권과 우려 섞인 시선¹⁶⁾이 공존하고

14) 본 법안의 시작은 1945년 11월 2일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관련 규칙이며 1993년부터 2003년까지는 그 어떤 개정도 없이 유지되었고 2005년에 개정됨. 이후 2007년 11월 20일에 다시 일부 개정하여 “이민, 통합, 난민” 관련법으로 재탄생함. 현행 난민법제는 소위 <이주민법>이며 468페이지 분량의 『이주민의 입국과 체류 및 난민법』(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ou CESEDA)임. [https://www.legifrance.gouv.fr/Journal officiel électronique authentifié n° 0209 du 11/09/2018\(pdf 파일 번역\)](https://www.legifrance.gouv.fr/Journal officiel électronique authentifié n° 0209 du 11/09/2018(pdf 파일 번역))

15) 관련 연수에서 법무부 실무자의 강의 중 난민전문통역인의 역할이 난민심사과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 난민의 정착에 대한 언어 지원으로 확대될 것임을 소개함.

16) 2018년 예멘인 500여 명이 제주에 입국하여 난민 신청을 했으며 이를 계기로 난민 수용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음. 예컨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이 올라와 7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듣기도 함.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청원시작

있는 국제사회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¹⁷⁾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난민의 문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안임은 틀림없다.

예컨대 법무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인구의 4.9%에 해당하는 252만 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는 준(準)다문화 사회¹⁸⁾로 법무부가 주관하는 다문화 사회전문가 교육과 더불어 난민전문통역인 교육에서도 난민의 위상을 다문화 사회 구성원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무부는 총 29개 난민 언어에서 205명의 난민전문통역인을 선발·위촉하여 외부 통·번역 기관에 수탁한 뒤 평가 및 보수교육을 통해 통역의 품질 개선에 노력을 기울였다.

동일한 맥락에서 법원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세에 맞추어 그들의 사법 통역을 담당하는 통역인을 선발하고 해당 통역인에게 정기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언어뿐만 아니라 다문화 관련 내용을 인지하는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 통역 수업은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졌으나 2020년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대체되어 원격 수업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언어 교수법이 적용되었다. 이 수업은 통역인으로서 언어 능력 함양뿐만 아니라 특수 목적을 위한 외국어 교육의 일환으로 내용과 언어를 통합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능력 신장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

2018-06-13 청원마감 2018 -07-13]; 참여인원 : [714,875명],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9548?navigation=best-petitions>
“청원 답변 42호” [청원 답변일 2018. 08. 0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answer?page=12>

17) 예컨대, 프랑스의 사회 풍자 주간지인 『샤를리 엡도』에서 모하메드를 풍자한 만화를 게재한 후 발생한 테러 사건과 중학교 역사 교사인 사뮈엘 파티의 살인사건에 대해 대부분 프랑스인들은 충격을 받았고 관용 정책을 허용하는 범위와 원칙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됨. 또한 범인이 이슬람 출신의 난민 청년임을 전격적으로 공개함.

18) 통상 외국인의 비율이 5%를 상회할 때 다문화 사회로 분류되므로 한국은 목전에 있음.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Vol. 51(2020), “숫자로 보는 출입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4-35쪽.

한 상황이다. 이를 위하여 줌(Zoom) 화상회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통역인 대상 원격강의가 설계되었고 본 연구자는 법무부와 법원에서 실시한 연수 프로그램¹⁹⁾을 중심으로 한 경험연구를 관찰하여 연구의 분석 도구로 선정하였다.

3. 연구 방법

본 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첫째, 연구 자료에서는 미래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 형성과 정책에 따른 거주 외국인 및 난민의 언어 통역인 자료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통역-사회 통합 프로그램의 분석에서는 난민전문통역인 대상 2019년 대면 연수와 2020년 온라인 연수를 살펴보고 체류 외국인의 사법 통역을 담당하는 법정 통역인을 대상으로 하는 2020년 온라인 연수도 다룰 것이다. 양 연수의 성격이 통역 언어에서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으나, 내용 측면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다른 양상의 병존 언어 교수 모형으로 고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3.1. 연구 자료:난민전문통역인과 법정통역인

2020년 8월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²⁰⁾에 따르면, 1994년 이후 난민 신청자는 70,254명이며, 심사 결정 종료자는 32,097명으로 집계된다. 이 중 1,063명이 난민인정을 받았고 2,338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총 3,401명이 난민인정(보호)를 받고 있다.

19) 본 연구에서 연구 자료로 활용되는 연수는 다음과 같음:2019년 법무부 주관 오프라인 연수(2019년12월20일), 2020년 법무부 주관 온라인 연수(2020년7월31일), 2020년 법원 주관 온라인 연수(2020년12월7일-12월20일).

20) 자료 출처:법무부.

난민심사를 진행하는 난민전문통역인의 지위는 『난민법』 제14조(통역)과 『난민법 시행령』 제8조(통역)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표 1 난민법>²¹⁾

제14조 (통역)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접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	---

<표 2 난민법 시행령>²²⁾

제8조 (통역)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외국어에 능통하고 난민통역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하 “난민전문통역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난민신청자 면접 과정에서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성(性)의 난민전문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난민신청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능통한 난민전문통역인이 없거나 긴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역하게 할 수 있다. 1. 난민신청자가 사용하는 언어를 다른 외국 언어로 1차 통역하게 한 다음 그 외국 언어를 난민전문통역인으로 하여금 한국어로 2차 통역하게 하는 방법 2. 난민신청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능통한 사람에게 통역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 후 통역하게 하는 방법
	④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통역을 담당한 사람에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특히 시행령에서는 난민전문통역인의 교육에 관해 명시하고 있으며 난민인정 심사²³⁾ 시 예외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

21) 시행 2016.12.20; 법률 제14408호; 2016.12.20. 일부 개정, 출처:법무부
 22) 시행 2016.12.20; 법률 제14408호; 2016.12.20. 일부 개정, 출처:법무부

고 있다. 난민 통역인의 자격이 세 가지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 기준은 해당 언어의 실기 능력이며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역량으로는 정확한 통역을 위해 필요한 배경 지식과 윤리의식이다.

<표 3 자격 상세 기술표>²⁴⁾

자격	정의	실기능력	배경지식	윤리의식	활용여부
난민전문통역인	외국어에 능통하고 난민통역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대화통역, 순차통역, 시역을 내용의 정확성, 도착어의 유창성, 전달력을 갖추고 수행할 수 있다	난민심사, 통역기초, 국제문화에 대한 기초지식을 갖추고 있다	통역인의 역할과 책임, 통역인의 전문성, 난민신청자 중심의 의사소통에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다	활용에 제한이 없다
난민통역인	난민신청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능통한 난민전문통역인이 없거나 긴박한 경우에 난민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통역을 하는 사람	대화통역을 내용의 정확성, 도착어의 유창성, 전달력을 갖추고 수행할 수 있다 순차통역과 시역은 수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대화통역에만 활용하고, 순차통역과 시역 교육을 적극 권장한다
준난민통역	난민신청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능통한 난민전문통역인 또는 난민통역	대화통역, 순차통역, 시역을 수행하는데 내용의 정확성, 도착어의			제한적인 활용 권한 있다. 통역을 위한 언

23) 난민 인정 심사의 의사소통은 난민 면접관, 난민 신청인, 난민 통역인의 면대면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짐.
 24) 출처: 2019년 난민전문 통역인 연수 자료.

인	인이 없거나 긴박한 경우에 난민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에 따라 통역 을 하는 사람	유창성, 전달 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어숙달과 집중 통 역 교육 을 적극 권장한다
---	---	-------------------------------------	--	--	--------------------------------------

다음으로, 사법통역을 담당하는 법정 통번역인의 법적 근거는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²⁵⁾에 있다. 구체적인 자격 인증 기준²⁶⁾에 따르면, 법률 지식 측면에서 법정 통번역, 재판절차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실기 능력 측면에서는 대화통역, 순차통역, 시역에 대하여 통역 내용의 정확성, 도착어의 유창성과 전달력을 갖추고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윤리의식 측면에서는 법정 통번역인의 역할과 책임, 전문성, 재판 당사자 중심의 의사소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끝으로 현장 수행 능력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어야 한다.

이에 따른 법정 통역의 정의²⁷⁾를 준수하는 실제 법정 통역의 현황²⁸⁾을 살펴보면, 2012년 총계 3,243명과 2017년 4,469명으로 외국인 피고인 수가 증가되었고 법정 통역인의 수도 2012년 1,295명과 2017년 1,873명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2016년 자료에 의하면 법정 통역인의 언어는 영어(219명), 중국어(342명), 일본어(219명), 베

25) 개정 2020.1.23. <https://glaw.scourt.go.kr>, 주요 내용으로는 1)피의자에게 번역문을 제공하라. 2)통역 준비를 위한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라. 3)통역·번역인 인증 평가를 실시하라. 4)통역 품질을 확인하라.

26) 법정통역인의 자격 인증 기준은 인증 법정 통번역인(형사)과 준인증 법정통번역인(형사)로 구분하고 있음. 세부적으로는 법적 근거, 정의, 법률 지식, 실기 능력, 윤리의식 그리고 현장 수행 능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27) 사법절차에서 형사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외국인이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 능력의 결여로 의사소통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법정에서 제공되는 통역과 번역 서비스.

28) 출처:2020년 법정 통역인 연수 자료

트남어(131명), 몽골어(98명), 러시아어(76명), 기타어(627명)로 볼 수 있다.

3.2. 분석 방법:연수 프로그램

연구자가 관찰한 CBI 기반 관련 연수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표 4 난민전문통역인 보수교육>(2019년 대면 교육)

시간	내용	비고
1:00~1:50	난민법과 난민정책	배경지식
2:00~3:50	-통역 일반 -대화통역 -시역 -순차통역 -리허설 연습	통역 실기
4:00~5:50	-통역 오류가 심사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 전략 -통역인의 윤리적 태도 (난민 통역인 윤리) -통역인의 현장 행동 분석 -난민 통역인 주의사항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실시된 대면 교육은 법무부의 해당 부처 직원과 통역대학원 교수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이론과 실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궁극적으로는 통역에 필요한 배경지식과 통역 실기 향상이 세부 목적이었다.

<표 5 신규 난민전문통역인 보수교육>(2020년 비대면 교육)

시간	내용	비고
10:00~10:50	난민기초이론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법률 용어의 이해	배경지식
11:10~12:00	난민통역실무 -난민 면접 시 통역인의 참여 -면접 진술 예	통역 실기
13:10~14:00	통역일반 -기초 통역 기법 -통역의 종류	
14:10~15:00	난민통역의 특수성	
15:10~16:00	통역윤리 및 오류사례	
16:10~16:30	평가 및 나누기	

위의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 교육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배경지식 관련 강의는 법무부 회의 디지털 플랫폼상에서 강의식으로 이루어졌고 통역 실기 관련 과목들은 줌(Zoom) 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표 6 2020년 통번역인 교육>(2020년 비대면 교육)

시간	내용	비고 (복습, 수료증)
2020.12.7.~ 2020.12.21	(언어공통)법정통번역 기법	2020.12.7.- 2021.12.21
2020.12.7.~ 2020.12.21	법정통역인 현황 및 직무와 역할	2020.12.7.- 2021.12.21
2020.12.7.~ 2020.12.21	형사재판 절차의 이해	2020.12.7.- 2021.12.21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한 2020년 통번역인 교육은 해당 사

이트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해당 기간에 접속하여 강의를 듣고 시험을 거쳐 수료증을 발급받는 과정이다.

4. 연구 결과 및 논의

우리는 작년부터 온라인 수업에 직면해있고 외국어 교육에서 여러 형태의 수업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탐색해 볼 수 있었다. 예컨대 난민전문통역인과 법정통역인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CBI 이론을 기반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볼 수 있다.

우선, CBI의 장점은 학습자의 직업적인 필요성²⁹⁾이 반영된 내용 영역[다문화 사회통합 교과:난민법, 난민정책, 형사재판]을 학습함과 동시에 언어[통역 교과:이론 및 실제]에 노출되어 실제적 자료[프랑스어로 된 교과 내용 활용 통역 수업]와 유의미하고 맥락이 있는 내용을 통해 통역 연습이 이루어짐으로써 직업적인 내용과 함께 언어 학습을 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CBI 기반 외국어 수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언어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언어와 내용이 통합된 자료 개발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학습자의 언어 능력에 맞게 학습 자료를 제시하여 배경지식 탐구가 필요하다. 본 연수 프로그램은 내용과 언어 교수자가 각각 해당 영역을 담당한 병존 언어 교수 모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한국의 언어 교육에서 CBI를 적용할 때 설계해볼 수 있는 수업 모형이 될 것이다.

29) 해당 통역인의 직무에 따른 역량은 동일한 언어권이라 해도 다른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변이까지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하므로 끊임없이 원어민에 가깝도록 실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고, 난민법과 난민 정책, 난민인정 절차, 형사 재판 절차 등 관련 제반 사항을 공부해야 한다.

특히 언어 교육에서 적용 가능한 교수 모형은 주제중심 수업 활동으로 문자와 구두 언어를 모두 중시하여 학습자의 요구와 흥미에 맞는 내용을 목표언어로 제공하여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고 귀납적인 방법으로 문법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직업이나 목적을 가진 학습자를 위한 특수 목적³⁰⁾의 언어 교육에 효과가 있어 활용도가 높고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수업 방식은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 또는 ‘위드 코로나’ 상황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수업의 유형이 예상되며 CBI의 온라인 언어 교육 역시 하이브리드 교육 방식의 부분적인 적용에 적합한 교육방식이다. 내용을 미리 제시하여 목표언어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지식으로 획득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수 프로그램의 CBI 기반 러닝은 한국의 다문화 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었다. 인구 동향에 따른 장래인구추계³¹⁾를 살펴보면 2050년에 태어나는 신생아 중 다문화 배경을 가진 아기는 25%이며, 당해연도 외국인 주민의 수는 2018년도의 2백5십만(전체 인구의 약 5%)에서 95.2%가 증가된 4백9십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10%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러한 예측에 대비하고자 한국의 다문화 사회통합 전문가 양성 교육에서는 미래의 다문화 사회를 구성할 난민을 포함한 거주 외국인에 대한 관련 법과 정책을 인식하는 교과가 마련되어야 하며 담당 통역인³²⁾의 양성 및 연수에도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우리 지역은 난민 통역인 및 법정 통역인의 연수를 맡은 주요 센터³³⁾이므로 그 필요성은 더욱 증가될 것이다.

30) 무역, 의학, 법학, 여행, 호텔, 제과제빵 등.

31) 출처:2020 법정 통번역인 연수 자료

32) 통역인의 구성 비율에서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해당 외국어의 원어민 또는 이중언어 통역인이 상당수 있고 앞으로 증가할 추세로 보임.

33) 서울, 부산, 광주.

5. 결론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용 중심 교수법(CBI)을 통한 온라인 외국어 수업의 방향을 탐색해보는 것으로서 우리는 다문화 사회 통합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난민에 관한 법제와 정책의 새로운 동향인 난민전문 통역인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의 사법 행정을 담당하는 법정 통역인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관련 연구 자료를 통해서 특수 목적의 언어 교육이 필요한 학습자 수업에 언어와 내용을 통합하는 CBI 기반 교육 방법과 활동 유형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의 배경으로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개념과 향후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언어 교육 방식의 적용 가능성을 진단하고 다문화 사회와 교육의 연구 동향으로서 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난민법을 포함한 거주 외국인의 사법 정책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업에 필요한 내용을 습득하면서 통역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CBI 접근법의 사례를 고찰하면서 목표언어가 능통한 학습자인 통역인처럼 외국인 전용 주제 중심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논문의 역할이 다문화 사회통합 전문가의 양성 프로그램에도 기존의 거주 외국인뿐만 아니라 난민 관련법과 정책, 사법절차에 대한 지식을 강화시키고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통역인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음을 고찰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해 획득한 연구 방법과 결과에 대한 교육적 활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난민의 언어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것을 돕는 관련 법제와 정책에 따른 전문통역인의 역할이 난민심사 절차에서부터 안정적인 통합사회로의 적응까지 확대될 것이며 국내 거주 외국인의 사법 행정 시 언어에 대한 불이익이 없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법정 통역인을 양성하고 교육하는 연수기관이 서울에서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지던 것이 2020년부터는 온라인으로 대체되었고 올해 말부터

는 그러한 교육이 전국의 거점 3곳으로 분권이 되면서 중요성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른 준비로서 외국인 및 다문화 배경 학생의 직업 수요에도 역할을 할 전망이다. 다음으로, 통역인 연수 프로그램에서 내용과 언어를 동시에 가르치는 CBI 방식을 경험하면서 국내 외국어 교육³⁴⁾에 적용하여 자기 주도적인 학습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 주목하여 성공적인 특수 목적의 언어 학습을 위해 여러 모형의 수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이현우, 임규연, 정재삼, 허희옥 공역(2020). 교육공학 용어해설. 서울:학지사.
- 장니나(2010). 프랑스 이민정책에 따른 이민자 언어-문화 교육 상황과 정책에 관한 고찰-, <지중해지역연구> 제12권 제2호, 지중해지역원, 95~114쪽.
- 전학선(2009). 프랑스의 망명권 보장 법제, <외법논집> 제33권 제3호, 1~27쪽.
- 난민통역 보수교육 자료(2019). 서울:법무부.
- 법정통역인 연수 자료(2020). 서울:법원.
- 신규 난민전문통역인 교육 자료(2020). 서울:법무부.
- Actes du séminaire de Québec.(1998). *La gestion du plurilinguisme et des langues nationales dans un contexte de mondialisation*, Canada: Bibliothèque nationale du Québec
- André de Peretti.(1993). *Controverses en éducation*, Paris:
-
- 34)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 영어 교육, 중국어 교육, 일본 교육, 프랑스어 교육 등 제반 외국어 교육이 해당됨.

Hachette

Barel Yves.(1990). *Le grand intégrateur*, Paris: Connexions,
n° 56

Begag Azouz,(2003). *L' intégration*, Paris: Le Cavalier Bleu

Bruno Karsenti, Cyril Lemieux,(2017). *Socialisme et
sociologie*, Paris: Ehes

Dewitte Philippe,(1999). *Immigration et intégration, L' état
des savoirs*, Paris: La Découverte

Durkheim Emile,(1922). *Education et sociologie*, Paris: Félix
Alcan.

Jean-Pierre Cuq, Isabelle Gruca,(2003). *Cours de didactique du
français langue étrangère et seconde*, Paris: PUG

Louis Procher,(2004). *L' enseignement des langues étrangères*,
Paris: Hachette

Louise Dabène,(1994). *Repères sociolinguistiques pour
l' enseignement des langues*, Paris: Hachette

Mayer Nonna,(2016). “Immigrants and politics in France” , <민
족연구> 68호, 44쪽~61쪽

Safi Mima,(2006). “Le processus d' intégration des immigrés
en France. Inégalités et segmentation” , *Revue française
de sociologie* n° 47-1

Sandra Garbarino & Christian Ollivier,(2020), “Pratiques
plurilingues, apprentissage des langues et numérique” ,
Alsic VOL.23 N° 2.

Schnapper Dominique,(1991). *La France d' intégration.
Sociologie de la nation en 1990*, Paris: Gallimard

Tribalat Michèle,(1996). *De l' immigration à l' assimilation.
Enquête sur les populations d' origine étrangère en
France*, Paris: La Découverte

Vallet Louis-André,(1996). “L’ assimilation scolaire des enfants issus de l’ immigration et son interprétation. Un examen sur données françaises” , *Revue française de pédagogie* n° 117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Vol. 51(2020). <숫자로 보는 출입국>, 서울: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texte_lc/LEGITEXT000006070158/ (프랑스 법무부;검색일자 2021년 1월 4일)

<https://www.immigration.go.kr>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검색일자 2021년 1월 11일)

<https://www.socinet.go.kr> (사회통합정보망;검색일자 2021년 1월 11일)

<https://www.hikorea.go.kr> (하이코리아;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검색일자 2021년 1월 12일)

<https://www.moj.go.kr/> (법무부;검색일자 2021년 1월 14일)

<https://www.insee.fr/> (프랑스 국립 통계 경제 연구소;검색일자 2021년 1월 14일)

<https://www.immigration.interieur.gouv.fr/Asile/Le-droit-d-asile> (프랑스 내무부;검색일자 2021년 1월 16일)

[https://www.legifrance.gouv.fr/;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pdf 파일\)](https://www.legifrance.gouv.fr/;Code%20de%20l%27entr%C3%A9e%20et%20du%20s%C3%A9jour%20des%20%C3%A9trangers%20et%20du%20droit%20d%27asile.pdf)(프랑스 법무부;검색일자 2021년 1월 16일)

<https://www.ofpra.gouv.fr/> (프랑스 난민·무국적자 보호사무국;검색일자 2021년 1월 16일)

필자 소개

성명 : 장니나

소속 :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연구소

주소 : 부산광역시 [46234] 금정구 금샘로485번길 65

전화번호 : 010-8884-7213

전자우편 : jazzinred@naver.com

투고일: 2021. 10. 20 / 심사일: 2021. 11. 19 / 심사완료일: 2021. 11. 26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에 기초한 다문화사회 상호간 역차별 정책 대응 다각화 방안 연구*

황미혜

(부산외국어대학교)

《목 차》

1. 서론
2.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에 기초한 다문화사회
 - 2.1. 소수자우대정책과 다문화사회
 - 2.2. 다문화사회에서의 역차별
3.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 사례
 - 3.1.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 현황
 - 3.2.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 사례
4. 다문화사회 상호간 역차별 정책 대응 다각화 방안
5. 결론

<Abstract>

Hwang, mi-hye, 2021. 10. 20. The research of Multicultural Society Between Reverse Discrimination and the Related Policy Measures based on Affirmative Action Policy.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09, 121-144. This paper purposes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NRF-2019S1A5B5A07092779).

to indicate that the affirmative action adopted to increase multicultural society rates in Korean labor market has lost the original meaning of its own, through examining the examples of other countries which had employed affirmative action before Korea did and reviewing scholarly debates about instrumentalizing affirmative action. Affirmative Action is more controversial or more divisive than any other issues in America. Recently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sent Fisher v. Texas At Austin back to the lower court for additional review. The Court held that because the Fifth Circuit did not hold the University to the demanding burden of strict scrutiny articulated in Grutter and Bakke, its decision affirming the District Court's grant of summary judgment to University was incorrect. Affirmative action is originally enacted to reward people who suffered inequality that had been historically reproduced by the discrimination in the past; however, this meaning of compensatory justice has tended to disappear in the process of adopting and applying it in Korean society. Especially, in the America. where the strong effect of neoliberalism on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has existed, affirmative action has been replaced by the instrumental affirmative action or the emphasis on diversity. Affirmative action in Korea has been through similar changes. Also, the primary focus of this paper is on government affirmative action efforts.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 words] Multicultural Society, Affirmative Action, Instrumental Affirmative Action, Reverse Discrimination

1. 들어가기

1960년대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Policy 이하 소수자우대정책)은 미국사회에서 이 정책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편견을 가지게 만들었다. 또한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증가시켜 역차별을 유발시키며, 이러한 역차별은 빈곤한 백인들이 불이익을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염철현, 2017). 이와 같이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 찬반 논쟁에서 현재 한국의 다문화사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서 다문화 배경을 가진 일부 구성원에 대한 지원, 시혜, 예산낭비, 진로 및 취업 등 내국인과의 역차별도 관련 이해종사들의 경험에서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조혜영, 2017).

미국에서 소수자우대정책의 대표적 사례인 대학입학전형은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대학들이 입학에서 다양한 소수인종 지원자에 대하여 우선권을 인정해주면서 시작되었다(이종일, 2019). 이러한 고려가 없이는 지원자 상당수가 입학에 필요한 성적이나 등급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와 같은 소수자우대정책 시행에 있어서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제시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학들은 합헌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입학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합헌을 기준으로 시행하더라도 소수자우대정책과 관련한 역차별은 다양한 소송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미국사회에서 주요한 논쟁이 되어왔다.¹⁾

한편 한국의 다문화사회도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등 소수자가 250만 명에 달하는 등 다문화사회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다(법무부, 2019). 다만 코로나 19 팬데믹(COVID-19 Pandemic)의 영향으로 약 50만 명 정도가 감소되었다(법무부, 2021). 그러나 이민자의

1) 1896년에 발생한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Plessy v. Ferguson): separate but equal라고 판시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 1954년 Brown 판결 등을 들 수 있다.

이동에 있어서 이민을 가로막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민자의 유입은 가속화될 것이다. 세계의 이민정책 동향에서 살펴보면,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Justin Pierre James Trudeau) 총리의 사례만 보더라도 난민 등 이민자 유입에 대한 증가 정책을 대표적인 공약으로 제시하였다(캐나다, 2021). 이러한 캐나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도 이민자 유입에 대한 배제적 정책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다문화사회로 이행 과정은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정책적 접근도 지속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갈등 또한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 접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책적 접근에서 우선은 한국보다 앞서 다문화사회를 경험한 외국의 국가적 경험을 고찰 역시 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에 따른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에 대한 고찰은 한국의 다문화사회에서 정책적 대응 방안의 시사점으로 유의미하다고 사료된다.

2.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에 기초한 다문화사회

2.1. 소수자우대정책과 다문화사회

2018년 다문화정책 제3차 5개년기본계획²⁾의 시행이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진일보가 있었는지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초기 다문화정책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지엽적 및 시혜성 담론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역차별과 반다문화

2) 본 연구에서 다문화정책은 법무부의 이민자정책 5개년기본계획과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5개년기본계획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담론으로 위치가 이동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에 대한 미국의 경험이 관심을 끌고 있으며, 국내에 소개되는 연구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1960년대 미국은 역사적으로 흑인들의 민권운동이 활발하였던 시기였으며, 가장 진보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에서 과거의 역사에서 흑인 및 소수인종을 차별하는 법을 유지하고 있는 주가 많았기 때문에 과거의 차별을 극복하고 시정하는 차원에서 소수자우대정책으로 시작되었다(이종진, 2015).

소수자우대정책은 ‘Affirmative action’이라는 용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직역하면 ‘적극적 조치’를 말한다. 이러한 적극적 조치는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불리우고 있다.³⁾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가 제공하는 국내학술지 논문에서 키워드 ‘affirmative action’에 대한 논문 DB는 총 680건으로 검색되었다. ‘affirmative action’의 키워드를 다시 한국어 번역 키워드를 중심으로 검색하였을 때는 각 논문의 성격에 적합한 용어로 번역되어 사용되었다. 주로 번역되어진 용어는 소수인종우대정책 22건(오대성, 2010; 2011), 소수자우대정책 25건(이종일, 2018; 염철현, 2017) 적극적 평등실현 456건(이재희, 2016; 전은주, 2019)이 검색되었다. 아래의 <표 1>은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의 주요 변천사를 나타내고 있다.

3)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용어 사용에서 인종의 개념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염철현(2013)의 연구에서 정의한 소수자우대정책을 사용하고자 한다.

<표 1 소수자우대정책의 개념>

시기	개념 변화	주요 개념
1960년대	과거차별 보상논리	기회평등, 역사적차별보상
1970년대	보상 논리 제도화	고용의 목표, 이행시간표, 결과의 평등, 배려조항
1980년대	보상 실질 적용과 역차별	집단의 구제는 역차별 (제14조 평등조항 개정)
1990년대 이후	다양성? 역차별?	정치적 올바름(공정성)

출처: 이종일(2019)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 재정리

이와 같이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의 용어는 1961년에서 1963년까지 케네디 정권에서 소수자를 고려하는 의미였다. 그리고 1963년에서 1969년까지 존슨 정권 시기에서는 소수자우대라는 의미로 변화하였다. 레이건 정권(1980년대) 시기에서 비로소 기존의 소수자우대정책이 개정한 헌법 제14조 규정에 위반되는 역차별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역차별에 대한 논쟁은 1990년대 조지 H. 부시 정권 시기에 더욱 강화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의 개념은 시기에 따라 미국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변천하였다.

김혜순(2007)은 한 국가 내에서 다양한 인종과 민족 출신이 함께 어우러져 인종과 민족의 차이로 인해 받는 사회적 차별 없이 누구든 국민 또는 시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라고 정의하였다. 윤인진(2008)의 연구에서는 어떤 사회 범주 안에서 다른 인종이나 민족 집단들의 다양한 문화를 단일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으면서 상호 인정 및 존중하면서 공존하는 사회를 다문화사회라고 하였다. 류지현·김현주(2021)는 다문화사회 등에 관련한 기존 연구자료를 분석하였다. 2007부터 2020년까지의 연구 결과에서 연구 방법으로는 정책 제안, 비판, 다문화사회의 지향점 등을 주장한 규범적 연구가 가장 많았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소수자우대정책이 한국의 다문화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함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2.2. 다문화사회에서의 역차별

역차별이라는 용어가 한국사회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지역주의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 및 노무현 정권에서 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영남소외론과 호남역차별론이 등장한 것과 유사하게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호남소외론과 TK지역차별론이 함께 등장하기 시작하였다(김병선, 2010). 또한 김병선(2010)은 이러한 소외론과 역차별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문화사회에서는 이민자 인적자원을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한국적 산업구조의 한계에 따라 다양한 이민자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는 이민자 구성원 중에서도 국민됨을 전제로 한국에 유입되는 결혼이민자와 그들의 자녀 등은 한국 다문화사회의 주요 정책 대상이다. 이러한 주요 정책 대상은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양극화, 소외, 차별, 심화된 경쟁 등과 같은 다각적인 문제들에 대해 자칫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소수자우대정책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주로 대학 입학정책을 다룬 소수인종에 대한 우대정책을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김춘환, 2013; 염철현, 2011, 2013; 오대성, 2012; 최경호, 2014). 이러한 연구는 소수자우대정책이 할당제 비판과 더불어 다양성 확대의 시각이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 케네디 정부가 ‘Affirmative Ac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Positive Action’ 보다 내용의 전달성이 정책에 좀 더 부합되기 때문에 사용하게 되었다(염철현, 2013).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가 제공하는 국내학술지 자료 중 ‘affirmative action’에 대한 용어 검색에서 논문 DB는 총 680건으로 검색되었다. ‘affirmative action’을 한국어로 번역된 용어를 중심으로 검색하였을 때는 각 논문의 방향으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번역된 용어는 소수인종우대정책 연구 22건(오대성, 2010; 2011), 소수자

우대정책 연구 25건(이종일, 2018; 엄철현, 2017), 적극적 평등 실현 연구 456건(이재희, 2016; 전은주, 2019)이 검색되었다.

미국의 소수우대정책은 역사적 관점에서 교육 및 고용 등에서 배제되었던 소수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증진시키는 정책에 해당되므로 차별적인 취급(preferential treatment)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이종일, 2019).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의 대표적인 주장으로는 찬성입장을 보인 미국시민자유연합(ACLU)⁴⁾을 들 수 있다. 미국시민자유연합은 민권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여성들과 소수인종들에 대한 차별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지만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Plous(1996)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임금이 훨씬 낮았으며, 실업률은 백인에 비해 흑인이 2배 정도 높다는 것을 근거로 소수자우대정책의 지속성을 주장하였다.

반면 소수자우대정책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편견을 가지게 만들어 이분법적인 사고를 증가시켜 역차별을 유발시킨다는 반대론적 주장도 있었다(Plous, 1996). 이는 한국의 다문화사회에서 내국인들의 실업율 증가에 따른 빈곤층의 확대 등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토마스 소웰과 셀비 스틸(Sowell, 1984, Steele, 1992)은 소수우대정책은 소수자가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에 해고가 쉽지 않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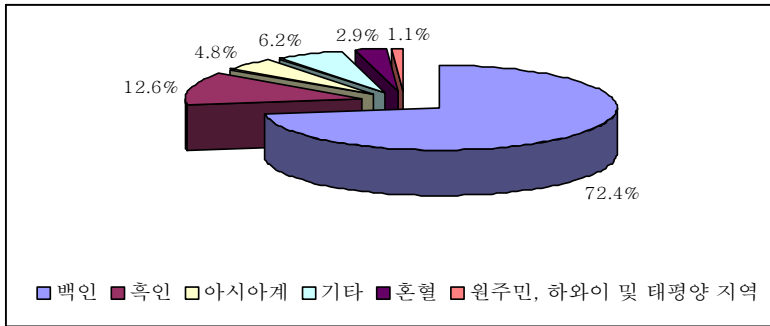
4) 미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 수호를 위해 로저 볼드윈과 다른 이들이 1920년 뉴욕 시에서 만든 조직을 말한다. 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는 비교적 흥미가 없는 소송사건을 맡아 변호했으며, ACLU의 취지에 비용호적인 사람들도 시민의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소송사건의 변호를 맡아주었다(다음백과).

3.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 사례

3.1.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 현황

소수자우대정책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대학 입학정책을 다룬 소수인종에 대한 우대정책을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김춘환, 2013; 염철현, 2011, 2013; 오대성, 2012; 최경호, 2014). 이러한 연구는 소수자우대정책이 할당제 비판과 더불어 다양성 확대의 시각이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케네디 정부가 ‘Affirmative Action’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Positive Action’ 보다 내용의 전달성이 정책에 좀 더 부합되기 때문에 사용하게 되었다(염철현, 2013). 미국에서의 본격적인 사회통합은 1960년대 시민단체에 의해서 인권운동으로 발전되었다. 1961년 케네디 정권 시기에 기초가 마련된 소수자우대정책은 흑인 및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 완화를 위한 일종의 완충 작용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은 미국사회가 단순히 백인으로부터 흑인 등 소수자를 보호 및 교육과 직업 등에 있어 차별 방지에 해당된다.

한편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민자가 유입되기 시작한 1882년의 인구구성을 살펴보면 백인은 전체 이민의 3분의 2를 차지한 구성원은 고트족이었다. 그리고 독일인은 33%, 스칸디나비아인 14%, 영국인 14%, 그리고 약 5%가 대영제국에 속하는 캐나다와 뉴펀들랜드 출신들이 차지하였다. 이에 와스프(WASP: White Anglo-Saxon Protestant) 우월주의로 인해 자연스러운 차별적 배제모형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20세기 초에는 남유럽과 동유럽 이민이, 1965년 이후부터는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계 이민이 주종을 이루었다(김복래, 2009). 아래의 <그림 1>에서는 2010년 인구 통계는 백인이 72.4%에 이르고 있었으며, 다양한 소수민족과 혼혈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27.6%이다.



<그림 1 2010년 미국의 인구구성>

아래의 <그림 2>는 2020년 인구 중 백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2010년에 비해 2020년에는 백인의 비율이 61%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그림 2>에서는 히스패닉 인구의 증가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미국사회도 백인 인구 비율의 감소, 히스패닉 인구 비율의 증가세 등 인구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림 2 2020년 미국의 인구구성>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은 살펴보았듯이 미국사회 내에서 지위가 다소 절하된 구성원을 대상으로 기회와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조치이다. 이 조치를 통해 미국 내 소수자들의 시민적 참여가 높아졌으며, 소수자들에게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가능의 기회 제공이 목적이었다.

3.2.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 사례

미국은 남북전쟁을 거치면서 차별은 점진적으로 개선되었으며, 미국의 불문법 특성에 따른 경향은 판례를 통해 구현되었다. 예컨대 분리하되 평등하다(separate but equal)라는 논리로 흑인에 대한 차별을 인정하던 Plessy v. Ferguson, 163 U.S. 537(1896) 판결⁵⁾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판결은 흑인 및 백인에게 각각의 교육시설 제공은 근본적으로 불평등을 초래하였다. 이를 위헌이라고 판시한 Brown v. Board of Education, 347 U.S. 483(1954)⁶⁾을 통해 결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동 판결은 오로지 인종을 근거로 하여 공립학교에서 아동들을 분리시키는 것이 물적 및 외적인 조건들이 평등하다 할지라도 소수집단의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5) 1896년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Plessy v. Ferguson): ‘분리하되 평등하다(separate but equal).’ 고 판시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로 유명하다. 본 판결은 훗날 미국 연방 대법원의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재판(Bor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 1954년)을 통해 폐기된다.

6) 이 사건의 발생은 1951년 미국 캔자스 주(State of Kansas) 토피카(Topeka)에 살고 있던 8살 흑인소녀 린다 브라운은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1마일 거리의 흑인 대상 학교를 매일 도보로 가야 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린다의 아버지인 올리브 브라운은 집에서 가까운 백인들만 다니는 쉰너초등학교로 전학을 신청하였으나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장이 이를 거절하게 된다. 이와 같은 거절에 몹시 분노한 올리브 브라운은 소송을 하게 된다.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백인 아동과 유색인종 아동을 분리하는 것은 유색인종 아동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그것이 법에 의해 인가된 것일 때 영향은 더욱 커지며, 열등의식은 아동의 면학 의욕을 위축 시킬 수 있다(김기하, 2010). 브라운 판결의 역사적 결정은 당시 알 위런 대법원장이 빠른 기간 내에 남부에 존재하고 있던 불평등한 인종분리 교육을 통합하라고 주 정부에 명령하였다. 그러나 남부의 주에 속한 백인학교 약 3천여 개 중 약 600개 정도가 통합한 것에 불과하였다. 브라운 판결은 공교육이라는 한계에서 공공시설 및 공공장소의 인종분리까지는 폐지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브라운 판결은 인종차별 철폐 역사에 있어서 큰 획을 그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당시 청구인 측 변호사였던 더굿 마셜(Thurgood Marshall)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 연방 대법관의 위치에 올랐다.

이후 1960년대에 이르러 구체적으로 Bakke 사건, Weber 사건, Wygant 사건, Scott 사건 등에서 차별은 배제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다문화사회에서 상호간 역차별 정책 대응의 다각화 방안의 시사점을 찾고자 미국의 Bakke 사건, Weber 사건을 사례로 다루어보고자 한다. 이는 흑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확인하고 차별 금지를 낳게 한 판례이다.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통합을 강제한 것으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3.2.1. Bakke 사건⁷⁾

Allan Bakke(이하 Bakke) 사건은 미국의 백인 남성이 캘리포니아대(UC-Davis) 의과대학에 낙방하여 불합격취소청구를 대학을 상

7) 대학입학정책에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위헌여부가 처음으로 다투어진 사건으로 1978년 *In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v. Bakke* 판결9에 해당된다(최희경, 2019).

대로 요구한 소송에 대한 사건이다(오대성, 2010). Bakke는 1973년과 1974년 각각 의과대학에 지원했지만 모두 불합격하였으며, 자신보다 낮은 점수의 소수인종 학생이 합격하였던 것이다. 그 당시 캘리포니아대학은 소수인종 지원자들을 위해 소수자우대정책을 적용하여 할당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1978년 4월 아슬아슬한 표차이로 UC-Davis 의과대학의 소수인종우대정책에 대해 일부 지지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그 대학이 시행하고 있는 절대적 할당제(rigid quotas)는 연방 민권법 6조에 위반되므로 원고(Allan Bakke)의 입학을 허가하였다.

이 판결에서 루이스 파우웰(Powell)판사는 대학 구성원의 다양성을 위해 인종을 하나의 전형요소로서 고려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인종에 따라 일정한 수를 할당해 놓은 절대적 할당제(rigid quotas)는 위헌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위해 인종을 전형요소 중의 하나로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결국 소수자우대정책에 대한 제한적 합헌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판결은 소수자우대정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올바르게 않은 할당제의 방식에 대해서는 그 대안을 마련하라는 의미에 해당된다. 이후에 여러 대학에서 할당제의 대안으로 가산점제를 비롯한 각종 소수자우대정책의 방법을 시도했으나, 이러한 가산점제도도 나중에 위헌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

3.2.2 Weber 사건

미국의 Kaiser 알루미늄 화학회사(Kaiser Aluminum & Chemical Corporation 이하 Kaiser)는 단체교섭에 따른 합의가 진행되었다. 이는 철강산업 전체에 있어서의 고용차별 철폐 합의에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다. Kaiser의 흑인노동자 채용목표는 Kaiser의 공장이 위치한 지방의 노동인구 중 흑인이 차지하는 비율과 같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흑인노동자와 백인노동자를 위한 저숙련노동자의 직

업훈련 프로그램이 공장 내에 만들어졌다. 이러한 저숙련노동자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과정을 완료해야만 숙련노동자로 취업이 되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근무 연수(seniority) 순서로 들어갈 수 있었으며, 50%의 자리가 백인들에게 열려있었다.

Kaiser가 이러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시행되었던 시행된 연도에 흑인 7명, 백인 6명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가자가 선발되었다. 이 당시 흑인 7명 중 최단기 근무자는 참가신청이 거부된 백인 중의 한 사람인 Weber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이 Weber는 Louisiana주 Gramercy시에 위치한 Kaiser에 고용된 저숙련 백인노동자로서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백인신청자들보다는 근무연수가 적었으나, 흑인노동자들보다는 근무연수가 많았다. Weber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인종차별적인 선발기준이 고용 등에 있어서의 인종차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1964년의 민권법 제7조(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에 위배되어 위법이라 주장하였다.

Weber는 Kaiser와 노동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변재옥, 1992). Weber 사건에 대한 대법관의 다수의견은 민권법 제7조에 대한 Weber의 해석은 자의적인 것으로 옳지 않다는 것이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저숙련노동자를 위한 종래의 전통적인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사적(私的) 집단’에 의해 ‘자발적으로(voluntarily)’ 채택된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Weber는 패소판결을 받았으며, 민권법 제7조가 소수인종들에게 대한 어떠한 우선적 처우도 금하고 있다는 Weber의 주장을 연방대법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소수자우대정책이 백인노동자의 이익을 불필요하게 구속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다. 또한 흑인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백인노동자 해고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며, 백인노동자의 승진을 영구적으로 금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인종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인종적 불균형을 단지 시정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그간 소수인종들에게 제한되었던 직업군들에서 드러나는 인종적 불균형을 제거하기 위해 고안된 소수자우대정책 조치에 해당된다. 즉 자발적으로 채택하려는 사적 영역들에게 민권법 제7조가 남겨놓은 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김영환, 1992).

4. 다문화사회 상호간 역차별 정책 대응 다각화 방안

본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소수자우대정책의 사례들을 근거로 한국의 다문화사회 상호간 역차별 정책 대응 다각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019년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 학생이 2%로 늘어났으며, 향후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특히 농어촌국제결혼이 급증해온 만큼 지역대학의 준비가 시급하다고 발표하였다(교육부, 2018). 고른기회전형(정원내)이나 사회통합전형(정원내), 사회배려대상자전형(정원외) 등을 확대하는 추세다. 다수의 국립대와 교대를 중심으로 법학전문대학원까지 다문화가정 자녀를 배려한 입시전형을 늘려 이들에 대한 입시 문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 소수자우대정책은 열악한 위치에 놓인 사회적 약자에게 과거의 차별에서 오는 불평등한 처우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이다. 미국에서 논쟁이 심한 쟁점 중의 하나로 특히 고등교육 분야는 이러한 논쟁의 중심이 되어 왔다.

국내 주요 29개 대학 중에서 23개 대학이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대학입학전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사회배려대상도 함께 지원하는 구조이다(김빛나라 외, 2020). 이러한 구조라고 할지라도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대학입학전형 우대정책은 대학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⁸⁾ 한국의 대학입시전형에서 다문화가정자녀가

8) 2018년 기준 23개 대학 다문화가족 자녀 특별전형 모집인원 669명이다.

선택할 수 있는 특별전형도 확대되는 추세로 2019년 다문화가정 자녀 특별전형 대학 수는 고려대, 서울고대, 이화여대 등 72개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22년까지 다문화가정자녀들이 공직에 진출할 기회를 열어준다는 계획도 진행되고 있다(공무원채용법정부 계획, 2019). 또한 안산시는 2019년 11월부터 이민자 아동 누리과정 학비지원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자녀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내국인 학생들과의 역차별 우려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들은 편견과 차별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18).

2021년 11월 기준 이민자 수가 약 200만 명 정도를 넘어 국내 총인구의 약 3% 정도에 달하고 있다. 또한 2015년 한국경제(10.15) 보도에서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되면 2030년엔 이민자주민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며, 총인구 대비 10.2%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따라 김세현(2018)은 다문화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화 양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다문화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체류 유형이나 유입 형태 및 다양한 국적과 배경, 한국 내 거주지역의 변화와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결과이다. 이와 같은 이민자의 증가에서 취업비자를 가지고 유입되는 구성원 중 외국인근로자(E-9)들은 고용허가제에 의해 유입이 되어 순환형태에서 조금씩 거주가 장기화로 완화되어 가고 있다. 물론 장기화 대상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외국인근로자들의 한국사회에서 장기화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표 2 한국 다문화사회의 소수자우대정책>

특 정 소 수 자	정책방면	내용	우대	사례
	대학입학 전형	다문화가족 자녀 배려	정원 외 3% 할당	대학입학 선발
	산업현장	취업 근로자 기간 완화	4년 10개월 2회 취업 가능	성실근로자 취업 제도

출처: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 재정리

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의 동향에서 나타나듯이 대학 입학전형에도 다문화가정자녀 특례 및 재외국민 특례, 북한이탈주민 특례⁹⁾ 등의 제도 또한 일정 비율의 범위 내에서 정원을 충원하는 것은 소수자우대정책의 하나의 사례가 된다.

한국의 다문화사회 정책은 이미 3차 5개년 기본계획정책을 시행하여 2022년이면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향후 4차 5개년 기본계획정책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한국의 소수자에 대한 우대정책과 역차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학령기 진입과 대학입시 및 취업 등에서 소수자우대정책이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학력 취득, 법무부의 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하여 한국어, 한국사회이해 등의 학습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한국어가 유창해짐에 따라 고용시장으로의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의 관점에서 본다면 향후 역차별의 논란도 야기될 수 있다.

전홍주 외(2017)의 연구에서는 사회배려자 전형의 한 종류인 기회균형선발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과정을 알아보아 이학 전형의 특성을 고려한 추후지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국제결혼의 영향으로 2020년 전후로 다문화가정자녀의 대학 진학이 본격화되어 가고 있다. 대학은 2007년 입학사정관 전형제도의 시범실시 및 도입

9) 북한이탈주민 전형은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에 해당된다.

이 되었으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크게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된다. 이 두 가지 전형 중에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전형은 특별전형이다.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정의된다.

다문화가족 자녀는 대다수가 수시모집 정원 내의 특별전형 중 대학의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과 고른 기회 특별전형에서 선발된다. 반면 특별전형은 고교졸업 및 예정자 학력을 소지하였다면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전형과는 다르게 적용된다. 특별전형은 별도의 지원자격을 설정하여 특정 대상 수험생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말한다.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제고를 위해 2016학년도부터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를 위한 정원 내 고른 기회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특성화고를 졸업한 재직자 및 특성화고 졸업자, 지역인재, 만학도, 주부, 농어촌·도시벽지학생, 서해5도 학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도 이에 해당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에서 정원 내 고른기회 특별전형으로 전국 9개 대학에서 285명이 해당되었다. 정원 외 고른기회 특별전형은 157개 대학에서 4,517명의 저소득층 학생을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부모의 이혼, 사별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이와 같은 입시전형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다변화 되어가는 다문화사회에서 대학의 다양한 입시전형 우대 대상은 다문화사회에서 간과할 수 없다. 이는 미국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소수자우대정책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는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소수자 우대정책 사례인 Bakke 사건과 Weber 사건은 미국의 소수자 우대정책에서 비교적 초기 역차별에 대한 사례로 한국의 다문화사회 고찰을 야기한다.

한편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대안교육 다변화 정책에 흐름에 따

라 대구의 달구벌고등학교에서 2018학년도 입학전형에 30%를 다문화특별전형으로 도입하고 있는 최초의 입학전형이라 할 수 있다. 달구벌고등학교는 대구 유일의 대안 특성화고등학교로 모집인원 40명 중에 30%인 12명의 다문화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한민국에서 졸업한 대상으로 한국어 구사능력에 문제가 없는 다문화가정 자녀는 지원이 가능하다. 취업 분야에서는 2018년 이스타항공 공개 채용에서 다문화가정 특별전형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특별전형은 국제노선 취향 확대로 제2외국어 가능자에 대한 수용 증대와 이민자 고객들의 편의 제공 확대를 위한 것이다. 즉 소수자우대정책 이론(Affirmative Action Theory)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을 완화시키고 있다.

5. 결론

기존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연구는 주로 다문화가족지원, 복지, 생애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른 본 연구는 소수자우대정책을 기초한 다문화사회 상호간 역차별에 관한 연구는 새로운 학문 영역의 지평 확대가 기대되는 연구로서 학술적 관심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Policy) 사례인 Bakke 사건과 Weber 사건은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에서 비교적 초기적 역차별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미국의 사례는 대학입학전형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 및 취업 등에 대한 특례 정책 결정에 있어서 한국의 다문화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존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다문화사회 상호간 역차별 확산 방지 예방은 지역 및 소수자 구성원 특성에 부합하는 다각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다문화사회에서 상호간 역차별에 대한 예방 차원에 정책적인 접근이

무엇보다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정책적 접근 중 하나는 지자체 내에서의 다문화사회에 따른 언론홍보 등 매체를 통한 올바른 홍보정책도 필요하다. 또한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사회 교육, 즉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별에 앞서 고찰한 내용에 대한 시간 등 추가 보완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사회에서 중앙부처의 정책적 대응과 함께 지역적 차원에서 다각적인 방안의 대응 전략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 김경근·심재휘·김술(2019). 입시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에 대한 한국인의 여론 지형 및 그 영향요인, <교육문화연구>, (25)6호, 5쪽-28쪽.
- 김병선(2010). 차별과 역차별의 변주곡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영호남 신문에 나타난 지역주의 보도 행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언론과학연구>, (10)4호, 40쪽-65쪽.
- 김빛나라·주철안(2020). 사회배려대상을 위한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연구 : 다문화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4호, 227쪽-247쪽.
- 김승철(2017). 중소규모 기업 구성원 상호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구성주의적 컨설팅 사례연구, <분쟁해결연구>, (15)2호,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5쪽~35쪽.
- 김연진(2003). 차별의 시정인가, 우대인가: 소수세력차별시정정책(Affirmative Action)과 그에 대한 논쟁, <미국사연구>, 18호, 159쪽-185쪽.

- 김영환 (1991), “적극적 평등실행조치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순(2007).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 - 최근 다문화담론의 사회학, <한국사회학>, (42)2호, 36쪽-71쪽.
- 김혜순(2017). 국내외 정책 환경을 감안한 다문화가족정책 조정방안: 다문화인식개선사업 재고와 주류화, <입법과 정책> 9호, 31쪽-55쪽.
- 곽선화(2015).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여성고용 효과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A 적용사업장을 중심으로, <인적자원관리연구>, (22)5호, 73쪽-92쪽.
- 류지영·정유리·전미란(2020). 사회통합전형 과학고등학교 입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창의정보문화연구>, (6)1호, 1쪽-13쪽.
- 류지현 김현주(2021). 한국의 다문화연구 경향 고찰, <인문과학연구>, (42), 29쪽-51쪽.
- 문미경(2014). 적극적 조치 방향성에 대한 논의, <젠더리뷰>, 35호, 69쪽-73쪽.
- 변재옥(1992), 積極的 平等實現措置에 관한 判例, 미국헌법연구, (3), 27쪽-53쪽.
- 신지원·류소진·이창원(2020). 구조적 인종주의와 인종불평등: 미국 내 최근 인종문제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20)4호 41쪽-80쪽.
- 심양섭·김지영(2016). 국내 다문화 혐오증의 원인과 극복방안,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 8호, 1쪽-31쪽.
- 심지수·김혜숙(2018). 적극적 조치에 대한 찬성 태도 이끌어내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2)2호, 23쪽-45쪽.
- 심재휘·김술·김경근(2020). 고등학생의 가정 및 학교 내 사회자본과 입시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에 대한 태도: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30)2호, 43쪽-73쪽.

- 엄철현(2013). 소수자우대정책의 최근 동향 및 시사점: 미국과 브라질의 사례를 중심으로, <教育 法學 研究>, (25)2호, 109쪽-134쪽.
- 엄철현(2017). 주헌법(州憲法) 개정을 통한 소수자우대정책 금지에 따른 법적 논쟁과 전망: Schuette v. Coalition to Defend Affirmative Action(2014)을 중심으로, <教育 法學 研究>, (29)4호, 97쪽-119쪽.
- 오대성(2010). 미국의 고용관계에서 소수인종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法學論叢>, (17)호, 157쪽-181쪽.
- 오대성(2011). 미국의 대학에서 소수인종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법학논총>, (31)3호, 641쪽-671쪽.
- 윤자영(2016). 2016년 여성 노동시장 평가, 한국노동연구원.
- 은수미(201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7년째 무시한 기업·공공기관 361곳, <은수미 의원실 보도자료>.
- 이수연(2016). 고용상 구조적 차별의 시정과 적극적 조치: 캐나다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8)2호, 193쪽~240쪽.
- 이승협(2016).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효율성 개선방안 연구, <여성연구>, (90)1호, 7쪽~43쪽.
- 이영민 외(2014). 201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양성평등 컨설팅트 양성과정 개발 연구, <노사발전재단>.
- 이종일(2019), 한국 소수자우대정책의 특징 고찰, 사회과교육연구, (26)3호, 1쪽-20쪽.
- 이재희(2016). 헌법적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통한 사회적 차별의 해결방안에 대한 검토, <안암 법학> (50), 159쪽-197쪽.
- 전은주(2019).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위헌심사기준에 대한 검토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486)20호, 8쪽-27쪽.
- 조혜영(2017). 다문화가족 지원과 역차별 이슈 인식 고찰: 취약집단 서비스 담당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 (11)3호, 135쪽-159쪽.
- 조혜영(2017). 다문화청소년 진로 지원 개선 방안 모색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11호, 689쪽-699쪽.
- 조혜원 · 함인희(2016), 기업관리직의 젠더 격차와 “유리천장” 분석, <한국사회정책>, (23)2호, 49쪽-81쪽.
- 최희경(2019). 미국 대학입학정책에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위헌성여부. <世界憲法研究>, (25)2호, 97쪽-129쪽.
- 하재봉 (1992),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판례, <미국헌법연구>, 3호, 27쪽-53쪽.
- Beckwith. F.J and Jones. T.E(1997). *Affirmative: Action-Social Justice or Reverse Discrimination*, NY: Prometheus Books.
- Kurtulus, Fidan A(2012). “Affirmative Action and the Occupational Advancement of minoritics and women during 1973-2003”, *Industrial Relations*, 51(2), pp. 213-245.
- L. Sigelman and F. Welch(1991). *Black American' s views of racial linequality*,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bharwal, Meghna(2013). “From Glass Ceiling to Glass Cliff: Women in Senior Executive Servi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25, pp. 399-426.
- Shelby Steele(1990). *The Content of Our Character: A New Vision of Race in America*, New york: St. Martin's Press, 20.
- Thomas, Sowell(1984). *Civil Rights: Rhetoric or Reality*. New York : W. Morrow. 33(60).
- Torres, Gerald(2015). “Neoliberalism and Affirmative Action”, *Cultural Dynamics*, 27(1), pp. 43-62.
- Sax, L. J. & Arredondo, M. (1999). *Student attitudes toward affirmative action in college admissions*.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40(4), pp. 439-459.

Knight, J. L. & Hebl, M. R. (2005). *Affirmative reaction: The influence of type of justification on nonbeneficiary attitudes toward affirmative action plans in higher educ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61(3), pp. 547-568.

<웹사이트>

다음백과: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08m1293a>
(2021. 08.21. 14:05 검색)

미국 인구통계국(2010), <http://2010.census.gov/2010census/data>
(2021. 09.11. 13:50 검색)

미국 인구통계국(2020), <http://2020.census.gov/2020census/data>
(2021. 09.11. 22:00 검색)

필자 소개

성 명 : 황미혜

소 속 :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언어문화전공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샘로485길 65 [우편번호]46234

전화번호 : 010-2601-9168

전자우편 : hmh68@bufs.ac.kr

투고일: 2021. 10. 20 / 심사일: 2021. 11. 19 / 심사완료일: 2021. 11. 26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9집 휘보 (2021.9 ~ 2021.11)

■ 제9집 편집위원 회의 제2차 회의

- 1) 일시: 2021년 9월 30일(목)
- 2) 장소: 온라인
- 3) 참석자 : 황미혜 편집위원장 외 편집위원 6명
- 4) 회의 안건 및 보고
 - ① 논문 접수 현황 및 점검(1차 기한 연장)
 - ②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구성

■ 제9집 편집위원 회의 제3차 회의

- 1) 일시: 2021년 10월 11일(월)
- 2) 장소: 온라인
- 3) 참석자 : 황미혜 편집위원장 외 편집위원 6명
- 4) 회의 안건 및 보고
 - ① 논문 접수 현황 및 점검(2차 기한 연장)
 - ②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구성

■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회의

- 1) 일시: 2021년 11월 2일(화), 20:00 ~ 21:00
- 2) 장소: 온라인

- 3) 참석자: 권오경 회장 외 임원 10명
- 4) 회의 안건 및 보고
 - ① 3차 학술대회 및 4차 국제학술대회 개최 계획
 - ② 논문집 추가 발간(3회)
 - ③ 총서 발간
 - ④ 회원 관리 현황 및 회원 확대 방안
 - ⑤ 월례회 개최 외

■ 제9집 편집위원 회의 제4차 회의

- 1) 일시: 2021년 11월 8일(월)
- 2) 장소: 온라인
- 3) 참석자 : 황미혜 편집위원장 외 편집위원 6명
- 4) 회의 안건 및 보고
 - ① 논문 접수 현황 및 결과
 - ② 심사위원 결정

■ 제9집 편집위원 회의 제5차 회의

- 1) 일시: 2021년 11월 26일(금)
- 2) 장소: 온라인
- 3) 참석자 : 황미혜 편집위원장 외 편집위원 6명
- 4) 회의 안건 및 보고
 - ① 게재 논문 결정 및 윤리위원회 규정 위반 논문 심사
 - ② 편집위원회 세부일정 최종 점검 및 확인
 - ③ 제9집 발간 최종 일정 점검

■ 2021년 3차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

- 1) 일시: 2021년 11월 27일(토), 1:00 ~ 19:00
- 2) 장소: 실시간 zoom 활용 + 온라인 게시형 발표(Google Drive)
- 3) 주제: 비대면사회에서의 다문화사회 정책 지원 방안
- 4) 개인발표: 총 10편 발표(주제특강 1명, 주제발표 5편, 자유발표 4편)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MSES : The Association for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간 협력을 통해 다문화사회교육 연구 분야를 선도하고 다문화연구 전문가의 상호교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다문화사회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3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개최
2. 학술지 발간
3. 위탁 연구사업 수행
4. 해외 및 국내 관련학회와의 교류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위치) 본 학회의 본부는 회장의 소속기관이나 회장이 지정한 곳에 둔다.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1. 일반회원: 다문화사회, 다문화교육 및 한국문화, 한국문화교육, 한국어교육학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과정 이상의 연구자 및 일선학교 교사, 교육전문직의 개인
2. 평생회원: 평생회비를 납부한 일반회원
3. 기관회원: 학교, 연구소, 학술단체, 도서관 등의 기관으로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단체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학회활동과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기관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학회 회칙 준수 및 규정의 이행
2. 입회원서와 입회비, 소정의 회비(연회비, 평생회비) 납부 이행

제7조(자격 상실)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학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8조(임원) 본 학회 임원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종류) 회장(1인), 부회장, 이사, 해외이사, 감사
2. (임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학회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 시 회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③ 이사는 각 분야별로 아래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총무이사: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 및 실무 총괄

편집이사: 학술지 발간 기획 및 편집

연구이사: 학술연구 및 학술대회 개최 기획 및 운영

섭외이사: 학회 활동에 필요한 제반 섭외 업무

출판이사: 학술지 출판 및 배포

정보이사: 학회의 정보망 구축 및 관리

지역이사: 각 지역에서 본 학회를 대표하는 업무

해외이사: 해외 현지에서 본 학회를 대표하는 업무

감사: 학회의 재정운영 감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제9조(임기)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0조(선출)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외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4장 회의

제11조(총회)

1. 총회는 회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임원의 과반수 혹은 재적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① 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
 - ② 회칙 개정
 - ③ 기타 회계 및 예산, 결산 승인
 - ④ 기타 학회 활동과 관련된 주요 사안

제12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는 본 학회 활동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13조(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연구윤리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감독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논문의 투고자,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와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을 제정하고 관장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와 별도로 운영한다.

제14조(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및 학회 출판물의 편집과 발간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한다.
2.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장 재정

제15조(재정수입)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찬조금, 외부 지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16조(회비) 본 학회의 입회비 및 연회비, 평생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차기 총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

제17조(회계기간 및 회계보고)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를 편성하여 학회 감사의 감사를 받는다. 감사는 총회에서 이를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부칙]

1. 본 회칙은 이사 2/3 이상 또는 회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2. 본 회칙에서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심의 후 정한다.
3. 본 회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4. 본 회칙은 201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5. 개정된 회칙은 201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편집위원회는 다문화연구소의 학술논문집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의 발행을 위해 구성되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제2조(구성)

편집위원회는 연구소장 및 운영위원이 관련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3조(편집위원장 선출)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여 소장이 임명하며, 편집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편집위원장 임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회회)

위원회는 연 2회 이상의 편집위원회 회의를 가지며,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할 시 성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6조(편집위원 자격 및 임기)

편집위원의 자격과 임기는 다음의 주요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 (1) 편집위원의 자격은 대학의 조교수 이상이거나 교육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다문화 관련 기관장으로 한다.
-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편집원칙)

편집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주요 사항을 논의한다.

- (1) 접수된 투고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과정을 진행한다.
- (2) 위원장은 심사를 마친 논문을 접수받아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 “학회지 논문제출 및 작성요령”에 합당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심사자의 심사평에 의거하여 수정된 논문의 완성도를 평가한 후에 최종적으로 게재될 논문을 선정한다.
- (4) 동일 필자의 3회 연속 게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제8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9조 이 규칙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연구윤리규정

제1조 (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은 부산 외국어대학교 다문화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와 각종 출판물에 관계되는 연구결과물에 대한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에 투고한 논문투고자와 편집위원, 심사위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윤리규정 서약)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편집위원회는 특집 논문을 접수할 때는 윤리규정을 함께 공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논문 투고자나 편집위원, 심사위원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회장이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이를 공개한다.

제5조(저자의 책임과 의무)

① 논문투고자는 사용하는 자료의 위조, 변조, 표절, 중복투고, 부당한 저자표기 등 제반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 관계를 분명히 하고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6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전 연구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을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6.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부당행위를 말한다.

제7조(편집위원회의 윤리규정)

- ① (책임)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 ② (공정한 심사의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제8조(심사위원의 윤리규정)

- ① 심사위원은 위촉된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9조(연구윤리위원회)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5인 내외, 간사 1인을 둔다.
- ②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이 윤리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출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조사하고,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의결한다.
-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에게 비공개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⑥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⑦ 연구윤리위원회가 제재를 결정한 경우,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게재의 불허,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학술지 게재의 소급적용 무효화, 향후 5년간 본 학술지의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 ⑧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재를 결정한 이후 그 사실을 공식적 연구업적 관리기관에 통보하며,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제10조

-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학계의 관례에 따른다.
- ② 연구윤리규정 수정은 본 연구소 규정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논문투고규정

1. (게재 원칙 및 논문 종류)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은 다문화사회 및 교육 전반에 걸친 학문분야의 학술논문으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2. (발간 횟수 및 원고 모집 시기)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학술지는 연 3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발간 시기는 2월 28일, 8월 30일, 11월 30일로 규정한다. 원고 모집 시기는 논문 발행 2개월 전까지로 한다.
3. (투고 자격) 다문화사회, 다문화교육 및 한국문화, 한국문화교육, 한국어교육학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연구자 및 일선학교 교사, 교육전문직이어야 한다.
4. (논문 분량) 투고 논문은 학술지 논문 규정 분량으로 20매 이내이어야 한다.
5. (논문 심사 방법)
 - ① (논문 접수) 투고된 논문은 반드시 본 학술지 논문 투고 규정에 맞게 작성되어야 한다.
 - ② (심사위원회 구성)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을 전공별로 분류하여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동일 분야 전공자 각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논문 심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비밀로 지켜져야 한다.
 - ③ (심사 절차 및 결과 통보) 편집위원장은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해당 논문과 심사의견서를 보낸다. 이때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논문투고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조치한다. 위촉된 심사위원은 초심 15일 이내, 재심은 7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그 외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과 절차는 본 학술지 심사규정에 따른다.

6.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① 논문 투고 시, **입회비 1만원(최초 1회)과 연 회비(매년 1회) 2만원**을 학술지 통장으로 내어야 한다.

② 논문 투고 시, **논문 심사료 6만원**을 학술지 통장으로 내어야 한다.

③ 게재가 확정되면 **게재료**를 학술지 통장으로 내어야 한다.

-게재료 : 전임 10만원 / 비전임 5만원 / 연구비 지원 논문 20만원

④ 초과 게재료는 **편집 기준(20매 이내) 초과 한 페이지 당 1만원**을 학술지 통장으로 내어야 한다.

⑤ **평생회원은 회비 50만원**을 학술지 통장으로 내어야 한다.

7. (논문 저작권의 양도) 심사 후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논문의 저작권에 대해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연구소의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8년 4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조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임원 명단

회장	권오경(부산외대)
부회장	박형준(부산외대), 신유진(부산외대), 이도경(인제대)
감사	이필숙(부산외대), 이리경(동명대)
총무이사	박정미(부산외대)
총무간사	함윤주(양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편집이사	황미혜(부산외대)
편집간사	김남희(동아대), 김혜빈(동아대)
편집위원	황미혜(위원장), 이성순(목원대), 기준성(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이진석(동아대), 정명숙(부산외대), 조위수(부산외대), 박형준(부산외대)
연구이사	장니나(부산외대), 명형철(꿈다미인재교육원)
기획이사	이윤진(안양대), 신용식(부산장신대)
섭외이사	김 훈(국방어학원), 최나래(부산외대)
출판이사	이채임(울산대), 이수지(부산외대)
정보이사	정미경(부산 금정초등학교), 강서원(부산 영도여자고)
지역이사	서울·경기: 광희정(동국대), 차선일(경희대학교)
	충청: 최주열(선문대)
	경남: 박지애(창원대), 조영미(동국대)
	대구, 경북: 최은숙(경북대)
	전남: 박혜경(전남교육정책연구소)
	제주: 양영자(제주대)
해외이사	류영진(일본 기타큐슈시립대학), 한영란(일본 간사이외대), 사정정(중국 길림공정사범학원), 조현지(태국 치앙마이 라차팻대), 김현숙(독일 빌레벨트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황미혜(편집위원장), 조은래, 정명숙(이상 부산외대), 명형철(꿈다미인재교육원) 간사: 김혜빈(동아대), 김남희(동아대)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회원 명단

번호	성명	소속	이메일
1	권오경	부산외국어대학교	kok7352@hanmail.net
2	이도경	인제대학교	yyidodo@hanmail.net
3	조위수	부산외국어대학교	only0124@bufs.ac.kr
4	박형준	부산외국어대학교	corea@bufs.ac.kr
5	이정아	부산외국어대학교	leejunga@bufs.ac.kr
6	조은래	부산외국어대학교	erj@bufs.ac.kr
7	우형식	부산외국어대학교	woohs@bufs.ac.kr
8	최주열	선문대학교	sunmoon888@hanmail.net
9	조영미	동국대학교	m_cultural@naver.com
10	최은숙	경북대학교	olive7007@hanmail.net
11	양영자	제주대학교	ormyj@hanmail.net
12	김정임	고신대학교	ijk0305@hanmail.net
13	이수경	인제대학교	sklee@inje.ac.kr
14	한영란	일본간사이외대	toqurdi@gmail.com
15	정윤희	베트남 하노이사범대학교	janice0405@naver.com
16	김현숙	독일 빌레벨트대학교	kim-cultural@gmx.net
17	박정미	부산외국어대학교	jmpark4601@hanmail.net
18	최나래	부산외국어대학교	faust9972@naver.com
19	황미혜	부산외국어대학교	hmh68@bufs.ac.kr
20	두보	신라대학교	tubo110@hotmail.com
21	이리경	동명대학교	vcelloceci@hanmail.net
22	박성옥	동주대학교	minguyoung1@naver.com
23	강보석	한국해양대학교	boseokgang@naver.com
24	박혜경	전남교육정책연구소	acacia333@naver.com
25	김현민	(주)다문화인재양성센터	dkhsdd@hanmail.net
26	이재명	동아대학교	2teacher@naver.com
27	김효정	분포초등학교	mksony@naver.com
28	김현진	동명대학교	victoria925@naver.com
29	박혜인	울산대학교	hi01033599891@gmail.com
30	이재임	울산대학교	sujar2010@daum.net
31	강서원	부산 명호고등학교	kangsw41@daum.net
32	이경주	부산외국어대학교	lkjyh@hanmail.net
32	이수지	부산외국어대학교	suji0417@hanmail.net
33	윤주원	부산외국어대학교	malika86@hanmail.net
34	이필숙	사회복지법인 자성 대표	compass99@naver.com

36	옥영혜	서인다문화교육연구	yasemin2@naver.com
37	김미희	동해시늘사랑사회서비스센터장	mihui@daum.net
38	강현주	부산외국어대학교	love200f@nate.com
39	박슬기	신라대학교	bsg8650@naver.com
40	서상희	부산외국어대학교	seo2340@daum.net
41	김윤주	부산외국어대학교	dbsw0616@naver.com
42	한정범	부산외국어대학교	bum282@naver.com
43	권진녀	부산외국어대학교	zhennu@hanmail.net
44	민혜경	울산대학교	min4249@naver.com
45	배정화	경상대학교	ido0124@hanmail.net
46	허경옥	김해대학교	2004hko@hanmail.net
47	이경민	부산외국어대학교	komini78@naver.com
48	노승인	부산외국어대학교	nsi3139@naver.com
49	허훈	동아대학교	hhun09@hanmail.net
50	전수현	동아대학교	kkweck@hanmail.net
51	정세리	부산외국어대학교	cherry6353@naver.com
52	사정정	중국 길림공정사법학원	shitingting@daum.net
53	이선현	세종학당(중국 선양)	junujiwoo@naver.com
54	강남우	부산외국어대학교	jiangnanyu@naver.com
55	류경혜	양산외국인력지원센터장	helen1141@hanmail.net
56	박진미	부산외국어대학교	onlyjin2y@hanmail.net
57	김혜윤	울산대학교	llady27may@naver.com
58	양민철	부산외국어대학교	redbaby486@gmail.com
59	김세진	인제대학교	sejin@inje.ac.kr
60	이정애	한국다문화국제학교	kmis17@hanmail.net
61	정나겸	베트남교류협회	arabypac@daum.net
62	기준성	디지털서울문예대	z3230699@scau.ac.kr
63	윤향희	공주교육대학교	yunhyanghee@naver.com
64	이성순	목원대학교	sslee@mokwon.ac.kr
65	김현주	진주교육대학교	hjkim@cue.ac.kr
66	전은희	순천제일대학교	tanosimini1@gmail.com
67	우시향	단국대학교	wsh4000@hanmail.net
68	김명석	위덕대학교	kimms@uu.ac.kr
69	이명애	경성대학교	kl7319@hanmail.net
70	이진석	동아대학교	jinslee@dau.ac.kr
71	이소라	부산외국어대학교	7623scent@hanmail.net

72	코다야 마유미	부산외국어대학교	mayumilk@daum.net
73	황영이	부산외국어대학교	0202hyy@hanmail.net
74	황리핑	부산광역시교육청	
75	우옌	부산시교육청	wuyan12600@hanmail.net
76	두루가	통번역, 다문화강사	durga80041@naver.com
77	김덕기	팔금산 미술관	site8038@naver.com
78	배경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pretty4y@hanmail.net
79	김태이	부산외국어대학교	6503kyy@naver.com
80	정미경	부산 금정초등학교	ranche3118@hanmail.net
81	신용식	부산외국어대학교	sinsysik0292@naver.com
82	조대휘	부산외국어대학교	
83	지영희	부산시다문화교육지원센터	ssjyh32190@hanmail.net
84	김희정	부산외국어대학교	hennyk@naver.com
85	허숙미	신라대학교	miscis@daum.net
86	궁즈제	부산외국어대학교	335479153@qq.com
87	전미숙	부산외국어대학교	losa67@naver.com
88	조연주	부산외국어대학교	joytothelord58@naver.com
89	박현아	부산시교육청	hyuna5584@naver.com
90	권세미	일본류코쿠대학교	ryo3025@gmail.com
91	허지인	KONAN UNIVERSITY	aozora24@gmail.com
92	강현숙	(주)디케이지	gajung333@naver.com
93	신유진	부산외국어대학교	yoojins@bufs.ac.kr
94	어혜영	부산외국어대학교	seafish85@hanmail.net
95	이영희	창원대학교	dion82@naver.com
96	안윤지	동아대학교	yunji767@hanmail.net
97	명형철	꿈다미인재교육원	mhc5818@hanmail.net
98	전정미	부산외국어대학교	enaro72@naver.com
99	김정아	부산시어린이회관 교육연구관	edukja@hanmail.net
100	공수영	김해 우암초등학교	kong200078@hanmail.net
101	강혜정	동아대학교	epui0228@hanmail.net
102	김경녀	부산외국어대학교	nyed11@hanmail.net
103	이영선	동아대학교	yungsunshine@naver.com
104	김수진	동아대학교	ksj0@dau.ac.kr
105	박은주	오사카조가쿠인대학교	geheimnis6525@gmail.com
106	윤혜진	부산외국어대학교	happy0304n@naver.com
107	함윤주	부산외국어대학교	funny8203@naver.com

108	김남희	부산외국어대학교	kinegt@naver.com
109	김혜빈	부산외국어대학교	hyebin5180@gmail.com
110	원영숙	국제이주교류협회	yswon9@hanmail.net
111	심영택	경북대학교	afreeman@naver.com
112	김채금	청강유치원	cormail177@gmail.com
113	정휘우	부산외국어대학교	gestalt1@naver.com
114	류승의	동명대학교	iris829@hanmail.net
115	신미숙	동아대학교	7023sms@hanmail.net
116	신용일	동아대학교	yongilshin@naver.com
117	오상민	부산외국어대학교	mean8410os@naver.com
118	조완철	부산외국어대학교	20188222@bufs.ac.kr
119	성수나	통합TA연구소	ssa1118@daum.net
120	김송설	광양평생교육관	zhufu217@naver.com
121	정남훈	경주 유림초등학교	arnold730528@hanmail.net
122	정경옥	초록꿈어린이집원장	cjolove-2002@hanmail.net
123	김명자	김해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kmj0025@hanmail.net
124	김민정	동아대학교	antl1dd174@hanmail.net
125	한채운	울산남창고등학교	cloud41@hanmail.net
126	송순임	온산고등학교	nanggirl@hanmail.net
127	우효비	동아대학교	liaojinhan@naver.com
128	배재현	보수초등학교	qowogus000@naver.com
129	박지애	창원대학교	japark@changwon.ac.kr
130	정명숙	부산외국어대학교	jms@bufs.ac.kr
131	곽희정	동국대학교	jj3kwak@hanmail.net
132	조현지	태국 치앙마이 라차팻대학교	hyunjee04@naver.com
133	김용미	부산외국어대학교	pinguel23@naver.com
134	김태완	동아대학교	tw6874@naver.com
135	황경득	부산 구평초등학교	deug2@naver.com
136	권영은	부산은행	dkxpsp43@hanmail.net
137	장니나	부산외국어대학교	jazzinred@naver.com
138	로문봉	부산외국어대학교	cjzlwf0865@daum.net
139	박하연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angelahayeon@gmail.com
140	안지현	부산외국어대학교	ahnji hyun@bufs.ac.kr
141	조문균	부산대학교	260903800@qq.com
142	이수자	전남대학교	suja98@hanmail.net

143	이원식	금강대학교	2ws@gg.ac.kr
144	이영실	금강대학교	kakaleeo@nate.com
145	장민희	경희대학교	mhchang0523@gmail.com
146	증덕	신라대학교	karen517666@163.com
147	집천원	중국 운남대학교	1049349249@qq.com
148	최요로	동아대학교	702316229@qq.com
149	안기	전주대학교	382927201@qq.com
150	제혜금	전주대학교	huiqin1997@hanmail.net
151	소혜진	전주대학교	hs6363@gmail.com
152	김연희	대원대학교	liensi@hanmail.net
153	진소영	부산외국어대학교	jsy13907@naver.com
154	신소영	한림대학교	heeje@hallym.ac.kr
155	유승금	한림대학교	ysgeum@hallym.ac.kr
156	권순희	이화여자대학교	shkwonkim@ewha.ac.kr
157	이혜림	서울대학교	hr.lee@snu.ac.kr
158	조윤희	신한대학교	yunhi4423@shinhan.ac.kr
159	고미숙	천안어린이꿈누리터	me2995@hanmail.net
160	안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oxygenajm@gmail.com
161	정용균	국립강원대학교	ykchung@kangwon.ac.kr
162	김 훈	국방어학원	kartosika@hotmail.com
163	류영진	기타큐슈시립대학 지역 전략연구소	rosemary1095@naver.com
164	차선일	경희대학교	madeinone@naver.com
165	이윤진	안양대학교	smile-yunjin@hanmail.net
166	구지은	고신대학교	kje9176@hanmail.net
167	윤병걸	한림대학교	79neva@naver.com
168	임덕인	ICU국제기독교대학	dukin21go@gmail.com
169	임진숙	부산외국어대학교	limjinsuk@bufs.ac.kr
170	김민수	상명대학교	1013min@naver.com
171	최민지	상명대학교	aaaaaa0113@naver.com
172	김수연	성균관대학교	sooyeon620@gmail.com
173	김지민	CARE(Comfort Women Action for Redress and Education)	jiminkk@gmail.com
174	최대희	전남대학교	ppiraten@naver.com
175	공경	부산외국어대학교	piou8491@naver.com
176	풍탐 시와폰	부산외국어대학교	somz.miso@gmail.com
177	유진숙	부산외국어대학교	lafete1789@hanmail.net
178	정윤희	영남사이버대학교	janice0405@naver.com

국문제목: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영문제목: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권 수: 제9집

발 행 인: 권오경

발 행 처: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연구소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A동 407호

연 락 처: 051)509-6622

인 쇄: 2021년 11월 30일

발 행 일: 2021년 11월 30일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Vol. 9 (2021.11)

Su-Young Kong ▪ Case study of forming identity and finding dreams of multicultural students through club activities - Jinro Tantan and Career Basic Education Program use	1
Young-Eun Kwon ▪ Multi-cultural Families on the Activation of Financial Education for Social Values : A case Study of Busan Bank	27
Hyung-Jun Park ▪ A study on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multicultural research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arties concerned	49
Ji-Hyun Ahn ▪ The Prospect of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Focusing on Comparing to English Language Education	75
Ni-Na Chang ▪ study on the direction of online foreign language classes based on Content-based Language Teaching(CBI) in the new normal era -Focusing on the training of refugee professional interpreters and legal interpreters based on Zoom video conferencing	97
Mi-Hye Hwang ▪ The research of Multicultural Society Between Reverse Discrimination and the Related Policy Measures based on Affirmative Action Policy	121

The Association for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